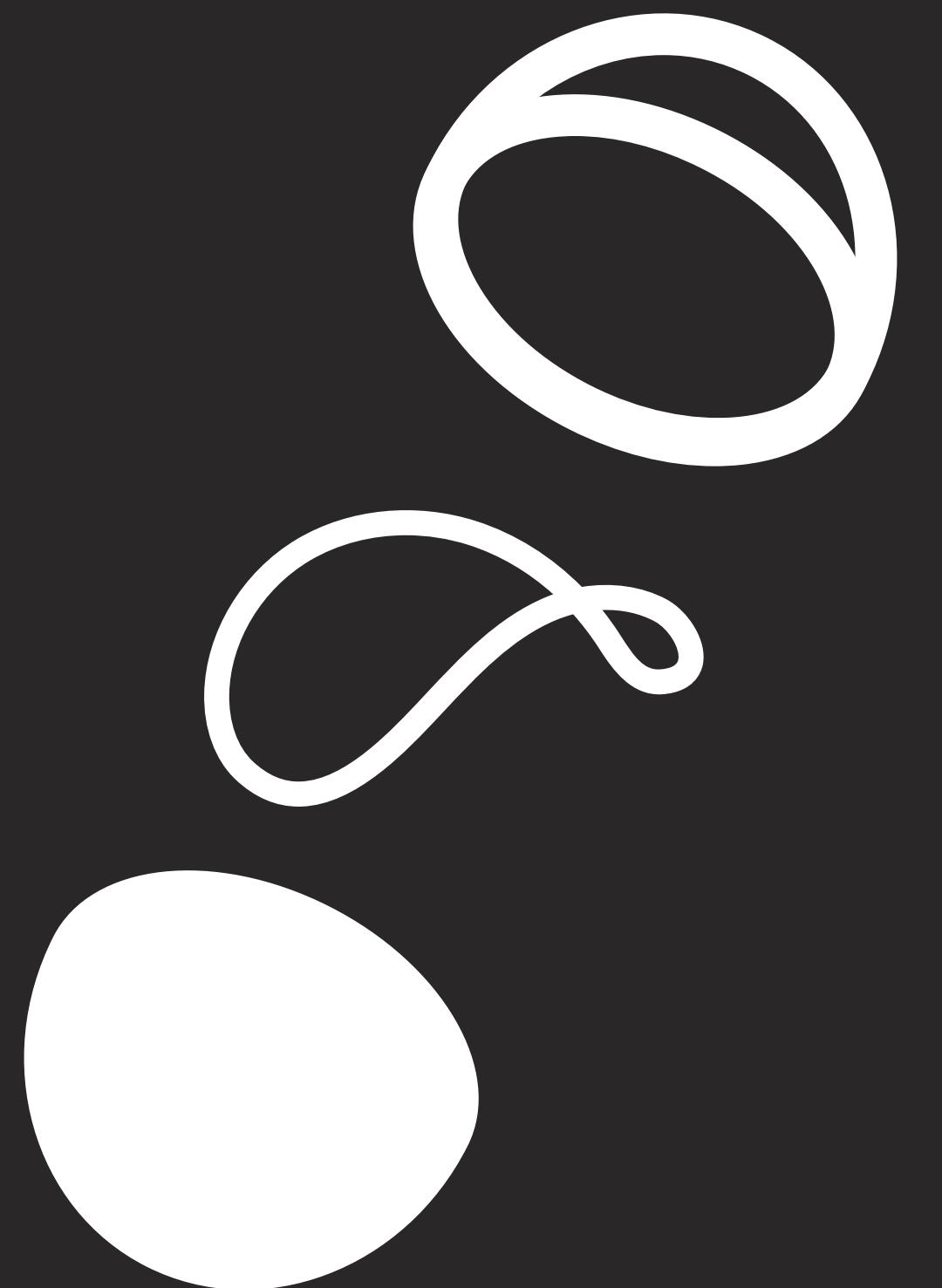


Studio Half-bottle

시각디자인 작업 포트폴리오

email address
hello@half-bottle.studio

webpage
<https://half-bottle.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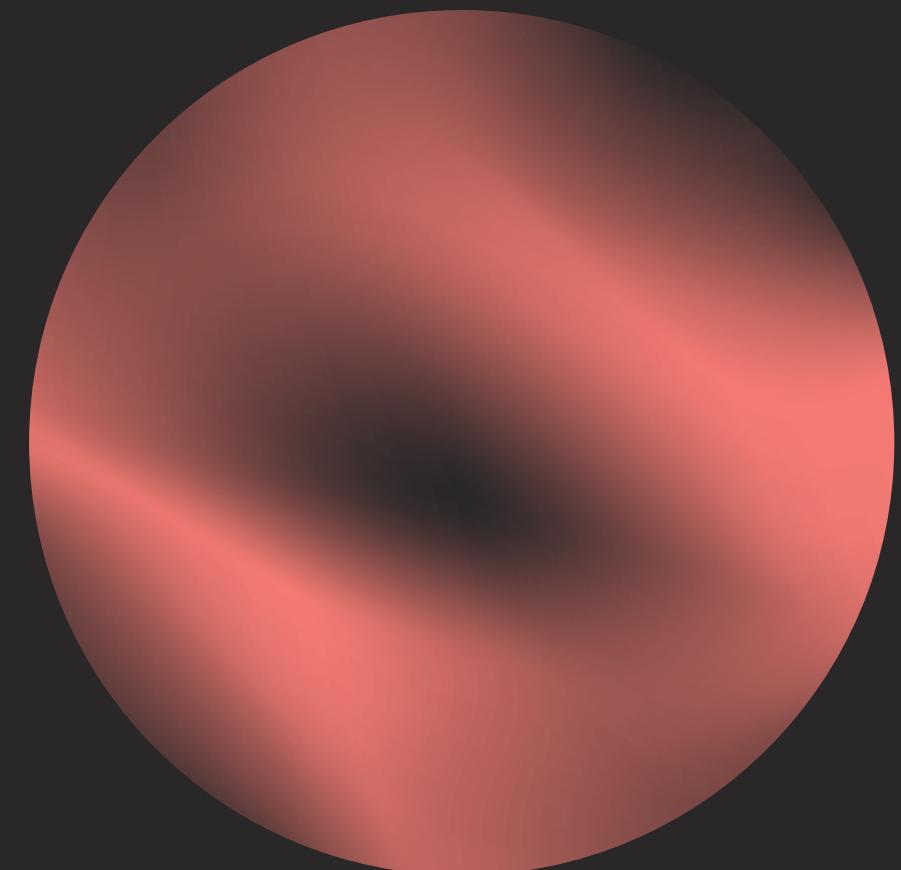


(1) 브랜딩/프로모션 관련 작업

p. 3
전국투표전도 2018



p. 10
멘탈 응급상자: Mind your m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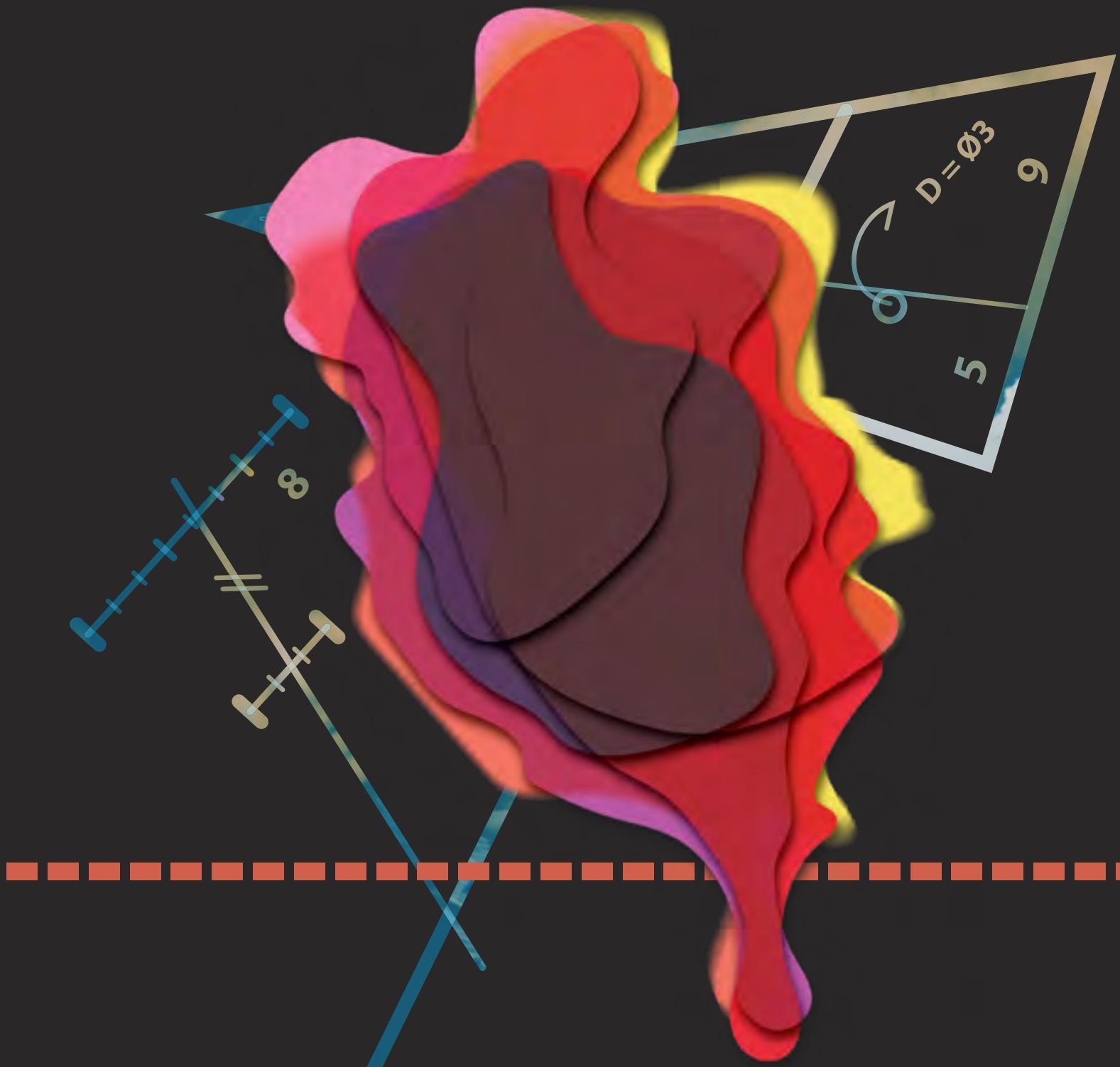


gle

p. 17
GLE: 기레기인증시험



p. 24
Liberact 연극 홍보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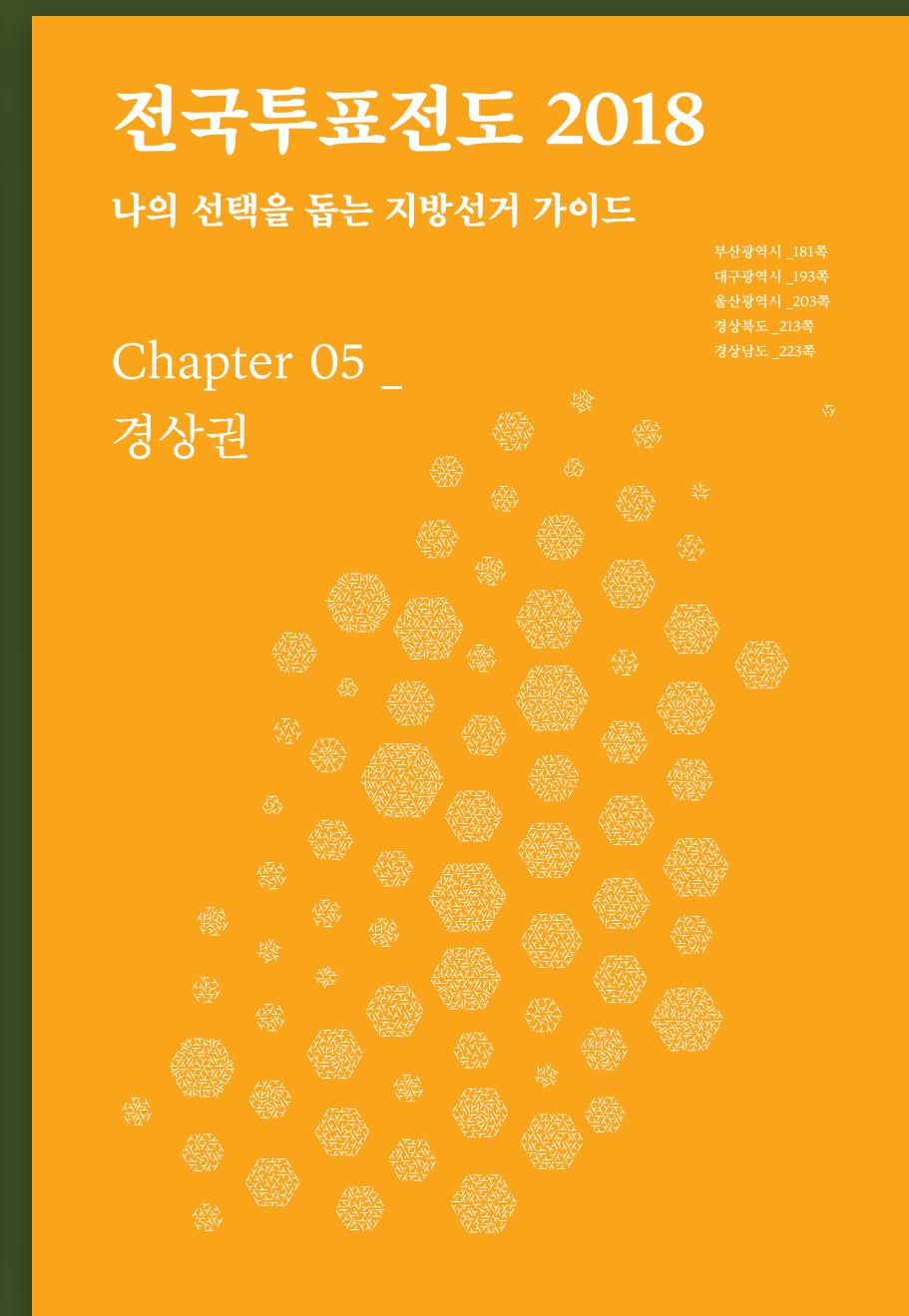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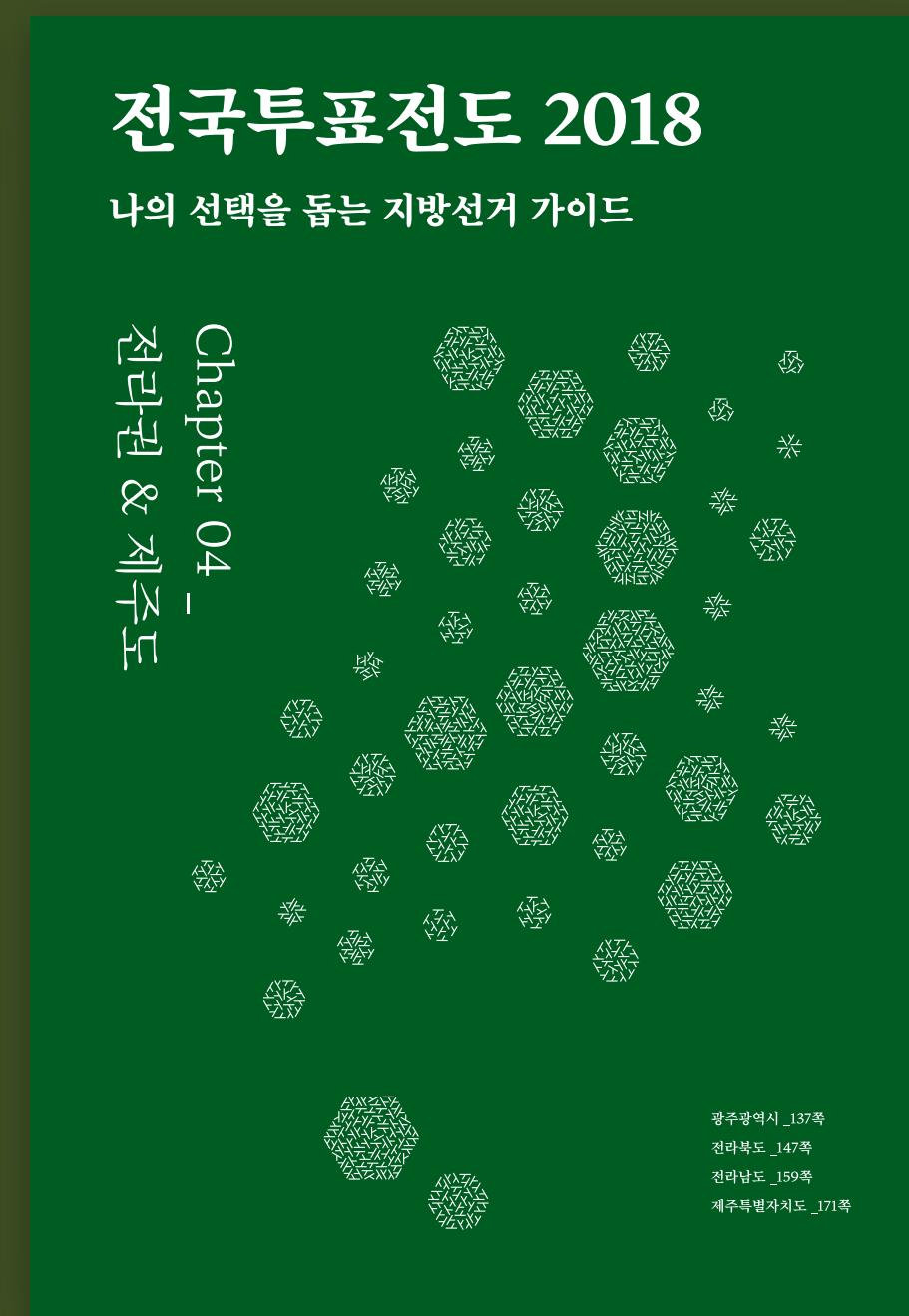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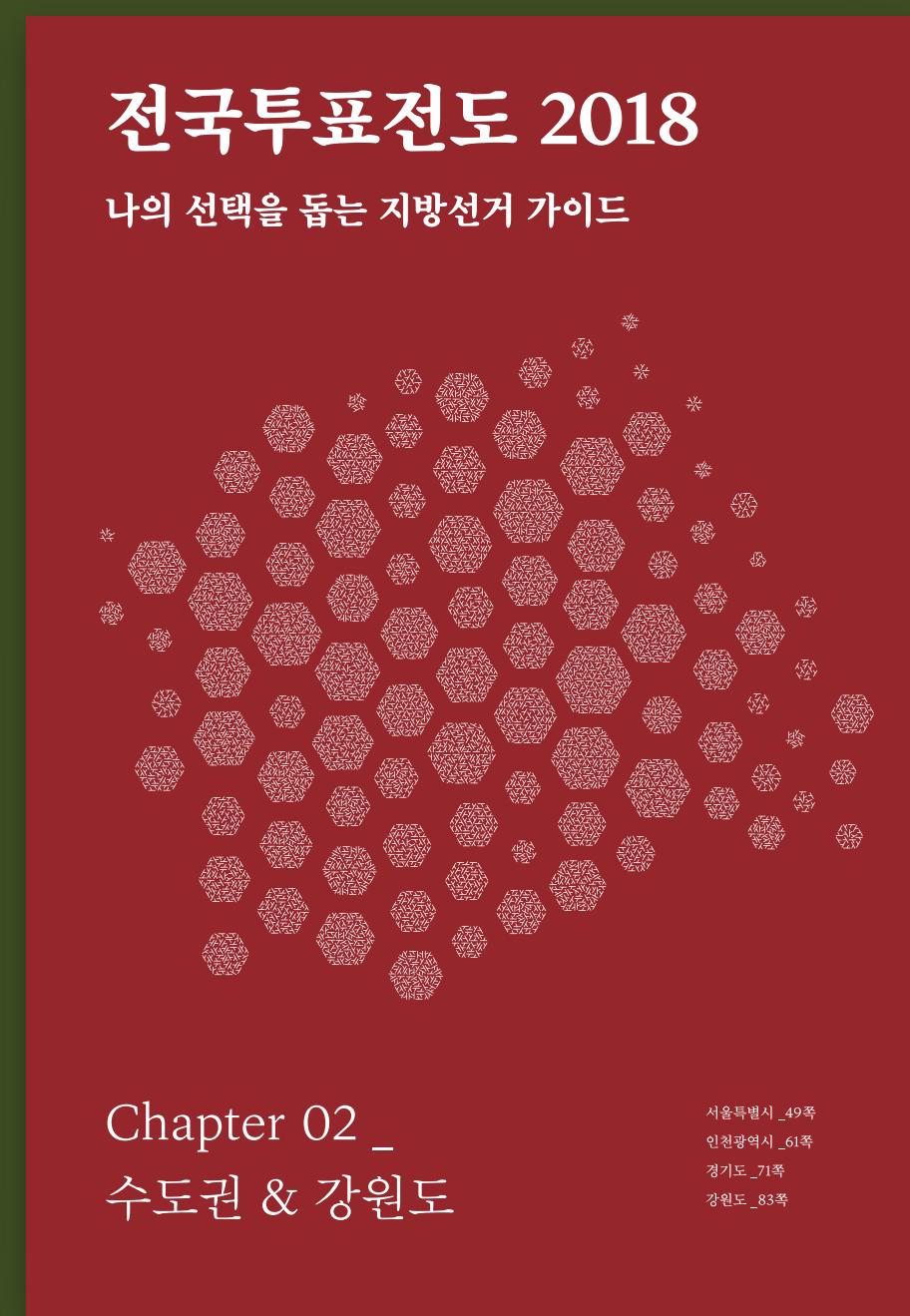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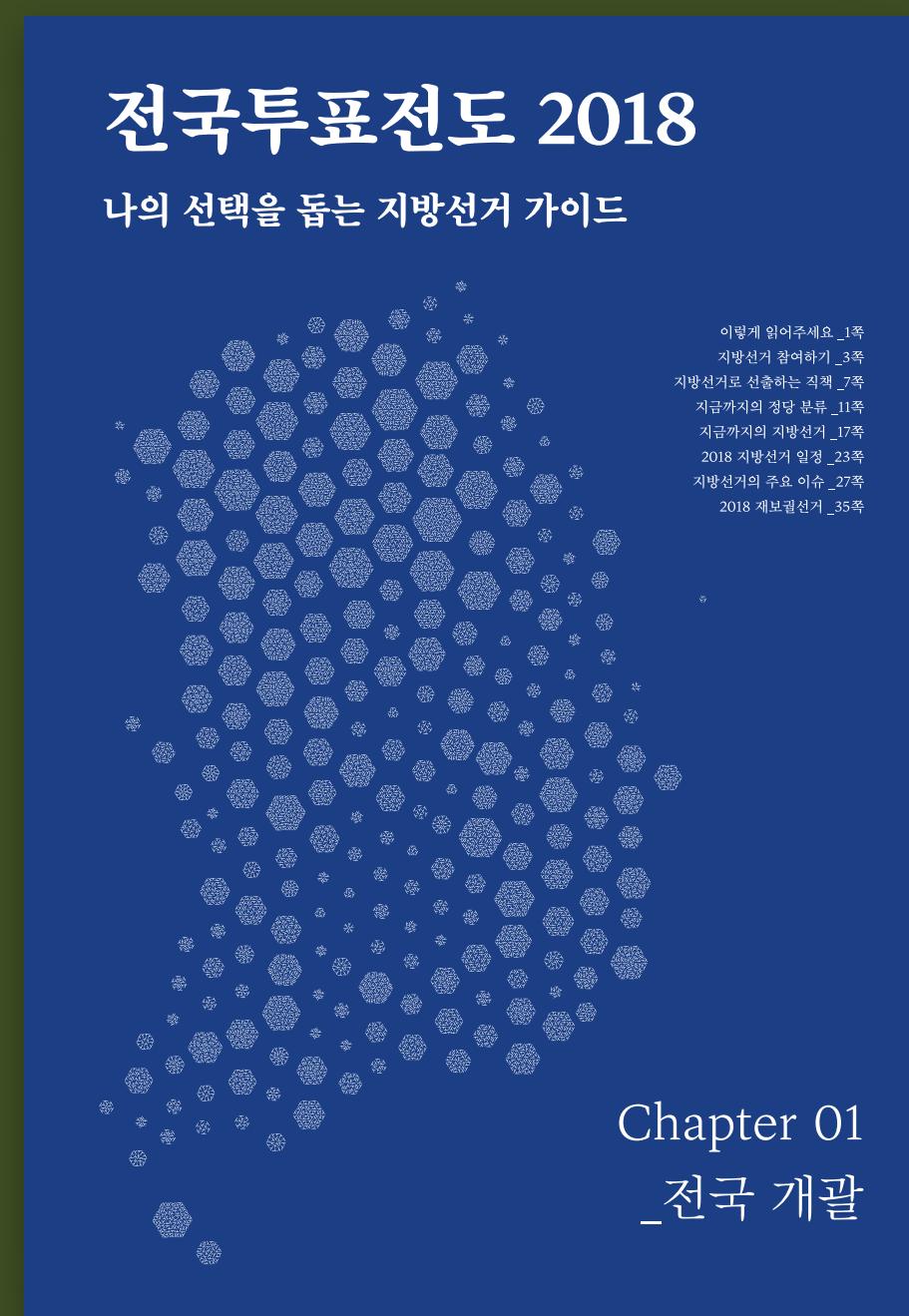
이 장에는 브랜딩 또는 프로모션에 사용된 디자인을 모았습니다. 각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추어, 디자인 기획부터 실제 시각화까지 전체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작업은 보통 브랜드와 프로모션이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주제와 감성을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이 내용으로부터 시작적 요소를 끌어낸 뒤, 프로젝트 속 여러 디자인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전국투표전도 2018

“나의 선택을 돋는 지방선거 가이드”

정적 인포그래픽, 책자 편집디자인 + 굿즈 디자인

2018. 02. ~ 2018. 05.



발표 매체

Tumblbug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독립출판.

https://www.tumblbug.com/skorea_election_map_2018

월간 <DESIGN> 2018년 6월호 Editor's Pick 수록.

(p.18, [링크](#))

격월간 <CA> 2018년 7/8월호 Project 수록.

(pp.94~99, [링크](#))

제작 참여

프로젝트 그룹 “스튜디오 하프-보틀”的 이름으로 활동.

조현익 (기획, 집필, 인포그래픽, 표지 및 편집디자인, 굿즈 디자인)

송수영 (책자 레이아웃 및 편집디자인, 굿즈 디자인)

부산광역시 _181쪽
대구광역시 _193쪽
울산광역시 _203쪽
경상북도 _213쪽
경상남도 _223쪽

- 전국투표전도 2018 프로젝트 소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투표를 돋기 위한 단행본 책자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독립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전국투표전도 2018: 나의 선택을 돋는 지방선거 가이드>라는 제목이 붙은 이 책자는, 전국 각 지역별 지방선거 역사와 이슈, 선거결과를 주목할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국단위 내용, 그리고 각 권역별 내용이 각 1권을 이루고 있으며, 총 5권(236페이지)으로 한 뮤음이 구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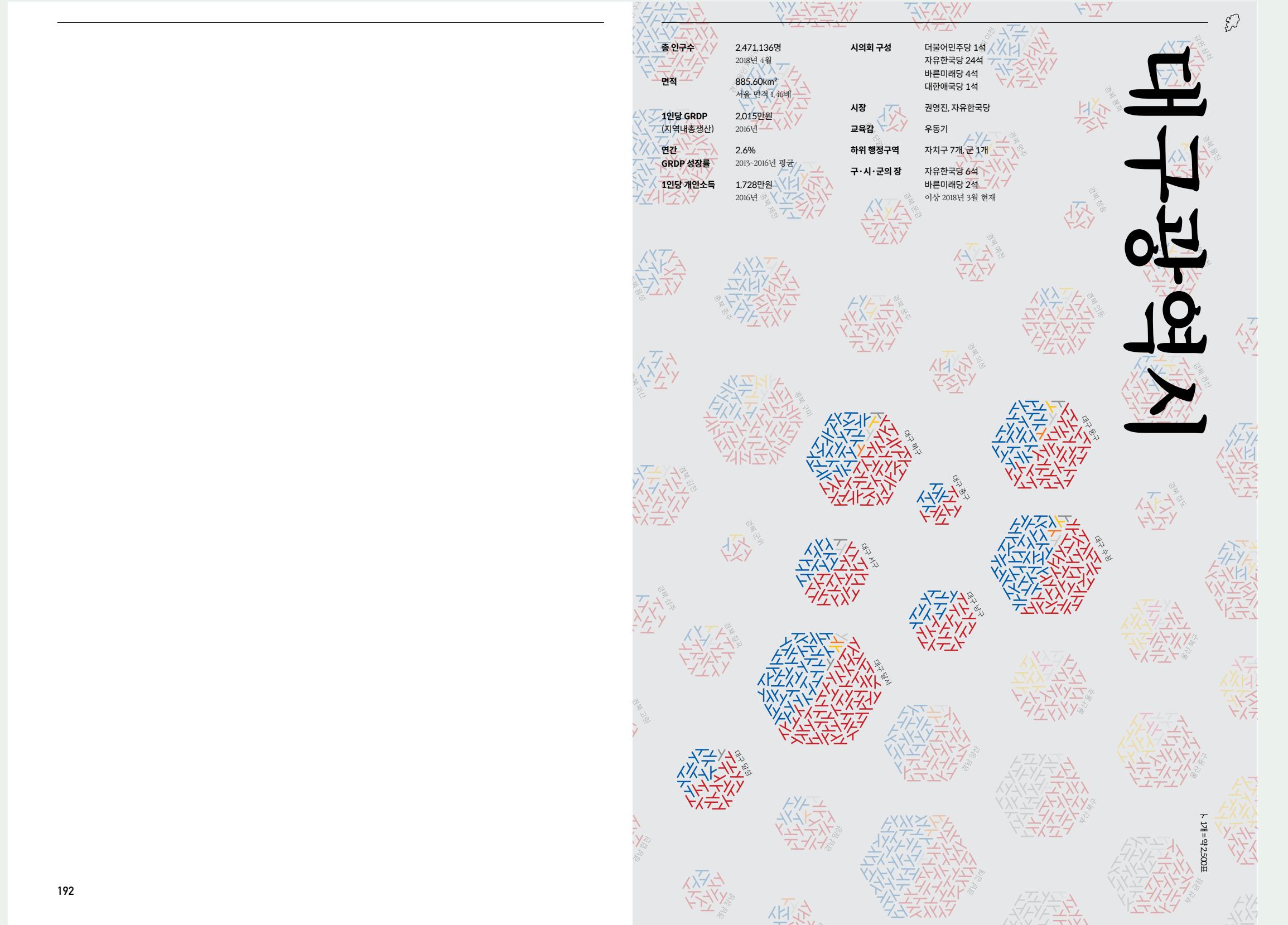
책자에 사용된 그래픽 요소 및 인포그래픽은 2016년부터 개인작업으로 제작한 <대한민국 전국투표전도>를 활용했으며, 이 지도를 통해 지방선거의 각 지역별 과거 결과를 한 눈에 보면서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국투표전도 2018: 나의 선택을 돋는 지방선거 가이드

152 × 225 mm (5권, 총 236쪽),
종이 위에 읍센 인쇄 / 실재봉 중첩제책
Adobe Illustrator, Adobe InDesign
2018년 5월





전국투표전도 2018: 나의 선택을 돋는 지방선거 가이드 (대구광역시 챕터 표지)

152 × 225 mm (5권, 총 236쪽), 종이 위에 옵셋 인쇄
조현이 집필, 인포그래픽 및 편집디자인, 송수영 편집디자인
Adobe Illustrator, Adobe InDesign
2018년 5월

전국투표전도 2018: 나의 선택을 돋는 지방선거 가이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이슈)

152 × 225 mm (5권, 총 236쪽), 종이 위에 옵셋 인쇄
조현이 집필, 인포그래픽 및 편집디자인, 송수영 편집디자인
Adobe Illustrator, Adobe InDesign
2018년 5월

- 책자 레이아웃 디자인

책자 편집디자인은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1)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을 고려해서 만들 것. (2) 인포그래픽이 중심이 되어 눈에 잘 들어오게 할 것.

위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송수영과 조현익이 함께 보수적인 디자인 요소(신국판 판형, 산돌제비를 이용한 본문 타이포그래피)와 짧은 호흡을 유도하는 디자인 요소(여러 단으로 나뉜 본문, 소제목 강조, 5권 분할 중철 실제본 등)를 섞어서 레이아웃을 만들었고, 여기에 본문과 이미지를 배치했습니다.

제주·서귀포시장 직선제 문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로, 제주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한다. 2000년대 들어, 도를 없애고 구·시·군을 병합해서 크기를��우는 방식으로,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구·시·군)의 2단계로 분할된 지방정부를 단계로 개편하는 행정개혁이 추진된 바 있다. 제주도가 그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06년에 〈제주특별법〉이 제정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되어, 중앙정부와 국회의 권한 일부가 도지사와 도의회에게 이양되었다. 기존의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병합되고, 두 시의 자치정부와 의회는 폐지되었으며,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은 도지사의 지시를 받는 단순 행정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현제에도 시장 직선제 부활 문제는 제주도의 주요 이슈로 남아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내 균형발전 문제로 미묘한 갈등이 있고, 제주도 전체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시장 직선제 찬성의견도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 첫째로, 국회에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시의 자치정부를 부활하는 의견이 있다. 둘째로, 자치정부를 부활하지는 않되, 주민선거를 거쳐 선택된 인물을 도지사가 시장으로 임명하는 의견이 있다. 2006년부터 이 문제는 제주도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화두가 되었다.

제주특별법
공식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고, 공식 약칭은 〈제주특별법〉이다.

토지가격 급증, 그리고 부동산 투자이민

최근 5년간 제주도는 관광단지 개발과 이주민 급증으로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겪었다. 2013~17년 사이에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은 20% 이상 급증했으며, 2017년 기준 아파트 평균 가격은 서울, 경기에는 전국 3위를 기록했다. 부동산 투자자본의 급격한 유입으로 제주도의 경제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이 현상이 제주도의 관광산업과 도민 소득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택지와 휴양지 개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는 만큼, 제주도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자체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와 가격안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이슈가 되는 것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제주도는 관광개발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그 결과 모든 외국인은 제주도에 한해 30일간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며, 5억 원 이상 금액으로 제주도 관광단지 내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할 시 영주권이 주어진다. 이 정책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소유한 부동산 비율을 확대시켰다. 제주도의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에 의한 무분별한 토지 매입이 토지가격 폭등과 난개발의 빌미를 주었다는 비판이 제주도 내에서 제기된다.

쇠퇴하는 구도심과 발전하는
계획도시가 마주하고 있으면,
도시철도 같은 도시시설의
건설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를
조율하는 지방정부의 정치력이
늘 중요하지만, 대전은 몇 년째
조율에 실패하고 있다.



94

대전광역시는 자유민주연합(자민련)과 자유선진당으로 이어진 충청권 제3정당의 영향력이 20년 이상 지속된 도시이다. 보수주류 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이 대전을 공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대전에서 충청권 제3정당은 충북과 충남에서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곤 했다. 이로 인해 대전의 지방선거 구도는 매번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1995, 1998년 지방선거에서 자민련은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전시장과 구청장, 대전시의회 의원을 손쉽게 석권한다. 당시 자민련은 단순한 충청권 지역주의 정당이 아니라,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의 주류세력이 주축을 이루는 정당이었다. 전라권과 경상권에 비해 지역주의가 약했던 충청권이지만, 자민련은 '정통 보수'를 내세우며 보수주류 정당의 표까지 흡수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런 경향은 1999년 대전시장 선거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보수주류 정당(한나라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DJP 연합을 맺은 민주당계 정당(새정치국민회의) 역시 후보를 내지 않았다. 결국 선거는 자민련 소속의 현직 대전시장(홍선기), 국민신당 소속 후보(송천기), 그리고 민주당계 정당을 탈당한 후 독자출마한 무소속 후보(조명현)의 대결로 진행되고, 홍선기 후보가 73.7%나 득표하며 쉽게 승부가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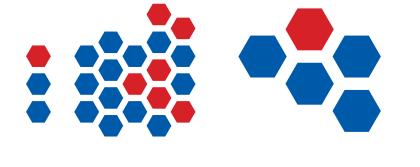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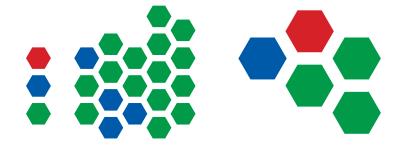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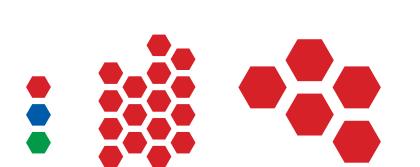
자민련의 대전 독주체제는 2000년대 들어 경쟁체제로 바뀐다. 한나라당은 보수주류 전국정당으로 확고히 자리잡았고, 민주당계 정당도 독자적으로 충청권 공략에 나서면서 대전은 치열한 3파전의 현장이 된다. 2002년의 구청장 선거에서는 자민련이 견승을 거뒀으나, 대전시장 선거에서 염홍철(한나라당)이 3선에 도전하던 홍선기(자민련)를 꺾고 당선된다. 게다가 이때 대전시의회 의석이 한나라당 9: 새천년민주당 1: 자민련 9석으로 갈리면서, 자민련이 단독 과반의석을 얻는데 실패한다. 이때부터 자민련의 물력을 전국에 걸쳐 가속화되어,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국회 전체 의석마저 4석으로 줄어들고 만다.

2006년 지방선거의 대전은 보수적인 표심과 (행정수도 건설로 대표되는) 충청권 개발을 원하는 표심이 대결하는, 보수주류 정당(한나라당)과 민주당계 정당(열린우리당)의 전장이었다. 노무현 행정부에 거부감을 가진 여론이 강한 덧에 열린우리당이 전국적으로 고전하는 상황에서도, 대전에서는 현임 시장 염홍철(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높았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오며 박성호(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던 중, 박근혜 피습 사건이 벌어진다.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가 대전 유세 직전, 서울에서 곤란에게 커피칼로 얼굴을 피습당한다. 불합 수술 직후 깨어난 박근혜가 당직자에게 첫 마디로 "대전온요?"라고 물은 것이 알려지면서, 대전의 민심이 돌아섰다. 박성호가 2%p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되었고, 구청장과 대전시의회 지역구 의석도 모두 한나라당이 가져간다.

경기부록
2018당선인
2018당선인
1999당선인
2002당선인
2006당선인
2010당선인
2014

2006년 당시 중앙경계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삼대편 전 충남지사가 새롭게 창당한 충청권 제3정당인 국민중심당이 대전의 구청장 선거에서 20%대 득표율을 올리며 선전했다. 그리고 국민중심당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보수주류 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의 충청권 인사들, 그리고 이회창(당시 무소속)과 결합한 자유선진당으로 재편된다. 대전의 표심은 새로 부활한 충청권 제3정당으로 쏠렸고, 자유선진당은 2010년 대전시장과 3석의 구청장, 대전시의회의 3/4(22석 중 16석)을 차지한다. 이 당시 대전시의회 지역구 선거에서는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진보연대를 통해 만들어진 민주당-민주노동당 단일후보가 표를 비슷비슷하게 가져가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2012년 자유선진당이 다시 보수주류 정당(새누리당)과 합당한 이후, 자유선진당 소속 주요 정치인들이 보수주류 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으로 조각지면서 대전은 다시 두 정당이 대결하는 구도로 재편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계 정당(새정치민주연합)이 대전시장과 구청장 4석, 대전시의회의 3/4(22석 중 16석)을 차지하며 2010년의 자유선진당만큼의 성적을 거두었다. 특이한 점은, 이때 당선된 권선택 대전시장과 2명의 구청장(충구, 동구)이 과거 자유선진당 소속이었다는 점이다. 충청권 제3정당이 사라졌음에도 그 구성원은 대전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민주당 → 새정치민주연합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민주연합 / 국민중심당 →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의 주요 이슈 & 눈여겨볼 선거

전국투표전도 2018: 나의 선택을 돋는 지방선거 가이드 (대전광역시 인트로)

152 × 225 mm (5권, 총 236쪽), 종이 위에 옵셋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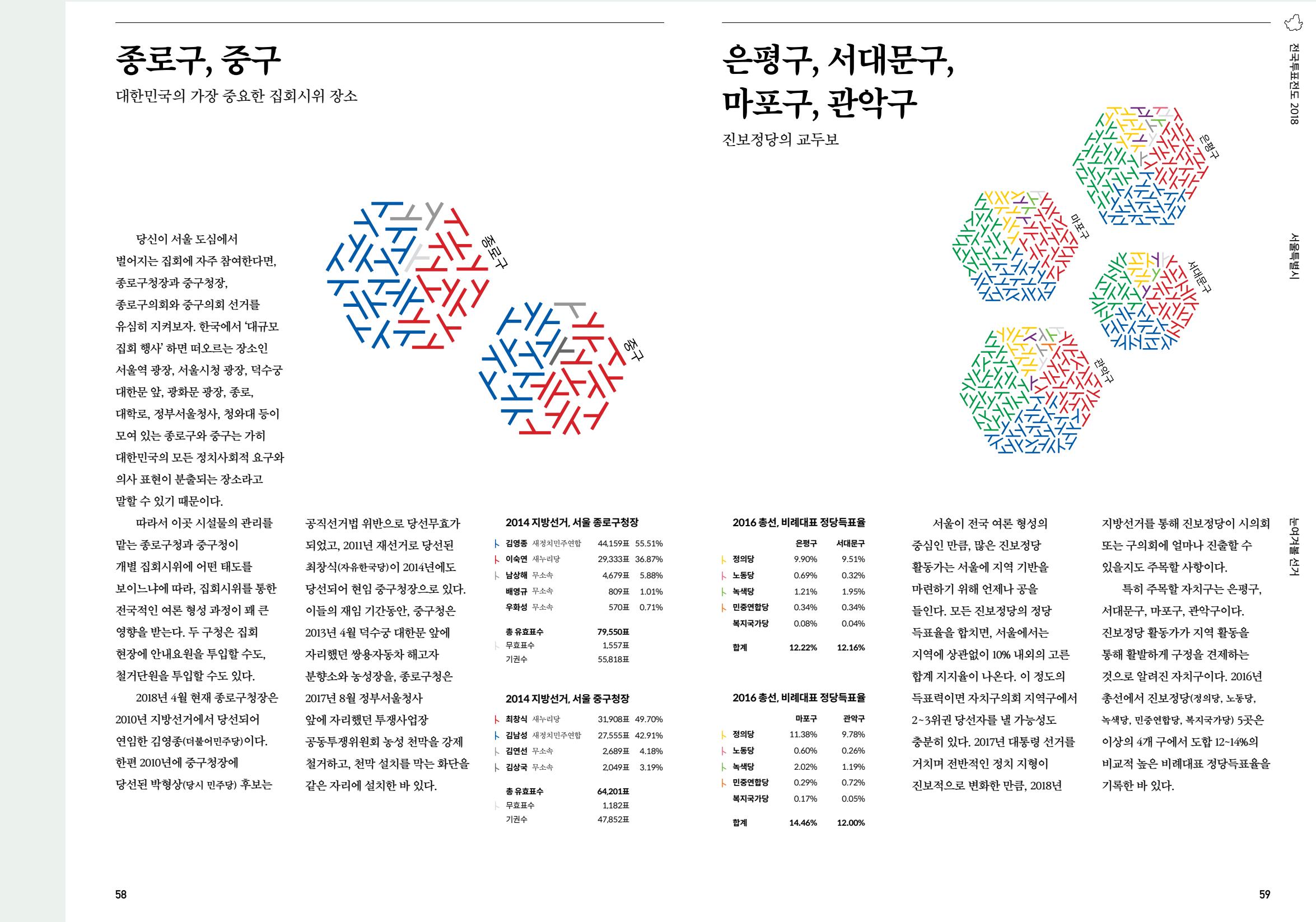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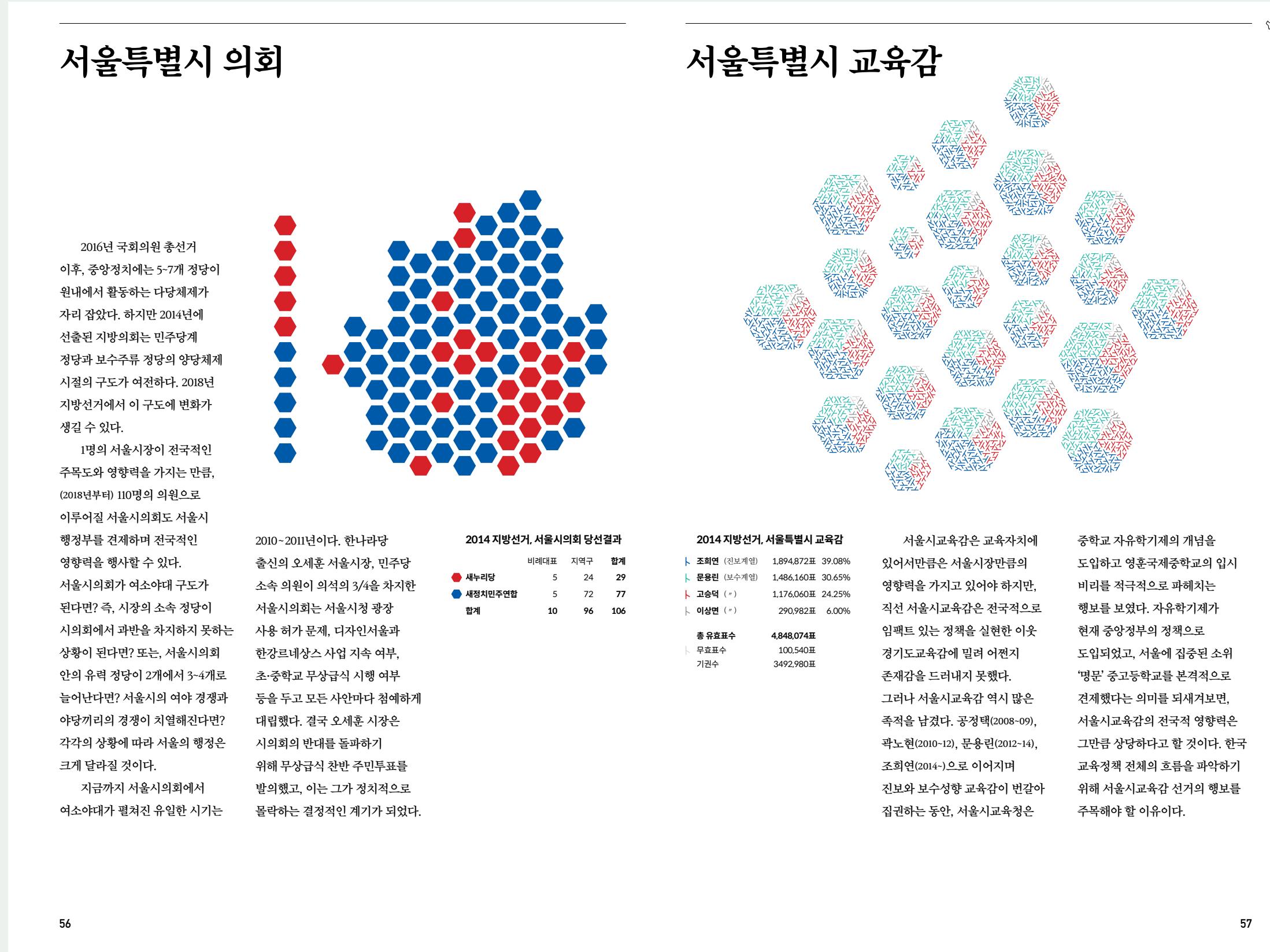
조현의 집필, 인포그래픽 및 편집디자인, 송수영 편집디자인

Adobe Illustrator, Adobe InDesign

2018년 5월

95

96



전국투표전도 2018: 나의 선택을 돋는 지방선거 가이드 (서울특별시의 눈여겨볼 선거)

152 × 225 mm (5권, 총 236쪽), 종이 위에 옵셋 인쇄
조현의 집필, 인포그래픽 및 편집디자인, 송수영 편집디자인
Adobe Illustrator, Adobe InDesign
2018년 5월

- 선거결과 시각화 인포그래픽 디자인

선거결과를 나타낸 인포그래픽의 기본요소는 6각형과 점 복(ト)자(이하 '점')입니다. 이는 실측 지도나 단순한 막대 그래프로 선거결과를 표기하는 것을 넘어서, 각 지역별 인구 및 투표수, 당선의석수의 실제 의미에 맞게 가중치를 부여한 인포그래픽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선거결과를 다양한 기준으로 놓고 살펴보면서, 동시에 시각적 톤을 일관성있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 인포그래픽을 처음 제작했던 2015년의 작업과 함께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 시각화 제안 (1): 인구비례 6각형

각 지역구는 1개의 6각형으로 나타내고, 이 6각형은 지역구별 인구수에 비례하도록 합니다. 실축지도와 달리 인구에 따른 비율로 표시하여, 눈에 보이는 면적이 실제 선거결과의 영향력과 비슷해지도록 합니다.

- 시각화 제안 (2): 심볼을 사용한 득표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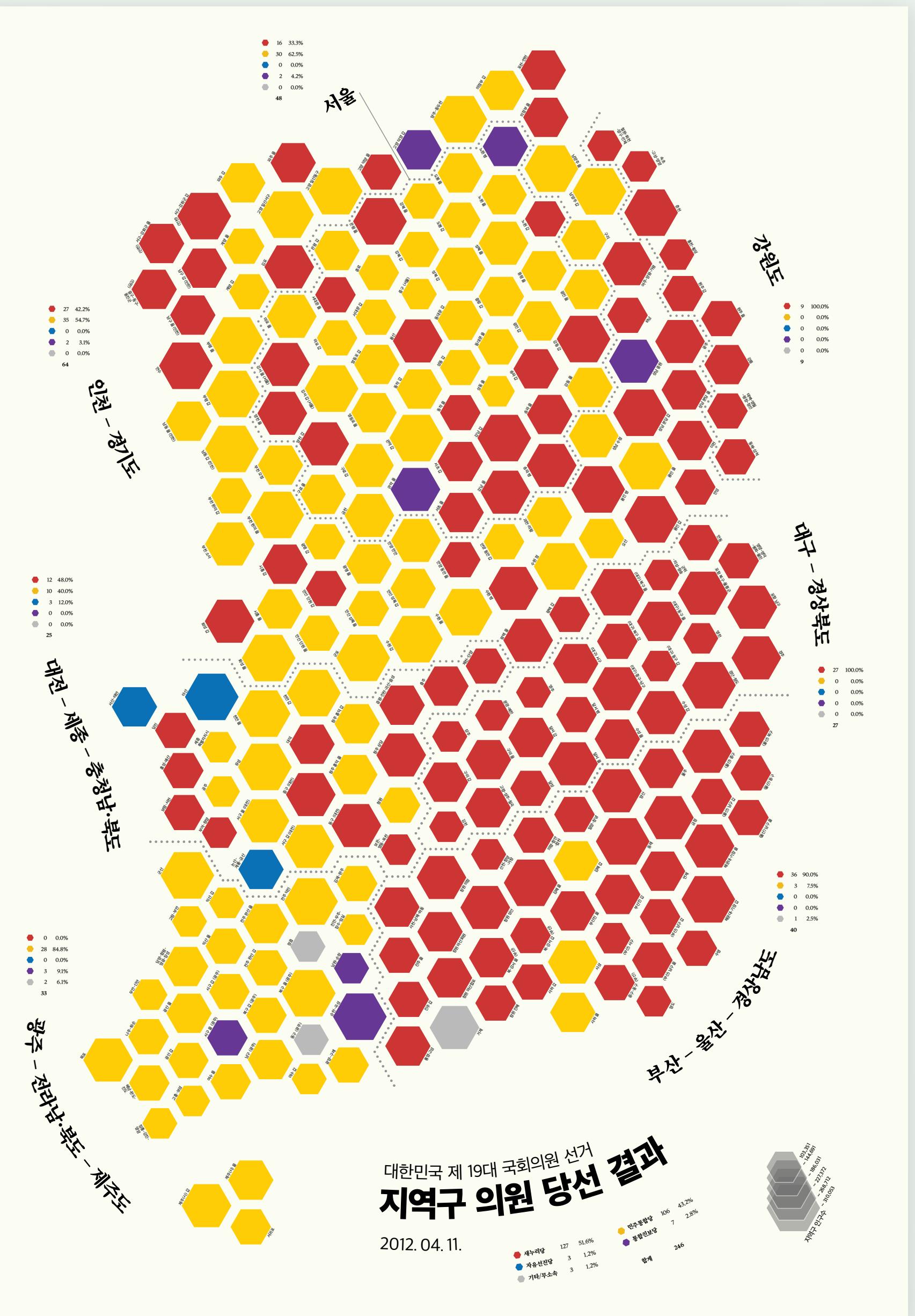
지역구별 득표수는 ‘시민 1명’으로서의 유권자를 드러내기 위해, 일정한 숫자의 유권자를 1개의 덩어리로 나타내서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는 단순한 %의 비율로 표시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하나의 개체로서 존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덩어리는 한국 공직선거의 기표심볼을 사용하여, 정치적 상징성을 담으면서도 6각형과 조형적으로도 어울리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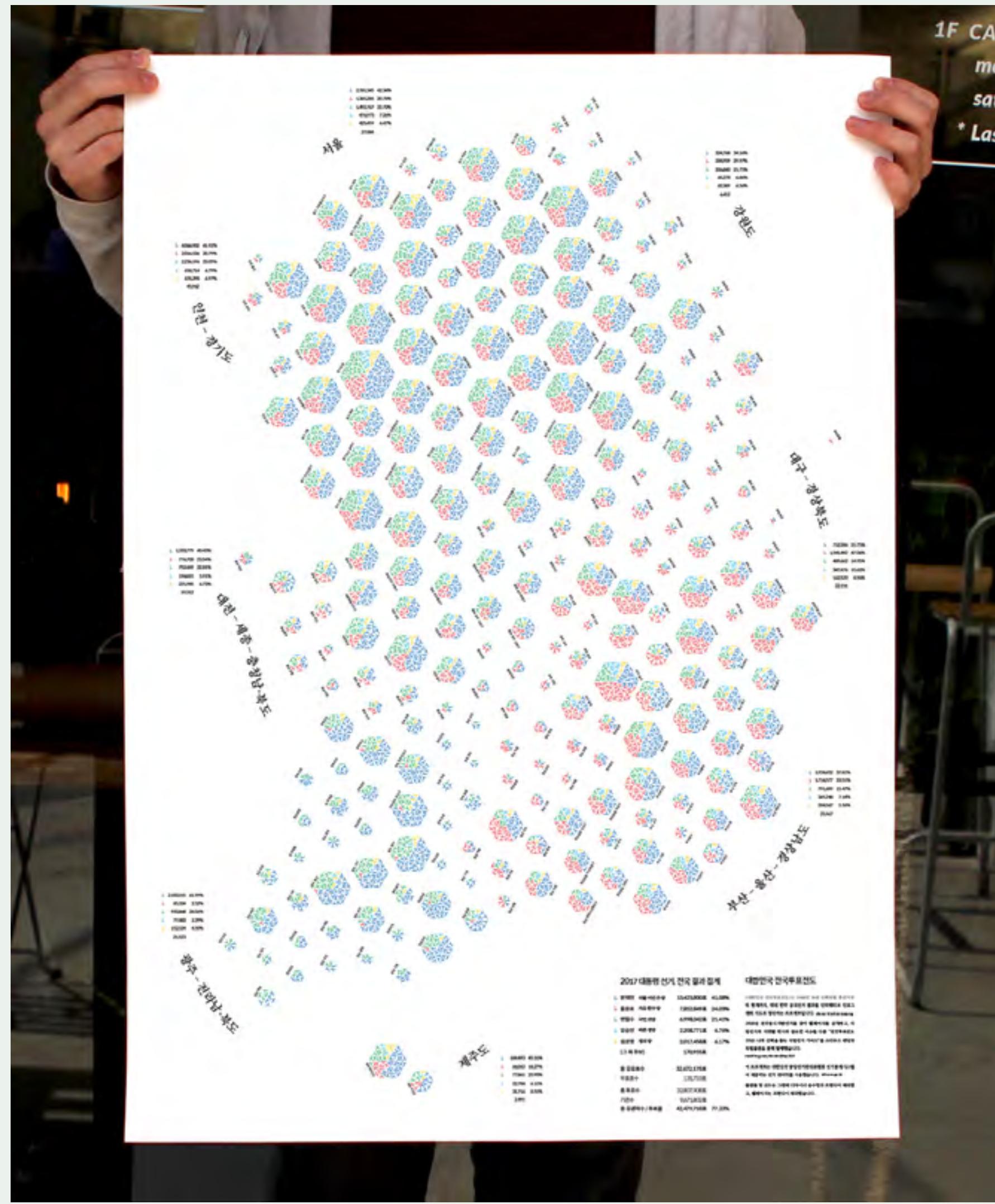
**선거제도 시각화: 2012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비례대표 정당투표 지역구별 득표수)**

707 × 1000 mm, 종이 위에 레이저 대형실사출력
Adobe Illustrator
조현익, 2015년 12월.

**선거제도 시각화: 2012년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전국 비례대표 정당득표수, 비례대표 당선결과)**

707 × 1000 mm, 종이 위에 레이저 대형실사출력
Adobe Illustrator
조현익, 2015년 12월.





전국투표전도 2018: 포스터 리워드 (지도형)

510 × 740 mm, 종이 위에 인디고 출력

조현익 제작

Adobe Illustrator

2018년 5월



전국투표전도 2018: 에코백 리워드

360 × 420 mm, 면 소재 에코백에 실크스크린

송수영 제작

Adobe Illustrator

2018년 5월

전국투표전도 2018: 펜버튼 뱃지 리워드

32 × 32 mm / 44 × 44 mm(원형), 유포지 출력 후 가공

조현익, 송수영 제작

Adobe Illustrator

2018년 5월

전국투표전도 2018: 금속 뱃지 리워드

23 × 23 mm (원형), 금형제작 후 흑니켈도금 및 색칠 후가공

조현익, 송수영 제작

Adobe Illustrator

2018년 5월

- 인포그래픽 요소를 리워드 제품으로 확장

크라우드펀딩에 함께 올릴 리워드(아이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제작되었습니다. 2017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나타내는 인포그래픽 포스터는 인포그래픽의 특성을 가급적 두드러지게 위해, 각 행정구역별 선거 개표결과를 전국 지도의 모양으로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인포그래픽에서 사용된 점 복(卜)자를 문양으로 확장해서 만든 에코백과 뱃지를 제작했습니다. 이는 인포그래픽으로서의 의미보다는, 문양의 조형과 색상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존 인포그래픽에서 사용한 문양의 크기를 확대해서 제작했습니다.

Mind your mind

심리안정 선물세트(“멘탈 응급상자”) 캠페인

캠페인 아이덴티티 디자인, 편집 디자인

2018. 07. ~ 2018. 10.

클라이언트 / 발표매체

김지윤, 상담심리사

Tumblbug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발표

<https://www.tumblbug.com/mindyourmind>

제작 참여

김지윤 (캠페인 기획, 책자 집필, 프로모션 총괄)

조현익 (디자인 컨셉 기획, 책자 편집디자인, 굿즈 디자인)

- Mind Your Mind 프로젝트 소개

“멘탈 응급상자: Mind your mind”는 우울, 불안, 과도한 흥분, 분노 등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세트입니다. 오감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이템과, 불안정 완화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는 가이드북으로 구성됩니다.

Mind your mind는 셀프 수딩Self-soothing이라는 심리학 개념을 사용합니다. 물리적인 행동과 자극을 통해 편안한 오감을 느끼면, 심리적인 불안정을 줄일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신체 자극을 통한 심리적 안정이라는 특징에 착안하여 캠페인의 아이덴티티를 제작, 각종 굿즈 디자인과 패키지에 범용적으로 대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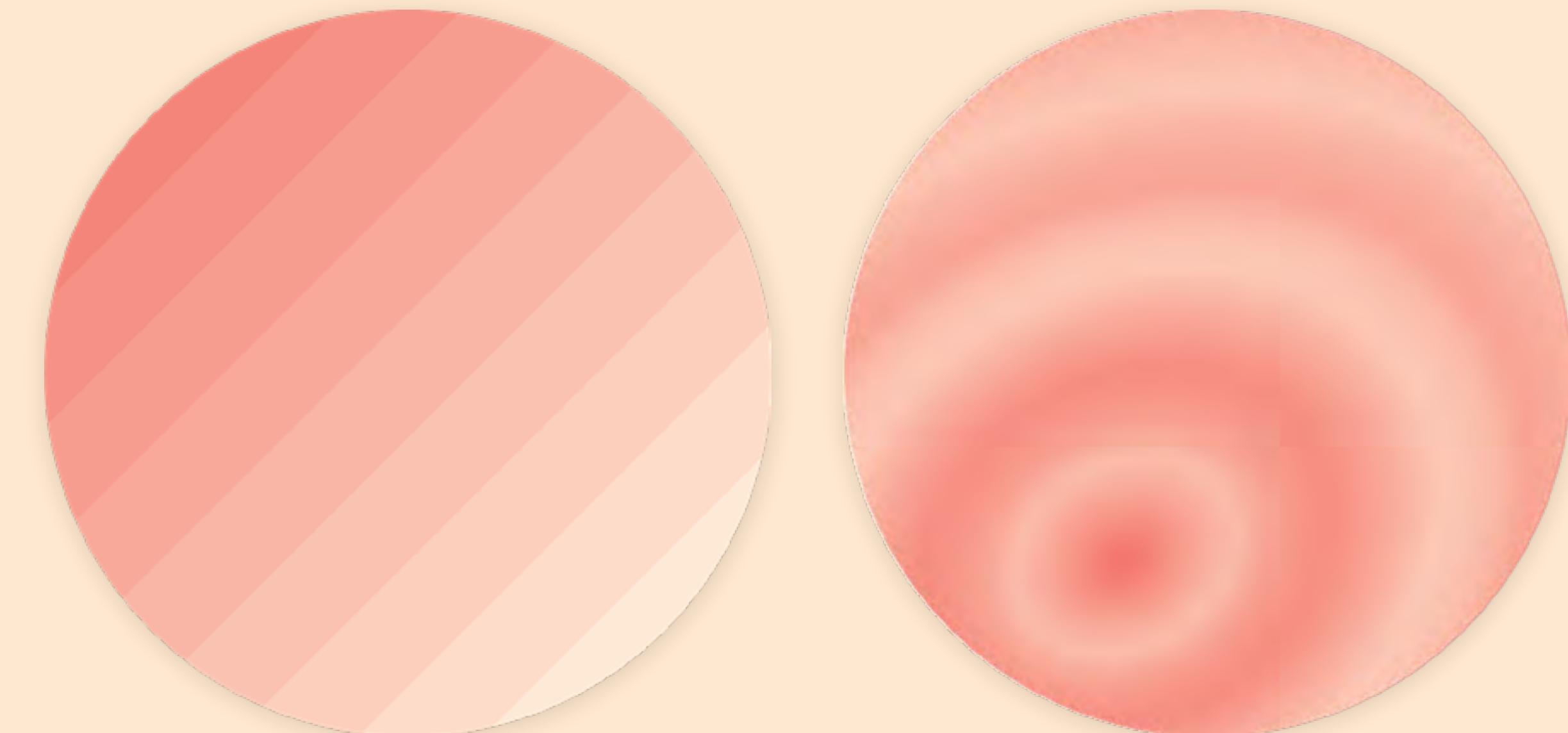


- 프로젝트 아이덴티티 시각화

오감을 이용해 마음을 돌보는 프로젝트인 만큼, 프로젝트의 아이덴티티는 오감을 대상으로 제작했습니다. Mind your mind의 아이덴티티는 우리 몸이 오감을 느끼는 순간, 즉 우리 몸과 자극원이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순간을 시각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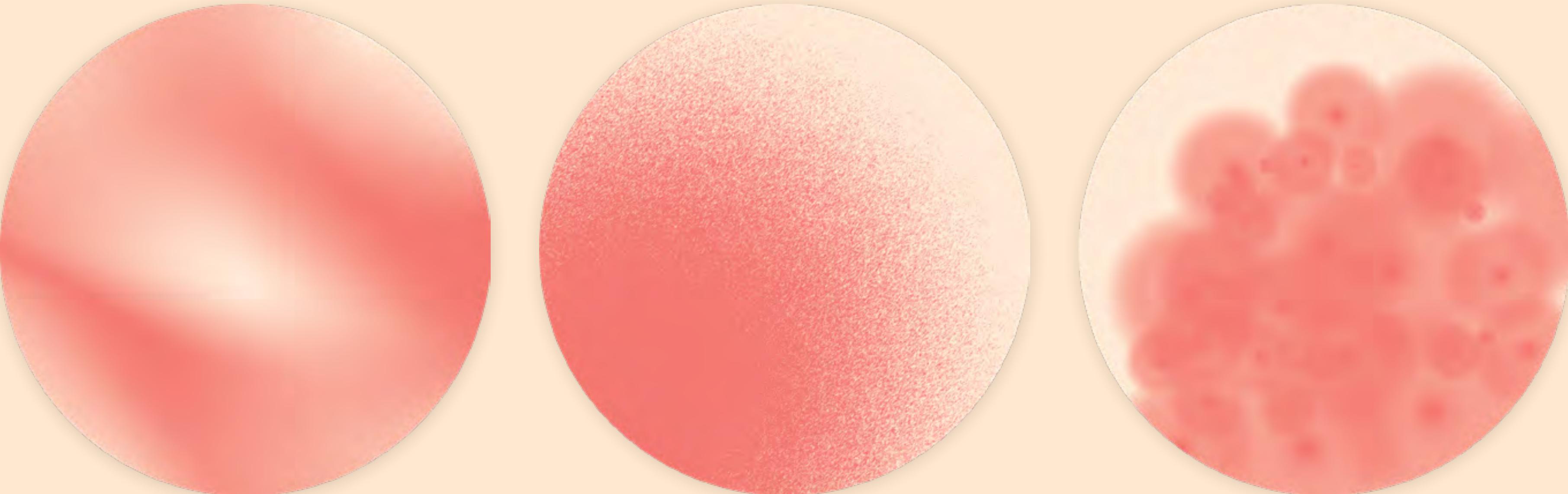
자극원의 다섯 가지 종류, 즉 빛의 명암(시각), 확산되는 파동(청각), 피부를 누르는 압력(촉각), 공기 중의 입자(후각), 액체 중의 입자(미각)를 2도 색상의 음영으로 표현해서, 조형적으로 자극원의 밀도 차이를 부드럽게 느끼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드러운 감각과 감정적인 편안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덴티티 색상은 모든 인류의 신체를 표현할 수 있는 온기 있는 혈색, 노랑과 홍색 사이에 있는 두 개의 색상을 채택했습니다.



Mind your mind: 아이덴티티 기본 패턴 모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Adobe Illustrator
2018년 8월



Mind your mind: 가이드북

105 × 154 mm (100쪽)

종이 위에 레이저출력, PUR 제본

Mind your mind: 엽서

150 × 100 mm (양면, 3종)

종이 위에 레이저출력

Mind your mind: 레더 코스터

90 × 90 mm (양면)

인조가죽 위에 레이저출력

Mind your mind: 손수건

400 × 400 mm

순면(60수 소재) 위에 디지털 나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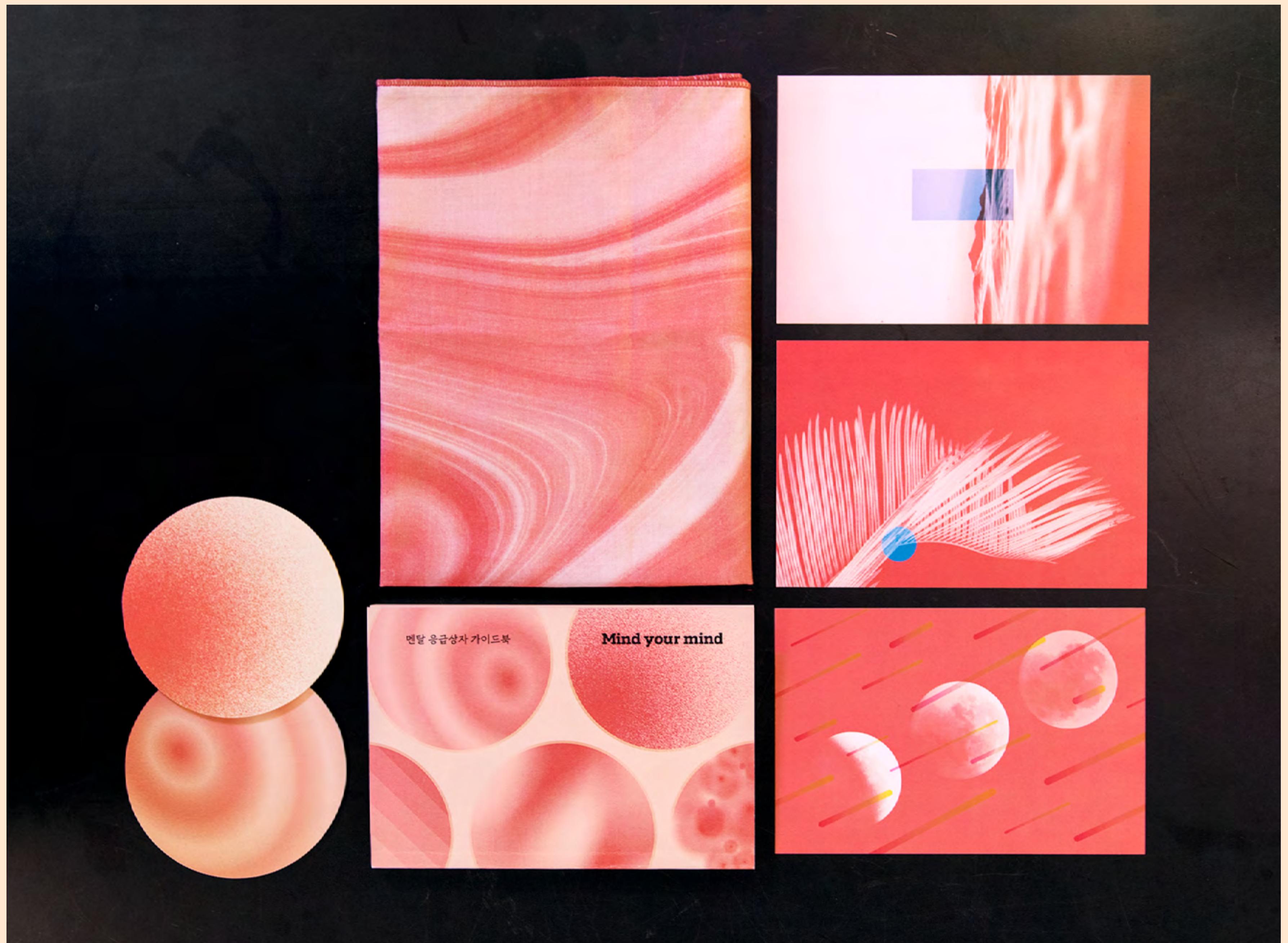
캔들, 쿠키, 온열안대 등 기타 구성품은 시중의 상용품이거나,
다른 창작자의 작업물을 주문해서 구매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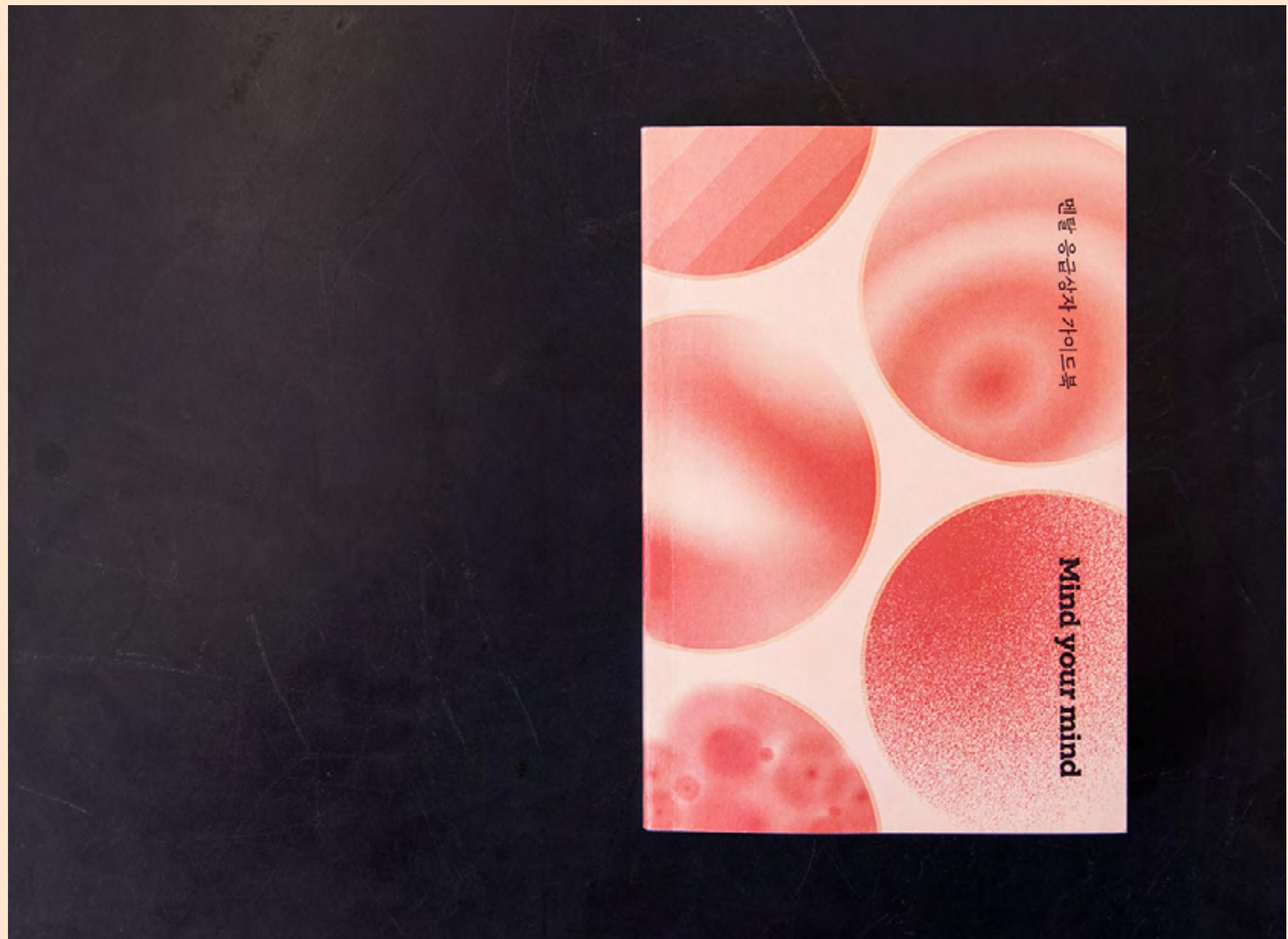
멘탈 응급상자: Mind your mind

다중매체 (오브제 총 4종)

Adobe Illustrator, Adobe Photoshop, Adobe InDesign 사용

2018년 10월





Mind your mind: 가이드북 (책 표지)

105 × 154 mm (100쪽), 종이 위에 레이저 출력
김지윤 집필, 조현의 표지 및 편집디자인
Adobe Illustrator, Adobe InDesign
2018년 10월



Mind your mind: 가이드북 (챕터 표지)

105 × 154 mm (100쪽), 종이 위에 레이저 출력
김지윤 집필, 조현의 표지 및 편집디자인
Adobe Illustrator, Adobe InDesign
2018년 10월

셀프체크 1: 스트레스 알아보기

당신이 스트레스받는 상황에 있을 때, 이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당신이 어떻게 스트레스에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반응하는지 알아보세요.

Q. 여러분은 총 몇 개가 해당되나요?

Q. 그 중에서, 지금까지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이라고 의식하지 못한 것이 있나요?

Q. 체크된 항목들의 특징점이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ex. 통증, 소화기 문제, ...

Q. 신체의 반응과 감정의 반응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많나요?

물과 마음의 반응을 염밀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일상적인 용어로서 '감각'을 물의 반응, '감정'을 마음의 반응으로 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돋기 위해 둘을 구별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물과 마음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어떤 것인가요?

Q. 또, 가장 자주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인가요?

- 심장박동 증가
- 두근거림
- 땀
- 위장장애
- 복통
- 두통
- 숨가쁨
- 피로
- 이뇨작용 활발함
- 입마름
- 차가워지는 손, 발, 피부
- 근육 긴장
- 성욕 감소 또는 증가
- 수면 장애
- 분노
- 술, 약물의 사용
- 초조, 불안
- 차분하지 못함
- 짜증
- 집중 불가
- 동기부족
- 우울
- 가슴통증
- 사회 기피
- 흡연 시작 및 증가
- 생각이 많아짐
-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
- 높은 혈압
- 체중 감소 및 증가
- 피부 트러블 (발진, 여드름)

내 몸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줄이기



전기 콘센트를 끌어놓기만 해도 대기전력이 새어나가듯,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소소한 스트레스에 대응하느라 우리의 에너지도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또 공부나 업무를 하는 동안, 놀고 싶은 마음이나 감정을 억누르는 데에도 조금씩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을 겁니다. 일상에서 조금씩 방전된 컨디션을 회복하고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정신 에너지 채우기

① 나에게 휴가 선사하기

여행이 좋은 이유 중의 하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던 현실의 무게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다시 말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나를 포장하는 데 쓰고 있던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학생, 직장인, 아들딸, 부모 등의 역할타이틀, 책임감은 잠시 내려놓고 그저 '나'로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 휴식의 필요조건일지 모릅니다.

성실한 사람일 경우 휴식도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니 쉴 틈을 못 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 듯합니다. 주말에는 주중에 못 했던 집안일, 보고 싶던 영화 보기 등을 해치우느라 시간이 모자라거나, 휴가 때는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보상이 될 수 있게 열심히 휴가계획을 세워 준비해둔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오겠죠. 집안일이든 휴가든 어떤 것을 하는 동안 몸이 고생하고 있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정신력을 발휘 중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다시 일하는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떤까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전된 부분도 있는 한편, 피곤해진 부분도 있지 않을까 살짝 걱정되는군요. 또는 선다는 것 자체가 부담되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Mind your mind: 가이드북 (스트레스 알아보기)

105 × 154 mm (100쪽), 종이 위에 레이저 출력
김지윤 집필, 조현의 표지 및 편집디자인
Adobe Illustrator, Adobe InDesign
2018년 10월

Mind your mind: 가이드북 (내 몸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줄이기)

105 × 154 mm (100쪽), 종이 위에 레이저 출력
김지윤 집필, 조현의 표지 및 편집디자인
Adobe Illustrator, Adobe InDesign
2018년 10월

긍정적인 기운 불어넣기

힘든 일이 사라져도 곧바로 행복해지지 않듯,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었다고 곧바로 긍정적인 기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자주 느끼는 것은, (객관적으로)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기보다는, 같은 일을 겪어도 (주관적으로) 기분 좋게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같은 일을 겪더라도, 각자 보고 느끼는 바에 자신만의 감정을 능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훈련을 통해, 같은 일상 속에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크고 강한 즐거움을 한 번 느끼는 것보다는, 소소한 기쁨을 자주 느끼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최인철, 2018).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의 성격은 어떤 노력이나 연습을 통해 일구어낸 결과이지, 타고날 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내 삶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고 이를 잘 불들어 두는 심리적인 습관을 갖는 것이 인생을 즐기는 지혜가 되겠지요.

다음에 소개할 내용은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자주 경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평소 생활방식을 유지하면서 시도

할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기존의 스케줄에 좀 더 다채로움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일어든 무작정 긍정적으로만 봐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은 본디 부정적인 정보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치우친 관점을 중립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가져오기 위해 긍정적인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불잡기 연습

여기서 이야기할 내용은, 즐거운 일을 '하는' 법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일상 속에 존재하던 숨은 보석을 '발견하는' 법입니다. 인간에게는 의도에 따라 나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선택적 주의'를 발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뎌져 버린 것들이라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루를 지내며 편안함, 기쁨, 즐거움 등의 좋은 느낌을 (조금이라도) 주는 물건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색의 물건을 바라보거나, 내가 애용하는 물건을 사용하면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해보세요. 매일 마시는 커피의 향과 맛을

072 ~ 073

피로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잠이 필수입니다. 자는 동안에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기억이 새로 저장되고, 여러 필요한 물질이 생성되고, 체력도 회복됩니다. 자는 시간은 그냥 소모하는 시간이 아니라, 알찬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마다 적정한 수면시간이 달라서, 어느 침대 광고에서처럼 잠을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잠이 많은 체질이라고 속상해하거나, 무작정 잠을 줄이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이제는 나에게 맞는 수면 시간을 찾아서 지키고, 대신 그에 맞춰서 깨어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해봅시다.

073

잠을 잘 자기 tip

낮밤 사이클을 유지한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여, 내게 필요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일 뛰어있다가 종일 자는 것보다는, 하루의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클에 적응하면 몸이 시간에 맞춰 호르몬을 내보내서, 잘 시간에 잘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억지로 아침형 인간이 되려 하거나, 징후진 시간에 무조건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떼에 따라 잠이 오지 않는 날은 늦게 잠들어도 되지만, 일어나는 시간은 비슷하게 하여 다음날 다시 사이클을 되찾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074 ~ 075

침대는 잠자리로만 사용한다

불면증 치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침대=잠자리'라는 인식을 둘에 심어두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굳이 침대에서 잠을 정하지 말고 다른 곳에 있다가, 잠이 들 것 같으면 그때 침대에 누워보세요. 또 잠을 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책이나 영화를 보기 위해 침대 공간을 사용하면, 우리 몸은 침대를 잠자리 공간으로 각인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잠이 올 때만 침대에 놓게 되면, 우리 몸은 침대를 잠자리 공간으로 인식하여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Mind your mind: 가이드북 (긍정적인 기운 불어넣기)

105 × 154 mm (100쪽), 종이 위에 레이저 출력
김지윤 집필, 조현의 표지 및 편집디자인
Adobe Illustrator, Adobe InDesign
2018년 10월

Mind your mind: 가이드북 (잠을 잘 자기 tip)

105 × 154 mm (100쪽), 종이 위에 레이저 출력
김지윤 집필, 조현의 표지 및 편집디자인
Adobe Illustrator, Adobe InDesign
2018년 10월

GLE: 기레기 인증시험

GLE: Giregi Licencing Examination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편집 디자인

2015. 03. ~ 05., 09. ~ 12.

출품

201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졸업전시 출품작

제작 참여

조현익 (프로젝트 기획, 취재, 시각화, 전시 설치)

오늘의 짤방 » 2면 두 대표의 먹방 보시겠습니다. '화끈한 식신' 김무성 vs '진중한 미식가' 문재인

중요시사 » 2면 군 급히 출동... 이 물체는 무엇? 연기가 ... 삽으로 땅 파다가 괴물체 발견 '공포'

허세거리 » 4면 주위에 한 명쯤 있죠.#팁 잘난 체하는 이들을 대하는 10가지 방법

gle newsmass

2015. 5. 1. (금) 16:00 발행.

님의 침묵 (성완종 버전)

[문화] 인터넷 유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
크게 웃으시고 카톡방에 널리 퍼뜨려주세요~~^^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회장님은 갔습니다.

뇌물 메모를 남기고 벚꽃나무 숲을 향하여 난 황천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천년만년 나랏돈 빼먹자던 정치인들과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어갔습니다.
날카로운 돈봉투의 추억은 거물들 운명의 지침(指針)을 돌려놓고 뒷
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그 넘들은 향기로운 님의 돈뭉치에 귀먹고 달콤한 님의 뇌물에 눈멀
었습니다.

문틈으로 탈출하는 '미션
임파서블' 멍멍이 (영상자료)
개유연...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즐거워하는 반응 보여

© (사)대학온라인언론협회 GLE위원회

제 2015-016호

gle

Giregi Licencing Examination

제 136 회 기레기인증시험 문제지

수험번호 -----

이 를

세부 원인

[View Details](#) | [Edit](#) | [Delete](#)

“온라인 포털서비스와 SNS에는 오늘도 수많은 “쓰레기같은” 기사가 떠다닙니다. 근거 없이 써진 기사, 온라인의 다른 컨텐츠를 베껴서 단어 몇 개만 바꾼 기사, 여성이나 동물 사진으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기사, 제목은 흥미롭지만 내용은 언제나 뻔한 기사, 기사로서의 내용 없이 횡설수설만 담은 글 등등. 우리는 이런 기사를 생산하는 기자를 “어뷰징 담당자”, 또는 “기레기”(기자+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어뷰징 담당자는 어떻게 기사를 작성할까요? 어뷰징 담당자는 왜 어뷰징 기사를 작성해야 할까요? 언론인을 꿈꾸는 당신이라면, 아무리 싫어도 이것을 반드시 숙지하고 실무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예비 어뷰징 담당자의 실무능력을 인증하고 면허를 발급하는, “GLE: 기레기면허시험”을 제안합니다. 구직자와 온라인 언론사 모두에게 유용한 시험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독자와 사회에는 아주 큰 해악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따위 무슨 상관입니까!”



실기A형·기사작문 영역

실기A형·기사작문 영역에서는, 여러분의 기사 본문작성 실무는 2개의 장으로 나뉘며, 총합 약 22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종료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십시오. 객관식 답안

PART 3. 타인 컨텐츠의 본문 수정

이 장에서는 타 언론사의 기사나 타인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복하지 못하도록 단어나 조사를 바꾸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아래 어를 찾아 두 줄의 삭제선이나 삽입기호를 번호와 함께 표시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본문 위에 삭제선이나 삽입기호를 번호와 함께 표시하십시오.
본문: 사진에 달린 짙은 사무장은 #BXK 두 손을 모은

답안: ① (공백) ② 가지런히 ③ 밝은 표정을 짓고

이 장에서는 총 5개의 문제가 주어집니다. 문제를 푸는데 주어지는

이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GLE: 제 136회 기레기인증시험 문제지

210 × 250 mm (36쪽)

종이 위에 레이저 출력

GLE: 수험표

84 × 190 mm

종이 위에 레이저 출력

GLE: 기레기면허인증 (면허증)

84 × 54 mm (양면)

플라스틱 카드 위에 출력

GLE: 적증 개념 50

105 × 74 mm (55장)

종이 및 OHP필름 위에 레이저 출력

GLE: 성적표

210 × 297 mm

종이 위에 레이저 출력

GLE: 객관식·이론지식영역 답안지

223 × 180 mm

종이 위에 레이저 출력

GLE: newsmass (신문)

323 × 470 mm (8면)

종이 위에 윤전인쇄

GLE: 기레기인증시험

Giregi Licensing Examination

다중매체 (오브제 총 8종)

Adobe InDesign, Adobe Illustrator 사용

2015년 12월

The image displays a collection of GLE (Giregi Licensing Examination) materials, including a newspaper template, examination question papers, identification cards, achievement certificates, and a booklet for excessive concepts. The materials are presented on a wooden sur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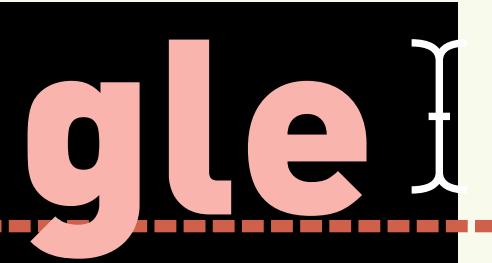
- GLE newsmass (신문):** A newspaper template from May 1, 2015, at 16:00. It includes sections for news, sports, and entertainment, along with a crossword puzzle and a QR code.
- 제 136 회 기레기인증시험 문제지 (Exam Paper):** A document titled '제 136 회 기레기인증시험 문제지' (Question Paper for the 136th GLE Examination). It contains sections for '수험 번호' (Exam Number), '이 률' (Name), '생년 월 일' (Birth Date), '시험 일자' (Exam Date - 2015. 12. 04.), and '일련 번호' (Serial Number - A729BXK).
- 수험표 (Test Identification Card):** A plastic card with a photo of the examinee, name (김 경 기), gender (여), date of birth (1991. 11. 04.), and other identification details.
- 기레기면허인증 (GLE Licensing Examination) Card:** A black card with a photo of the examinee, name (김 경 기), gender (여), date of birth (1991. 11. 04.), and other examination details.
- 적증 개념 50 (Excessive Concepts 50) Booklet:** A booklet titled '적증 개념 50' (Excessive Concepts 50) featuring the 'gle' logo.
- 성적표 (Score Certificate):** A certificate titled 'gle SCORE CERTIFICATE' showing a total score of 857/990, passing scores for various subjects, and detailed performance metrics for each part of the exam.

gle] newsmass

2015. 5. 1. (금) 16:00 발행.

GLE: 아이덴티티 (컬러, 흑백) / GLE: newsmass로의 적용 케이스

Adobe Illustrator 사용
2015년 10월



Giregi Licencing Exami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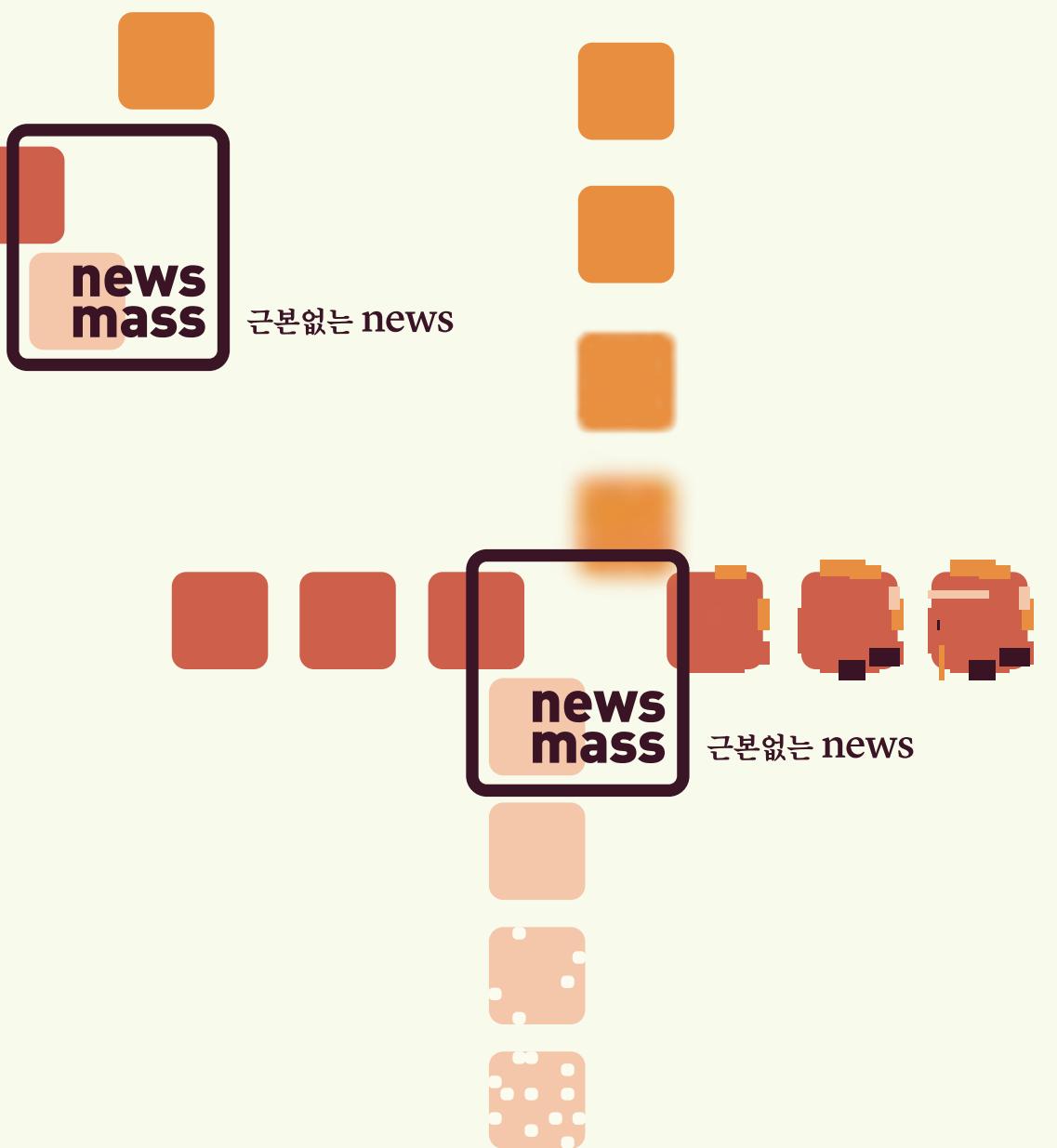


- GLE와 newsmass의 아이덴티티 시각화

프로젝트 기획단계에 제작한 newsmass의 아이덴티티 로고는 어뷰징 기사의 작성원리를 시각화합니다. 내용을 균형 없이 편적으로 모아서 자극적인 내용으로 재구성하며, 사실관계 파악에 소홀하여 본문 내용이나 사진을 흐린 기사를 한데 모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시각화합니다.

GLE의 아이덴티티 로고는 기자들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며 급하게 기사를 작성하는 모습을 추상화합니다. 워드프로세서의 커서, 복사/붙여넣기를 위한 블록설정, 맞춤법 오류를 표시하는 점선 밑줄을 조합합니다.

GLE 및 newsmass의 아이덴티티 색상은 어뷰징 기사에 첨부된 사진들로부터 추출합니다. 약 40개의 자극적인 기사 썸네일 사진을 모자이크하여, 자주 사용되며 시인성이 높은 흥색 계열 색상 4종을 선정했습니다. 로고타입에는 어두운 배경색과 소문자를 이용해도 글자의 시인성이 보장되도록 DIN Alternative를 사용합니다.



newsmass: 아이덴티티 (정적 로고, 애니메이션 로고)

Adobe Illustrator, Adobe After Effect 사용
2015년 5월
애니메이션 영상: <https://youtu.be/hfL3K3d7EnA>



- newsmass 신문 제작

GLE 시험 오브제를 구성하기 전, 먼저 온라인 언론기사를 종이 위의 신문 지면으로 옮겨서 무가지 형태로 발간하는 신문 “뉴스메스newsmass”를 제작합니다. 2015년 5월 1일에 온라인 포털서비스, 각 온라인언론사 웹페이지, 각 언론사의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의 게시물에서 상위에 노출된 기사를 수집합니다. 이를 8면 신문으로 재배열해 인쇄합니다. 2015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언뜻가게’에서, newsmass 런칭 프로모션 컨셉의 개인전시를 진행했습니다.



무근본 저널리즘 無根本 Journalism: 전시 홍보 포스터

420 × 594 mm, 종이 위에 레이저 대형실사출력
Adobe Illustrator 사용
2015년 5월

무근본 저널리즘 無根本 Journalism: 초청장

112 × 136 mm (양면), 종이 위에 레이저출력
Adobe Illustrator 사용
2015년 5월



2015. 5. 1. (금) 16:00 발행.

님의 침묵 (성완종 버전)

[문화] 인터넷 유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는 내용입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나의 회장님은 갔습니다.

님을 예우하고 빛나는 술을 향하여 난 황천길 걸어서 차라
필지도 않습니다.
천년에나 나왔던 벼락타운 경치이념과의 옛 행세는 차디찬 타를이
되어서 확실히 미움을 더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차운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남기로운 든든부의 주인은 거리를 운명의 지침(指標)을 들려놓고 뒷
걸음에서 사라집니다. 그 그림들은 향기로운 님의 든든성에서 귀여고 달콤한 님의 뇌물에 눈멀었습니다.
뇌물을 사랑의 일이라 받아 때에 미리 터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면 같은 아버지처럼, 혹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증거의 자료로나옵니다.

그러나 폭로는 끝없는 뉴스의 원천을 만들고 아는 것과 검찰의 수
사로 빠져나온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펼쳐진 광경입니다.
우리가 범을 때에 터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터칠 때 다시 빠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아마 님은 깊어지는 나는 나를 몰랐습니다.
정치가들은 말도 믿는 민족들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옵니다.
- 작자 미상

이 시가 발표되고 나서 사람들은 이 시와 함께 다음의 한시가 함께
불편하고 한합니다.

贈達孝冕(증자수수관): 갑자기 아버지에게 멋진 면류관 건네겠지
夢來論多(몽나온다관): 꿈도 이뤄졌지만 말도 많았는데
踏海空論意(자해공감의): 세상에 대한 꿈마저는 새우
물으며

最齋封飛(최작봉방): 최악의 고질병(부정부패) 들어막겠노라
기쁨을 토했지

鄉香溢面(향수면): 배우는 향수를 향하여 헌신하고 향수를 향하여
爆燭夜亡(폭죽화하): 폭죽이 만지지도 건드리지
匕打煞白理(비타오백리): 비수 같은 양한이 하얀 구무총리
부어내어
完步勿奈(완구보내): 완연한 시선으로 겁나거나 어찌할

때마다

나무 유인한 명명이의 영화같은 탈출 영상이 누리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 11일 유튜브에는 아담한 강아지 빠져나온 것은 다름아닌 애기 강아지 듯 뒤통수를 걸어놓는 강아지의 귀 지만 마리가 몸 틈사이로 '쏙' 빠져 지었다. 경찰대에 좋은 몸 틈비집 어운 모임을 자아냈다.

동영상 캡처 2면에 계속.

신년운세/사주/궁합/타로/운세 전화상담
희망찬 2015 익미년을 맞이하세요
사주천궁 600.000.000

비서 합격 시대에도
2015년 비서 학력 1위 인간, 워드컵...

'일본여자의 복수' 바람 판 남친 애플 제품
욕조에 빠뜨려

바람을 피운 남자친구에게 달콤한

남자친구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

(3) 방법으로 복수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네이버를 사이에서 회자되

되고 되었습니다.

23일(현지시간) SNS에서는 트위터

이용하고 트위터는 '바람과 바람을 피우는' 트위터를 표시했습니다.

동양최대규모의 위터파크와 카지노, 스키장이 있는 곳

리XX정선호텔

10년 임대차계약서 발행 일 110만원 수익

실태자액 6,000만원대

수지 런던 '루이비통' 가격이... "충격"

로또 1등 당첨자 '자동 안되는 이유 있다'

눈&코성형은 XXX성형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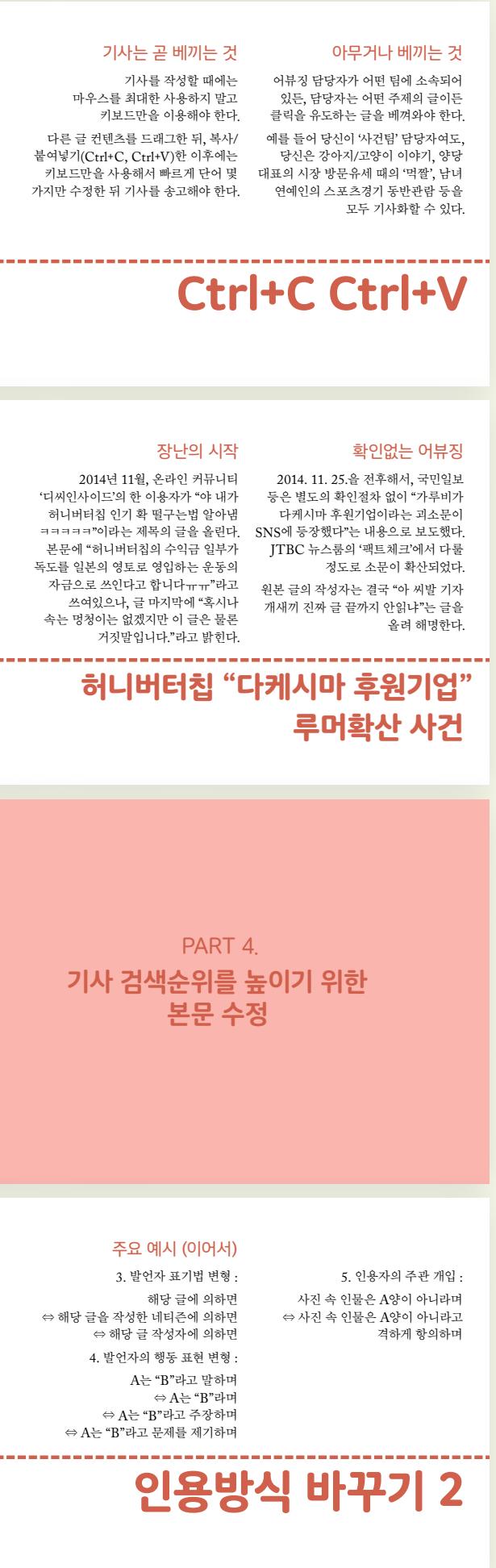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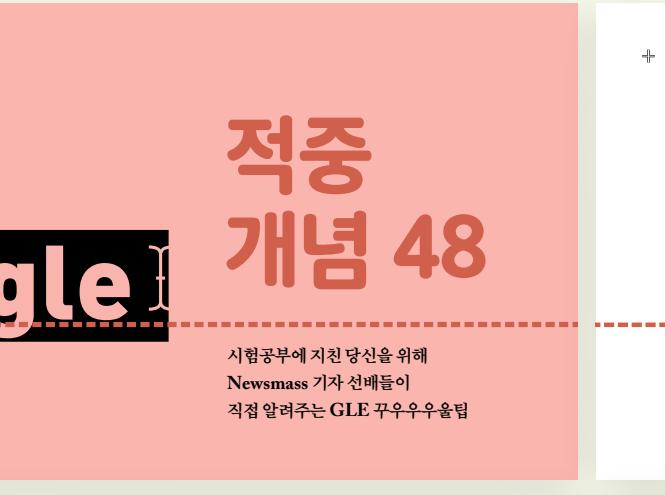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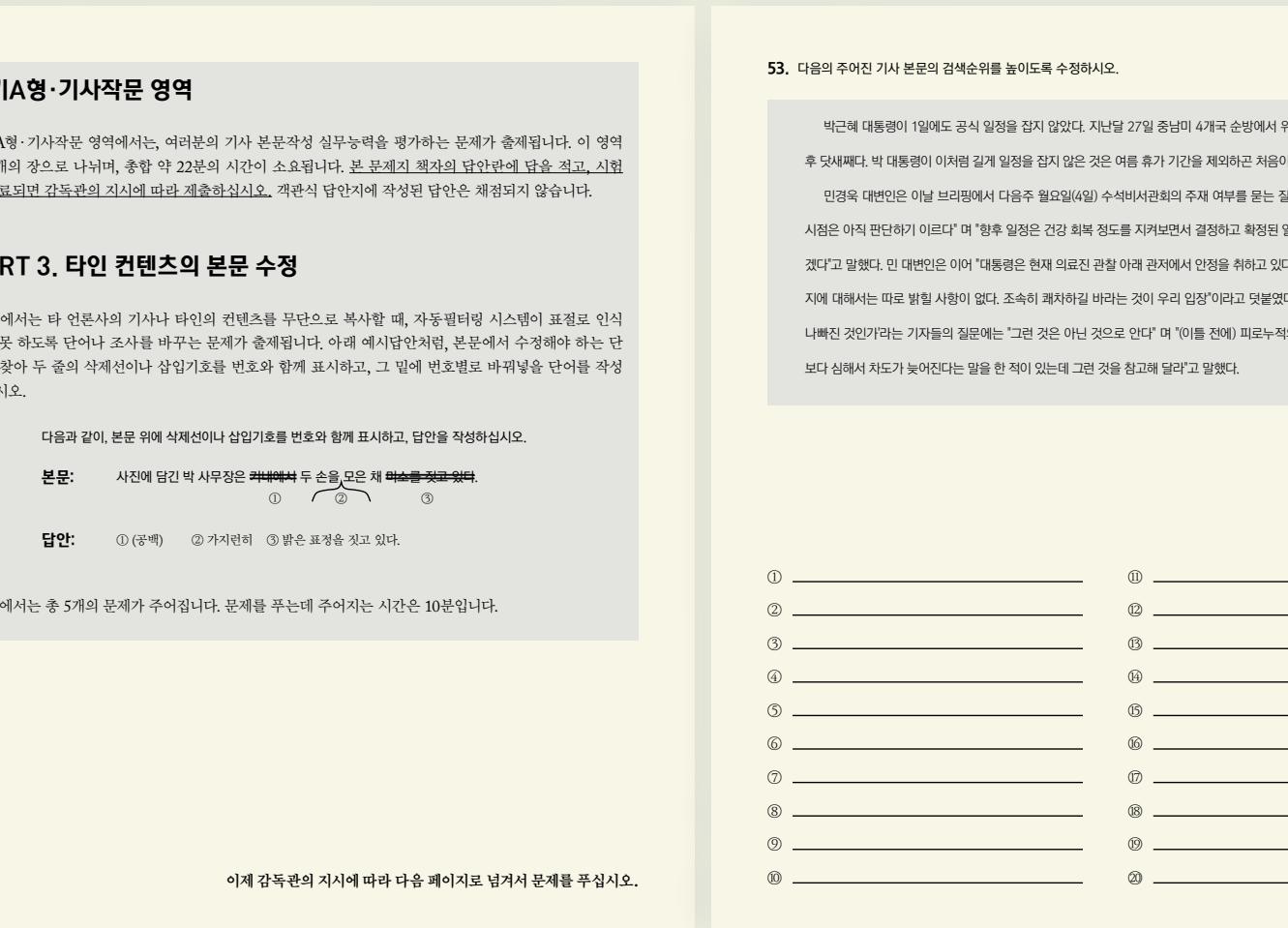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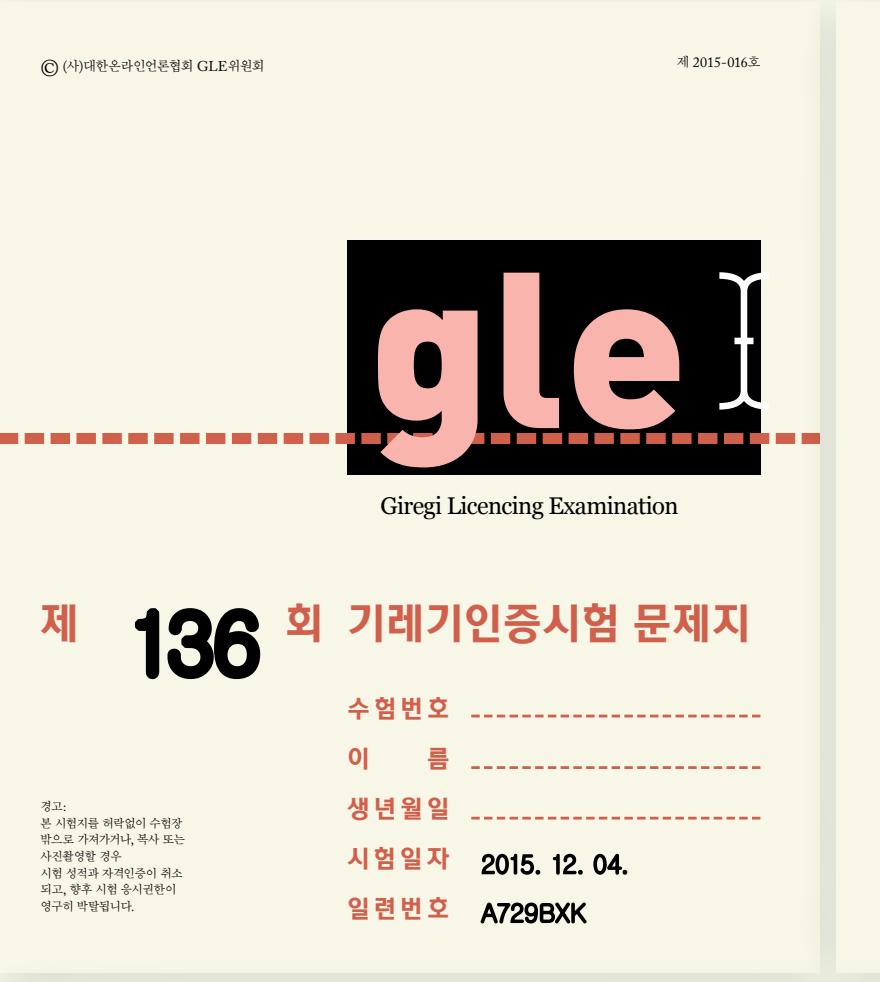
돌보기 안경 절대쓰지마세요, 연구결과가?

기반한 복수 방법을 생각해냈다.

나고 있다.

- 시험지 / “깜지” (상용 개념정리 노트) 제작

GLE의 가장 중요한 오브제는 내용전달 역할을 맡는 시험지와, 소위 “깜지”라고 불리우는 “상용 개념정리 노트”입니다. 취재를 통해 조사한 어뷰징 언론 업계 구조, 어뷰징 기사 유형 및 특징, 기사문 작성법, 대중적으로 알려진 실사례 등을 정리합니다. 이를 65문항의 객관식/서술형 문제, 48종의 개념정리 노트로 정리합니다.



Liberact 연극 홍보 포스터

「대학살의 신」,
「남편을 죽이는 서른가지 방법」

공연 아이덴티티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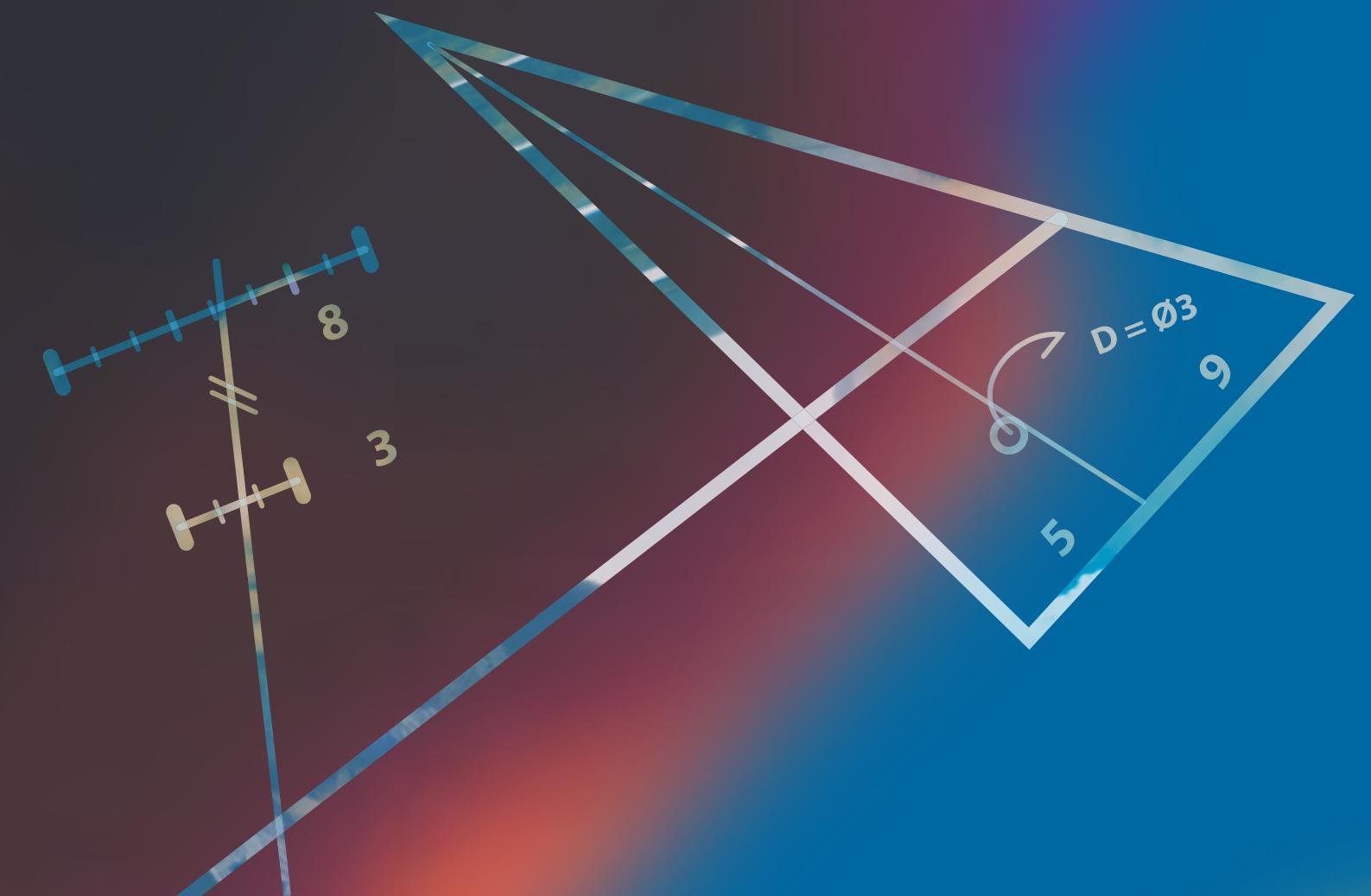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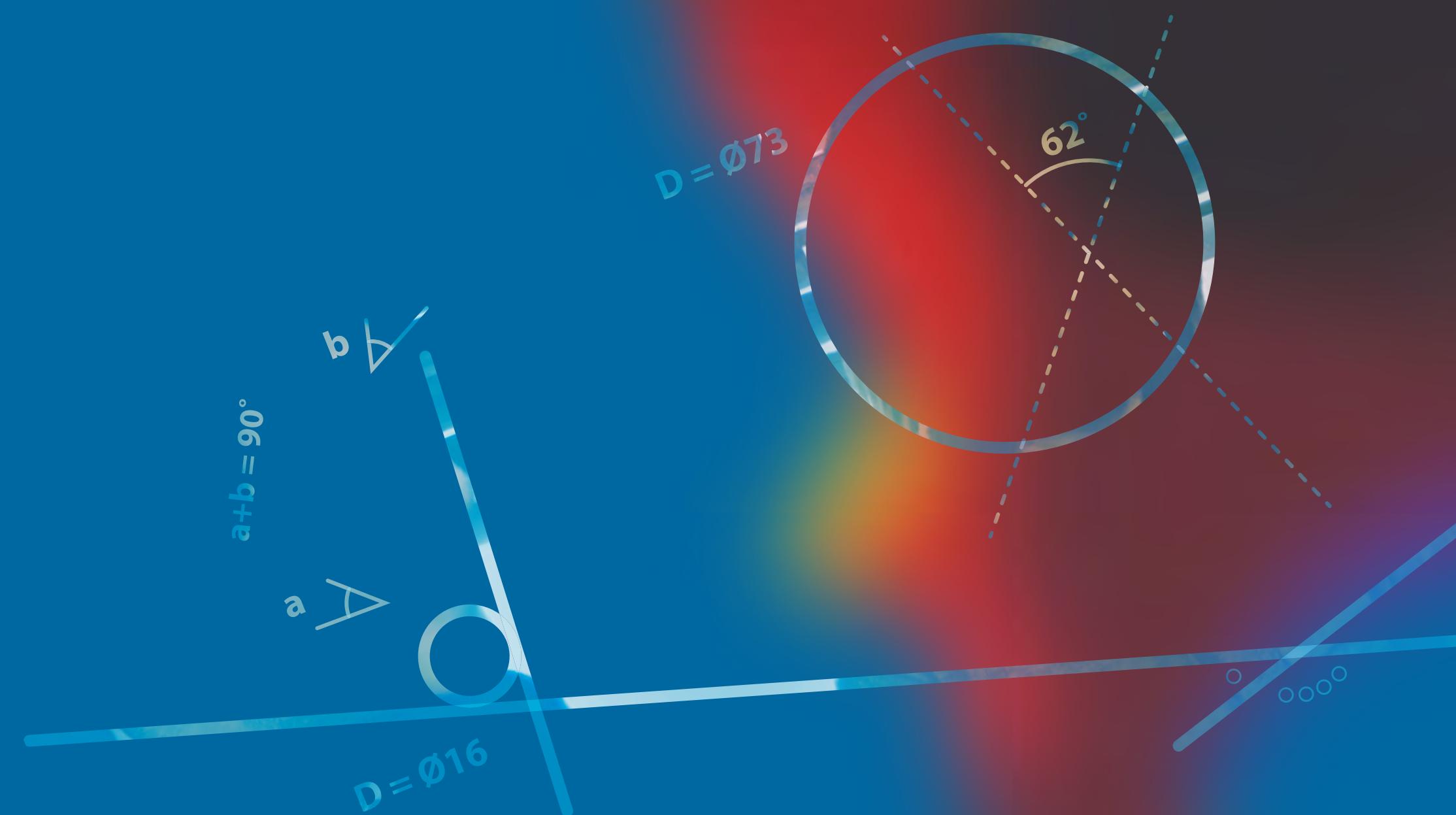
2015. 02. 「대학살의 신」 / 2017. 03. 「남편을 죽이는 서른가지 방법」

클라이언트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연극부 Liberact

제작 참여

조현익 (디자인 컨셉 기획, 사진촬영, 시각화)



대학살의 신

2015년 3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연극부
리버액트Liberact는 “대학살의 신God of Carnage”
연극을 올립니다. “대학살의 신”에서, 등장인물인 두
쌍의 부부는 싸우고 돌아온 자녀들의 체면치레를
하려고 서로 치졸하게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배우가 인위적으로 웃는 표정과,
이를 ‘기하학적으로’ 분석한 오브제를 강조하여,
등장인물의 가식적인 모습을 살리려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하학적 오브제를 아이덴티티로
사용하여, 공연 홍보용 포스터와 팜플렛, 그리고
신입 멤버 모집공고를 디자인하였습니다.

대학살의 신: 2015 리버액트 봄 정기공연
(포스터)

594×420 mm, 종이 위에 옵셋 인쇄
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연극부
LIBERACT 2015 봄 정기공연



2015. 3. 10. ~ 11. 16:00 / 19:00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





Liberact와 함께 할 신입 멤버를 모집합니다.

대 학 살의 신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연극부 LIBERACT
2015 봄 정기공연

2015. 3. 10. ~ 11. 16:00 / 19:00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

연락처:
010.5736.4464
(동창 이진형)
facebook.com/LiberactCLS
(동창 페이스북)

자원서 마감: 2015. 3. 16.(월) 18:00
동아리방(서울대학교 220동 3층 328호)
앞에 놓인 지원서를 작성하여,
같은 곳 제출함에 제출한 뒤,
010.5736.4464에게
문자메세지로 알려주세요.

면접 시작: 2015. 3. 16.(월) 19:00
서울대학교 220동 3층
자유전공학부 동아리방(328호)
이 시간에 참석 불가한 경우에도
010.5736.4464로 연락주세요.

Liberact에서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학기 중에는 주 1회 정기모임을 통해 연극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는 연 1-2회의 “비공개 세미나 공연”이 포함됩니다. 배우와 스태프의 역할을 연습하는 가운데 소규모 공연입니다.

방학(학기 초)에는 정기공연 또는 세미공연 연습 및 준비작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배우, 기획, 스태프(무대소품/음향/조명/의상/분장 등)이 될 수 있고, 또는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체 연극관람이나 모임 후의 뒤풀이, MTD도 틈틈이 있습니다. 아, Liberact에서는 술을 잘 마시든 못 마시든, 알아서 자기가 즐기며 마실 만큼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소속 단과대학이나 학번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도 자유전공학부 소속이 아닌 공연진 2명이 있고, 학번으로는 09, 12, 13, 14학번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다만, 적어도 2개 학기는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나는 끼가 없어서 배우같은 건 못 하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쌓은 경험의 얼마나 많은데, 설마 그 정도를 여러분에게 못 가르쳐주겠습니까!

Liberact

2012. 11. 시라노: 연애조작단
제1회 정기공연 연출 김유민 부연출 나윤희 원작가 김현석(영화)

2013. 3. 서툰 사람들
제2회 정기공연 연출 최영은 부연출 김유민 원작가 장진

9. Ten Angry Men
제3회 정기공연 연출 조현익 부연출 신재영 나윤희 원작가 Reginald Rose

2014. 3. 도덕적 도둑
제4회 정기공연 연출 강현우 부연출 노재영 윤재성 원작가 Dario Fo

9. 김종욱 찾기
제5회 정기공연 연출 노금도 부연출 강형복 손소원 원작가 장유경

2015. 3. 대학살의 신 (Le Dieu du carnage)
제6회 정기공연 연출 노현선 원작가 Yasmina Reza

어느 날, 11살의 두 남자아이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한 아이의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사고가 난다. 아이들 싸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 거실에 모인 두 쌍의 부부. 아름다운 거실에서 벌어지는 우아한 부부들의… 최악의 하루!

대학살의 신
Le Dieu du Carnage ("God of Carnage")

프랑스 극작가 야스민나 레자Yasmina Reza가 쓴 연극입니다. 2006년 프랑스에서 초연되어, 2009년 로렌스 올리비에 최우수 코미디연극상, 2009년 토니 최우수 연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로만 폴란스키Roman Polanski 감독, 조니 포스터, 케이트 윌슬렛 주연의 영화 <Carnage>로 리메이크되었으며, 야스민나 레자는 여기에도 각각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에는 2012년 <대학살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하였습니다.

연출이 말합니다. 자진 14 노현선.

2013년 봄, <도덕적 도둑> 공연을 보면서 ‘이 곳에서는 연극을 재밌게 할 수 있겠구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리버액트의 신입생이 되었고 저번 가을 공연에서 배우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에서 무대의 중심에 서다보니 문득 공연을 이끄는 연출이라는 자리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욕심만 앞선 채로 연출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달간, 연출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았고 혹여 하나님도 놓치면 동아리 전체에 누를 끼칠까봐 부담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 때마다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신 선배님들이 있었고 스스로 공연을 직접 만들어간다는 뿐만 아니라 기쁘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달간 동고동락하며 노력에 고민을 더한 공연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대의 막이 내려가고, 조명이 깨지고, 관객들이 떠나도 두 달간의 열정이 모든 공연진의 주역으로 깊게 남길 바랄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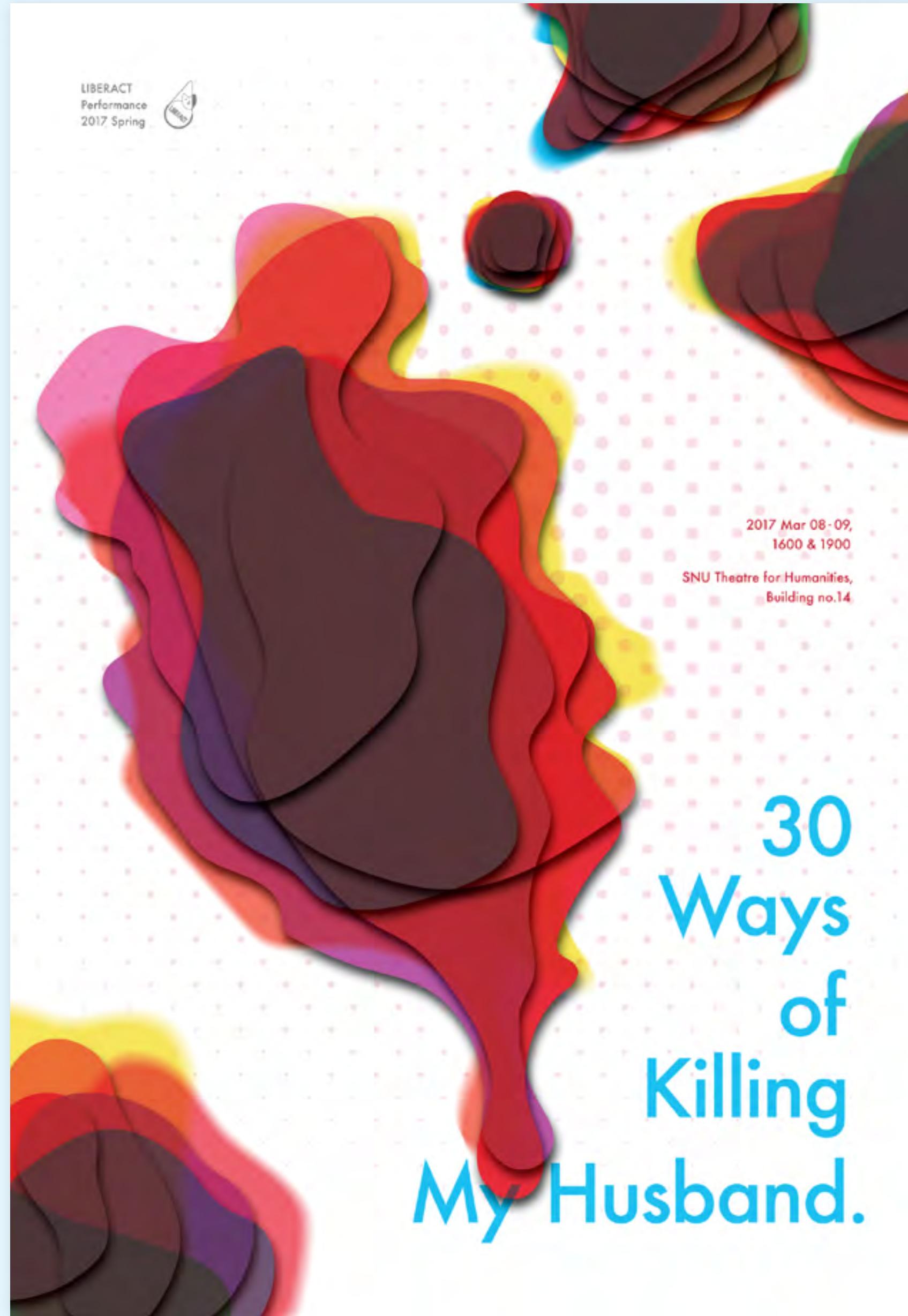
리버액트 Liberact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연극부로, 2012년 9월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3월/9월의 정기공연과 2월의 자유전공학부 세미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지도교수는 자유전공학부 양일모 교수입니다.

동장이 말합니다. 자진 14 이진형.

이번 겨울 방학도 어느덧 지나가고, 3월 정기공연이 이제는 2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공연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리버액트의 역사가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연극은 공연된 후에는 우리의 기억에서만 존재합니다. 이 공연의 끝난 후, 공연진과 관객들 모두 이번 연극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간직한 채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살의 신> 공연진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관객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공연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장희나 조명
정진엽 음향
서민주 무대/소품
이우일 의상
조현익 기획
노현선 연출
조현의 기획
손소원 기획
장희나 조명
정진엽 음향
서민주 무대/소품
이우일 의상
장아영 미술감독



남편을 죽이는 서른가지 방법:
2017 봄 리버액트 정기공연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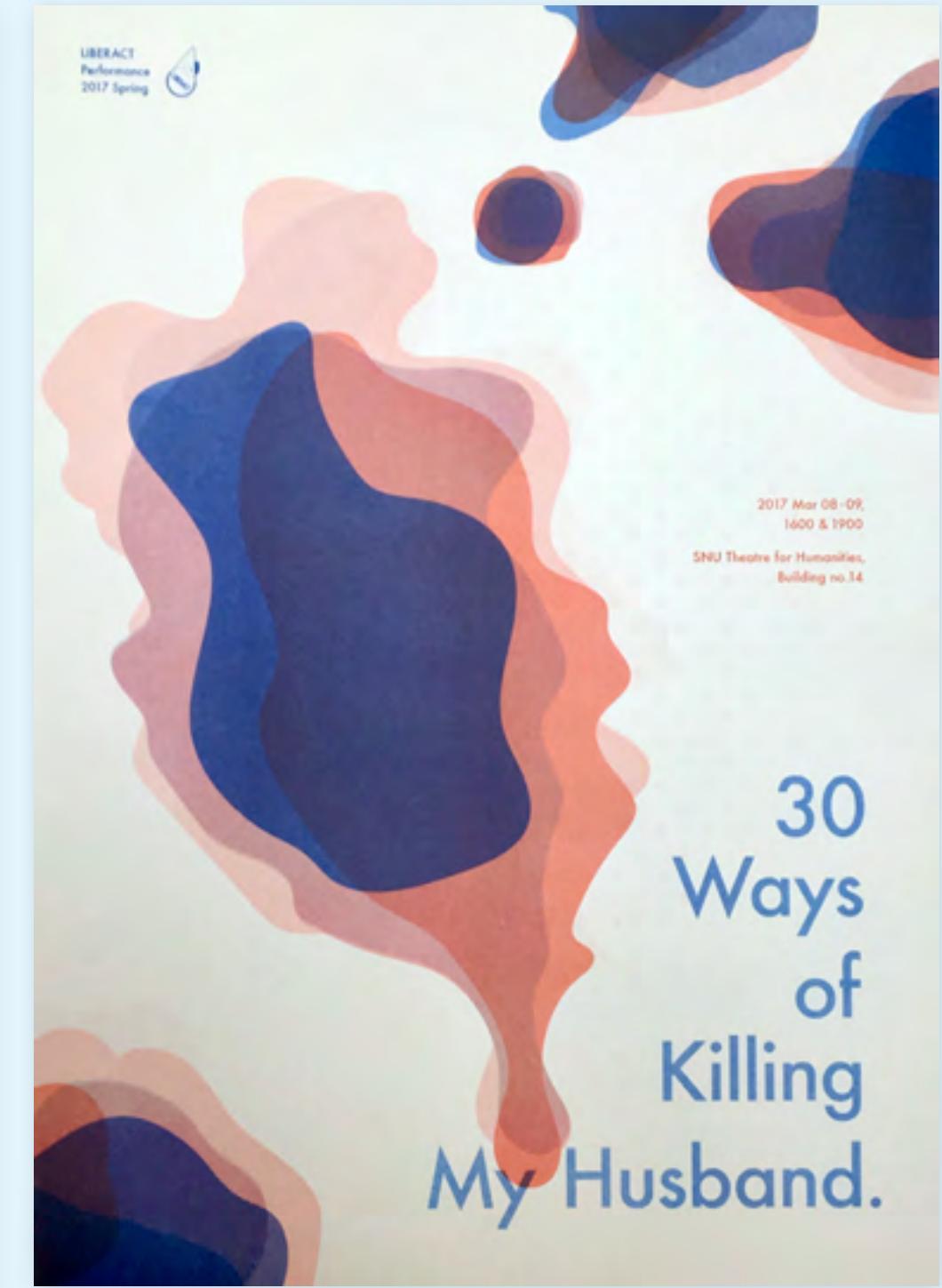
594 × 840 mm, 종이 위에 옵셋 인쇄
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
2017년 3월

30 Ways of Killing My Husband
(2도 리소그래피 리메이크)

297 × 420 mm, 종이 위에 리소그래피 인쇄
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
2017년 11월

30 Ways of Killing My Husband
(영문 포스터 리메이크)

594 × 840 mm, 종이 위에 옵셋 인쇄
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
2017년 8월



2017년 3월, 리버액트는 “남편을 죽이는 서른가지 방법” 연극을 올립니다.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정신학대를 행사한 남편이 살해당하자, 아내는 스스로 남편을 살해했다는 환상에 빠져 범행을 자백합니다. 극에서는 아내가 학대당한 상황을 조명하고, 실제 범인과 범행수법을 밝히려는 형사의 활동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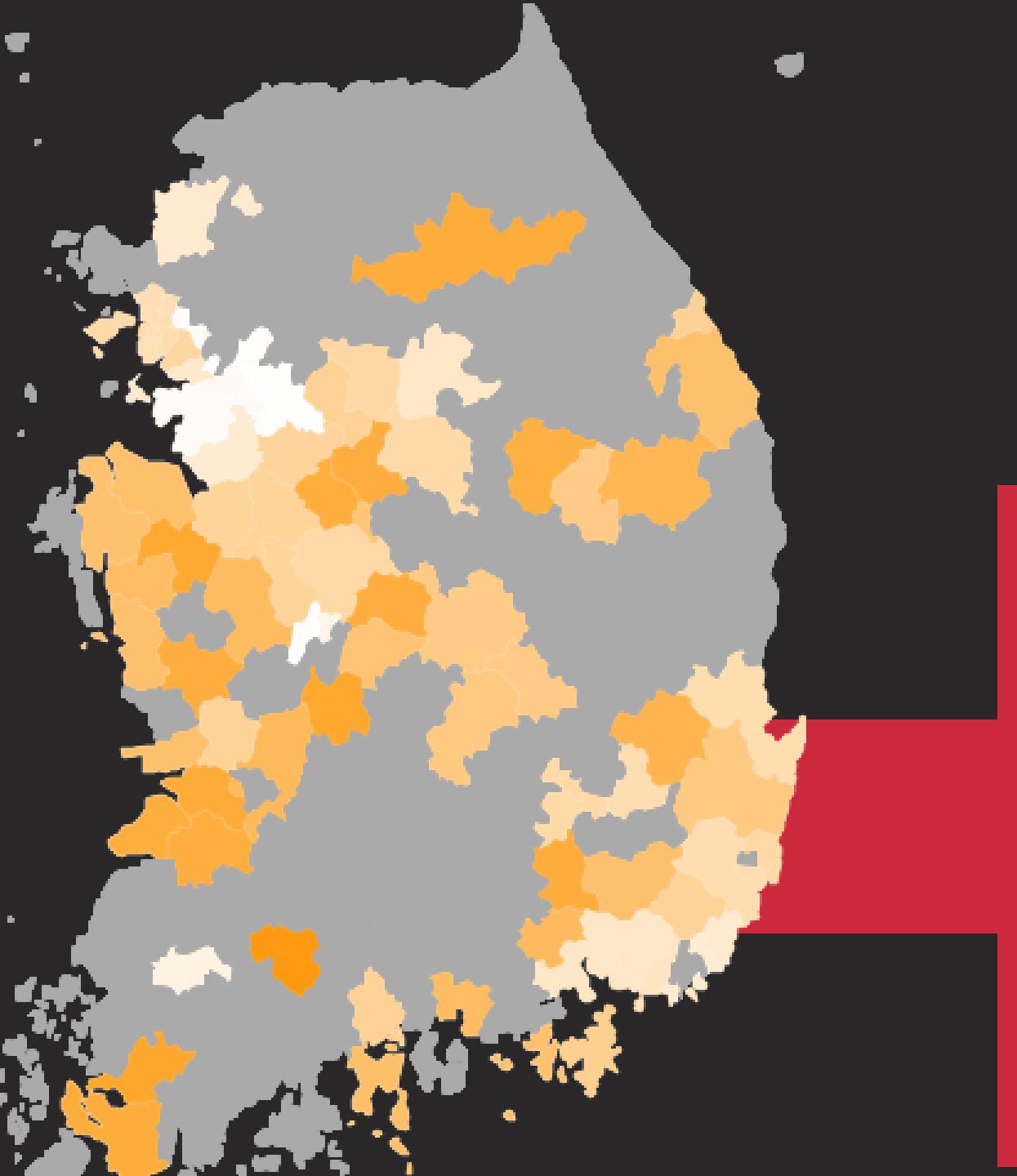
이 극은 추리 스릴러라는 장르 속성, 그리고 공연 당시 한국사회에서 한창 달아오르던 여성혐오 문제를 조명하는 주제 속성을 갖췄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속성을 내재한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개인의 (성)정체성을 내포한 무지개빛 색상을 검붉은 톤으로 번지게 하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섞여있던 색상들이 물리적 충격을 받아 터진 꿗자국 속에서 제각기 번져나가는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2) 저널리즘/프로파간다 작업

이 장에는 저널리즘, 또는 특정한 주장을 전파하기 위한 프로파간다에 해당하는 디자인 작업을 모았습니다. 주제를 ‘독자’에게 효과적이고 매력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 시각적으로 구현한 작업입니다. 웹 작업부터 전시 설치까지, 매체 제한에 속박되지 않고 독자의 집중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런 안목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프로모션 진행을 위한 디자인 작업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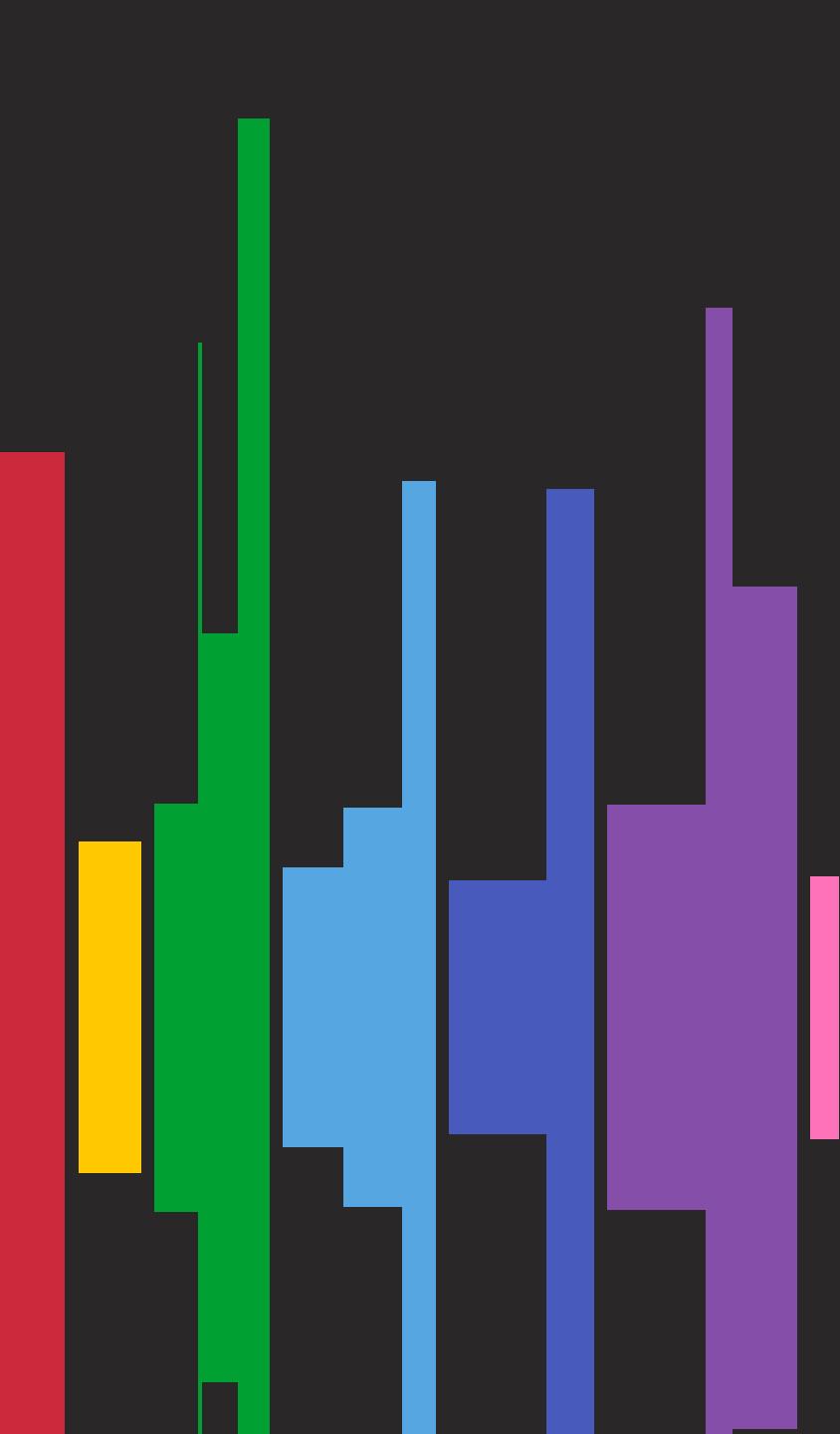
p. 29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p. 35

평등하게 1/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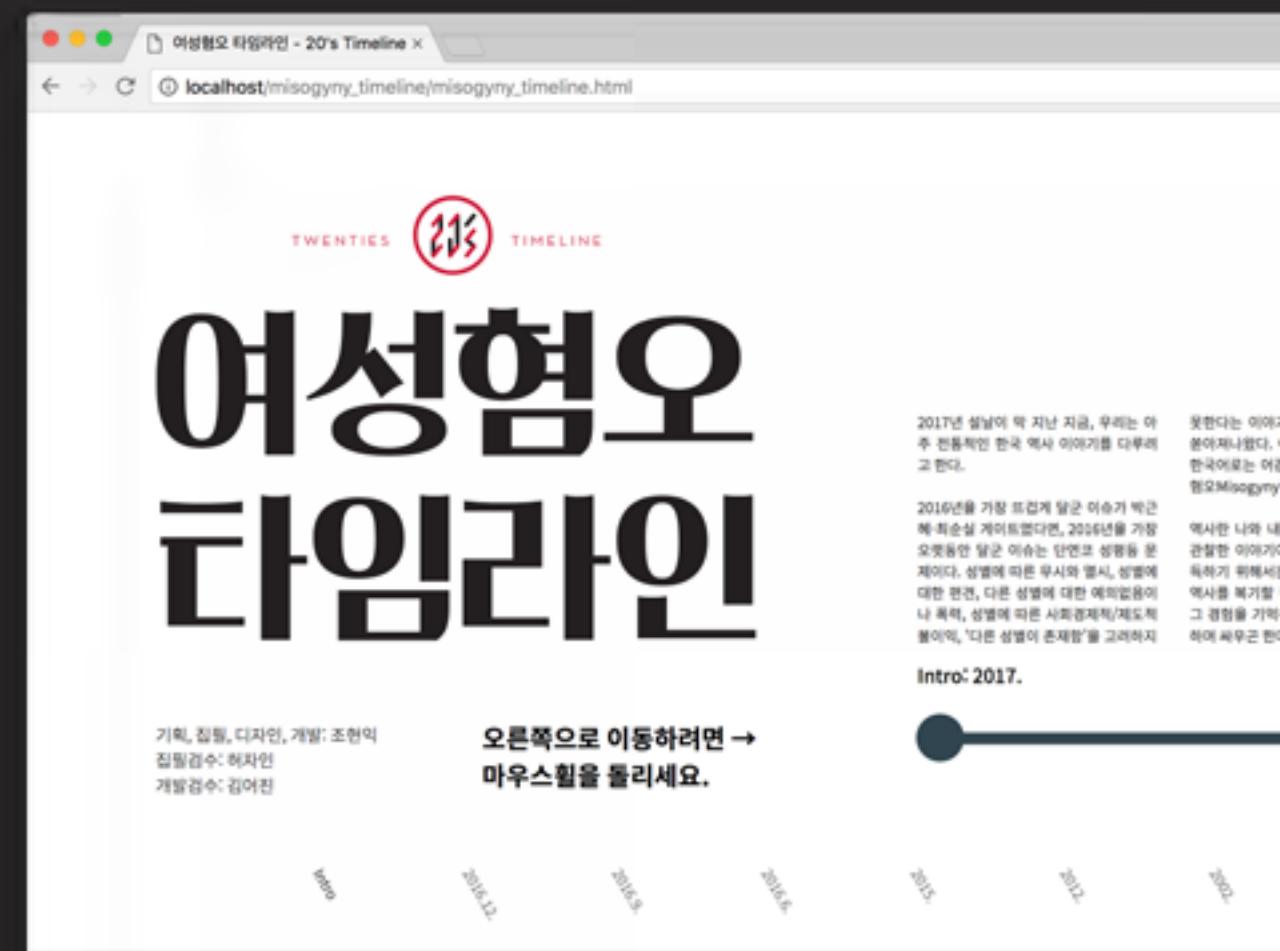
p. 39

유니세프 후원검증 작업물



p. 44

여성혐오 타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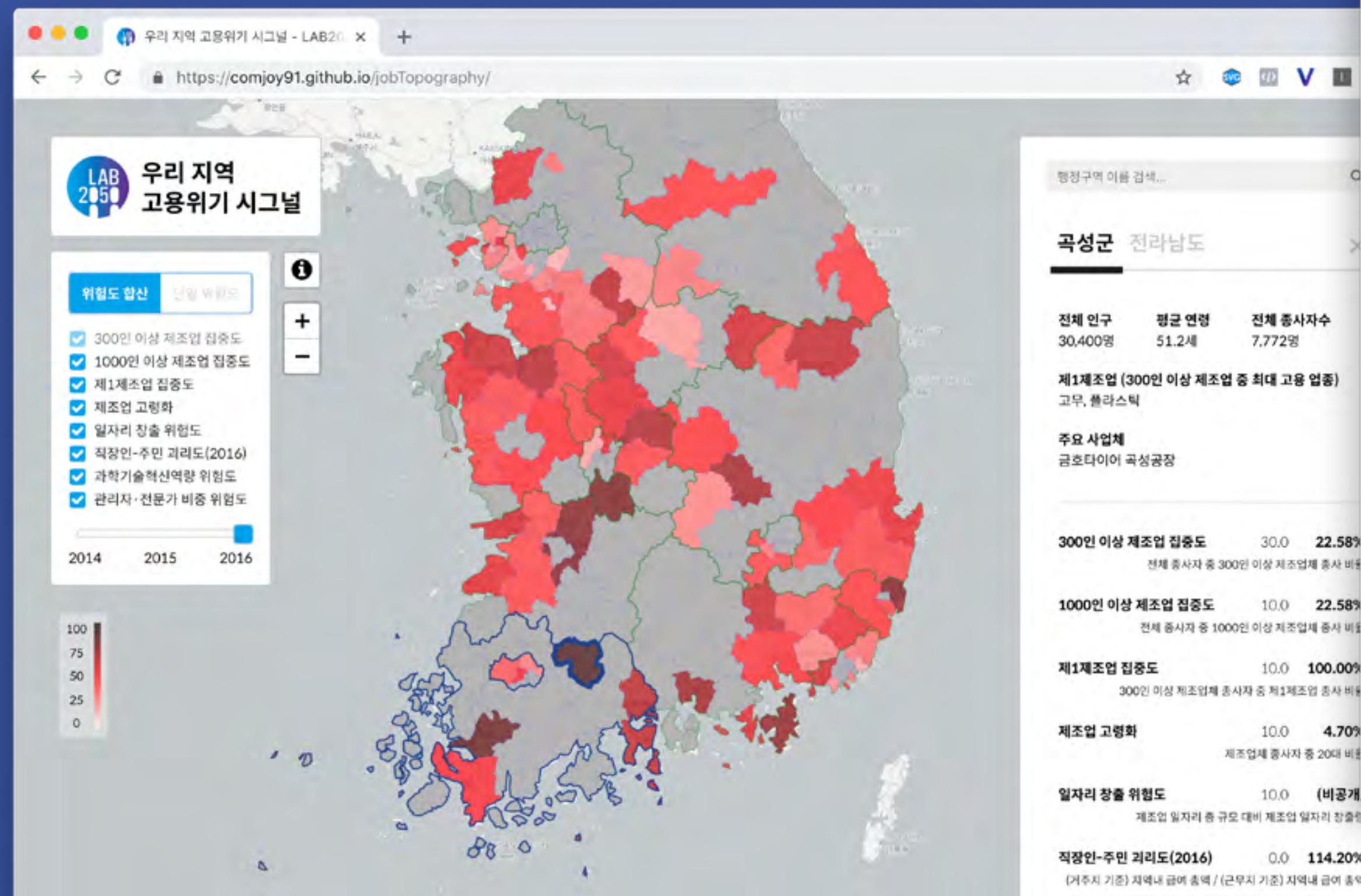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https://lab2050.org/workmap> (인터랙티브 지도 페이지)

<https://comjoy91.github.io/workmap-journalism/> (기사형 스토리텔링 페이지)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 저널리즘 웹페이지

2018. 09. ~ 12.



클라이언트

LAB2050 (민간 독립 정책연구소)

<https://www.lab2050.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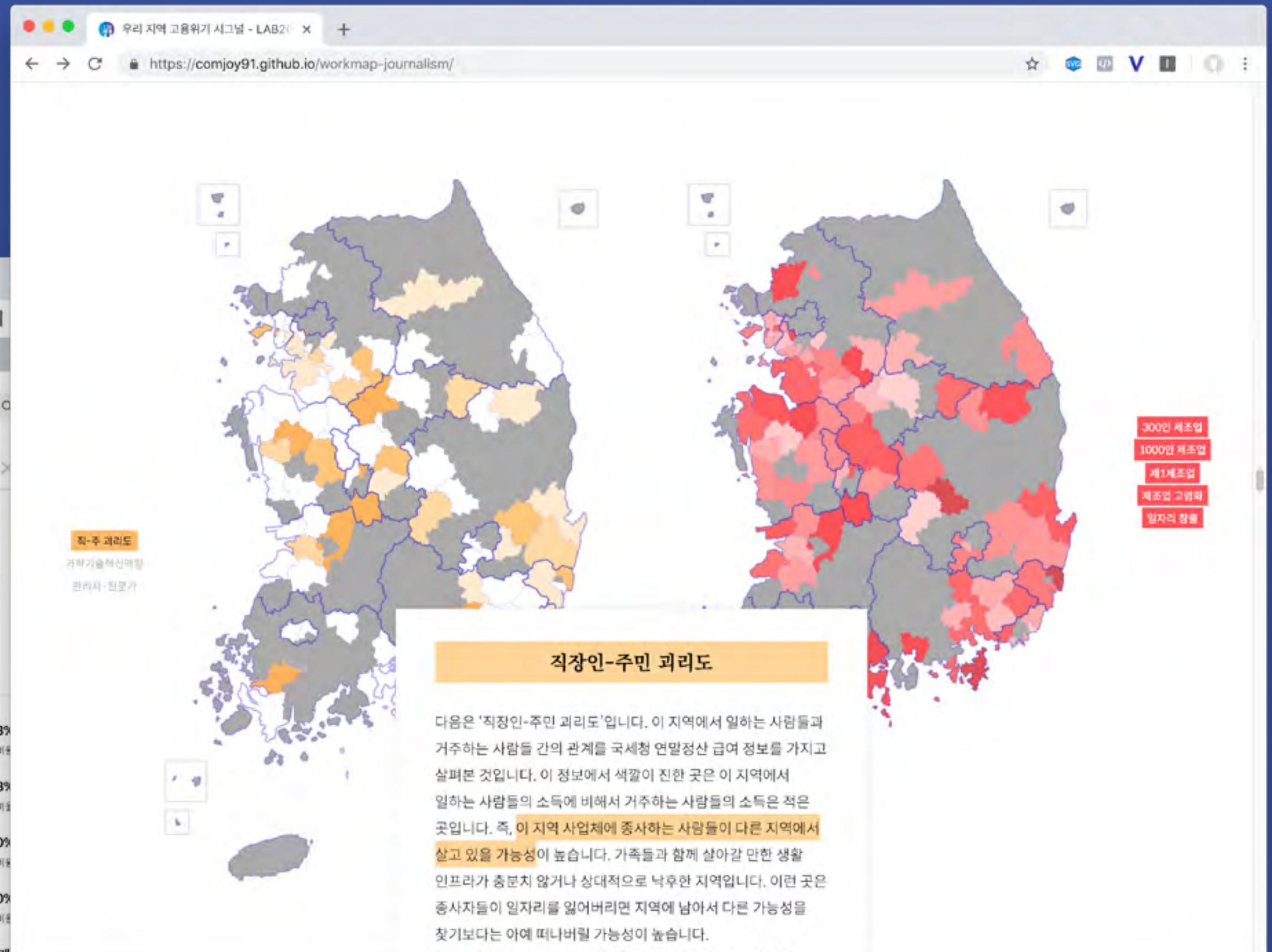
제작 참여

황세원 (연구 총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원고 작성)

고동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이상 LAB2050 연구원)

서재교 (연구 자문,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조현익 (인포그래픽 및 UI 기획, 디자인 시각화, 개발)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은 특정 지역의 대형 제조업 공장이 폐쇄될 시, 해당 지역에 미칠 고용위기의 정도를 시각화한 작업입니다.

이 연구는 2014~16년에 조사된 한국의 224개 자치구/시/군의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역의 특정 기업/산업에 대한 의존도, 제조업 노동자의 연령 및 전문성, 제조업 노동자의 지역내 거주비율 등을 근거로, 잠재된 고용위기의 심각성을 지역마다 색상으로 표현하고 데이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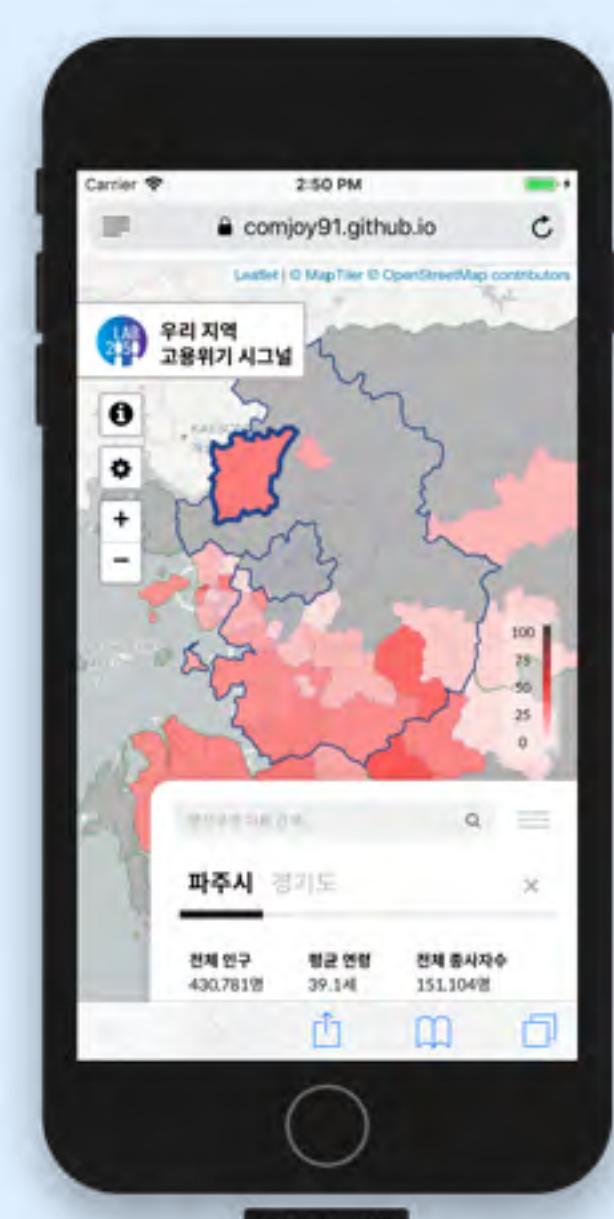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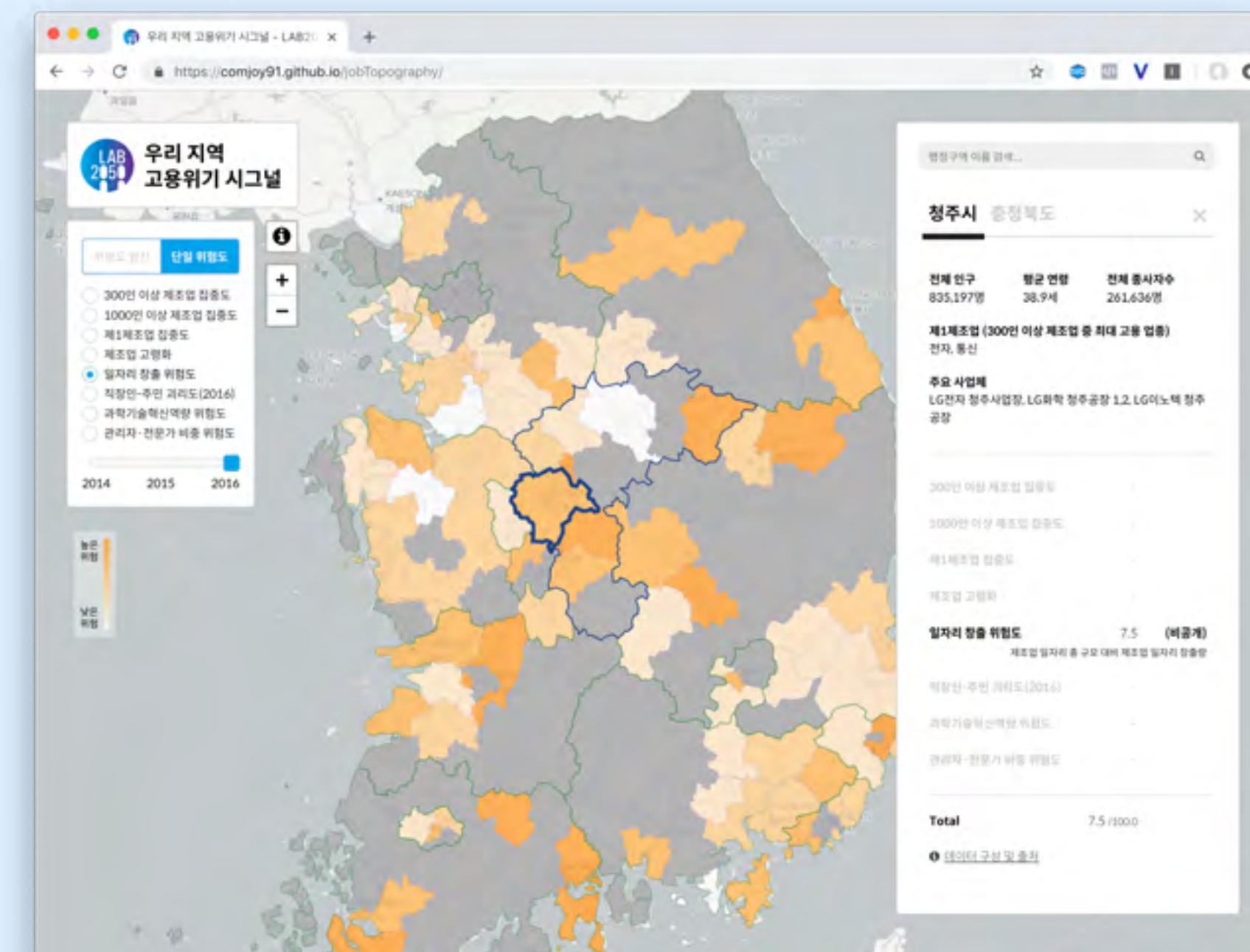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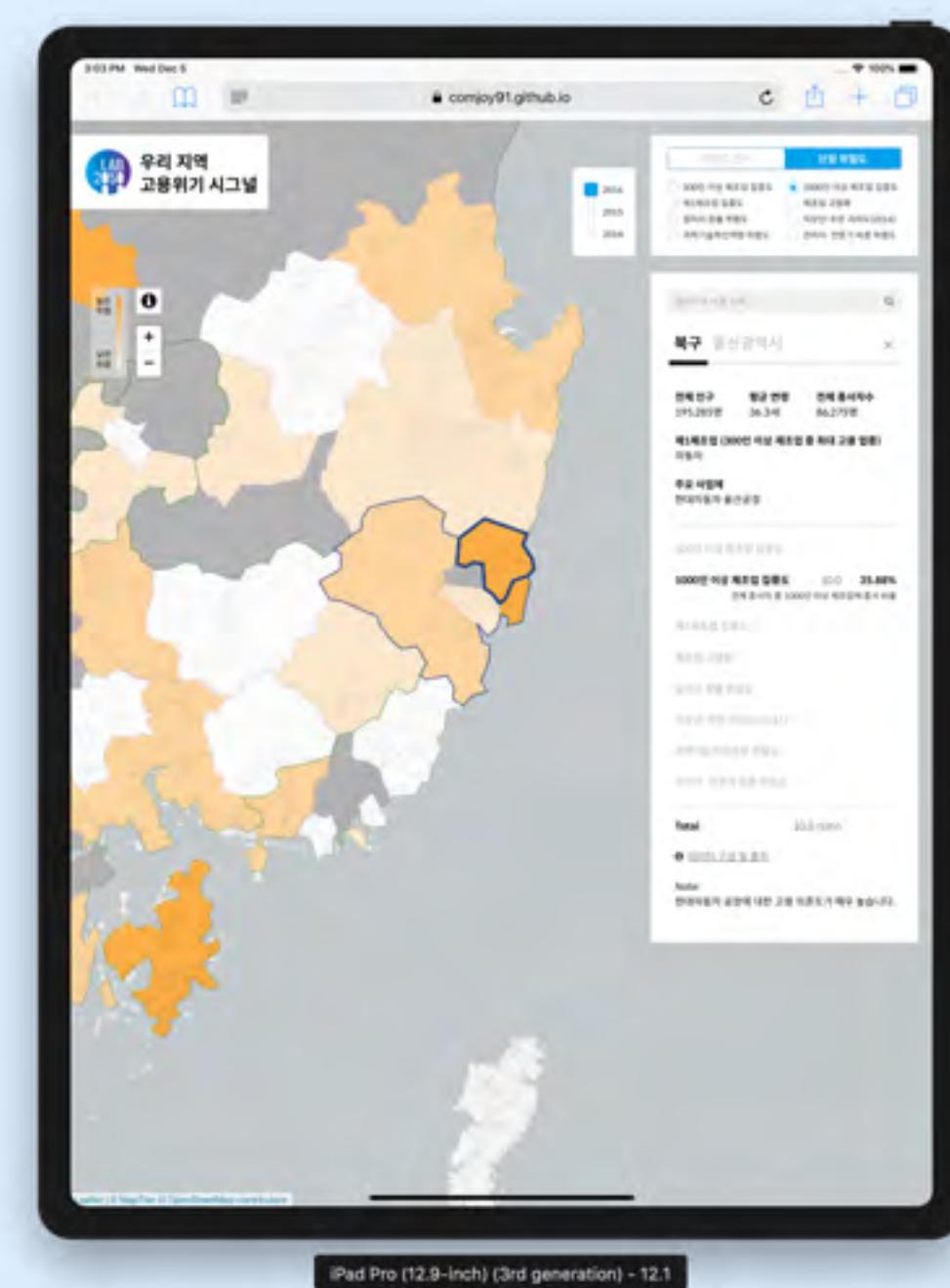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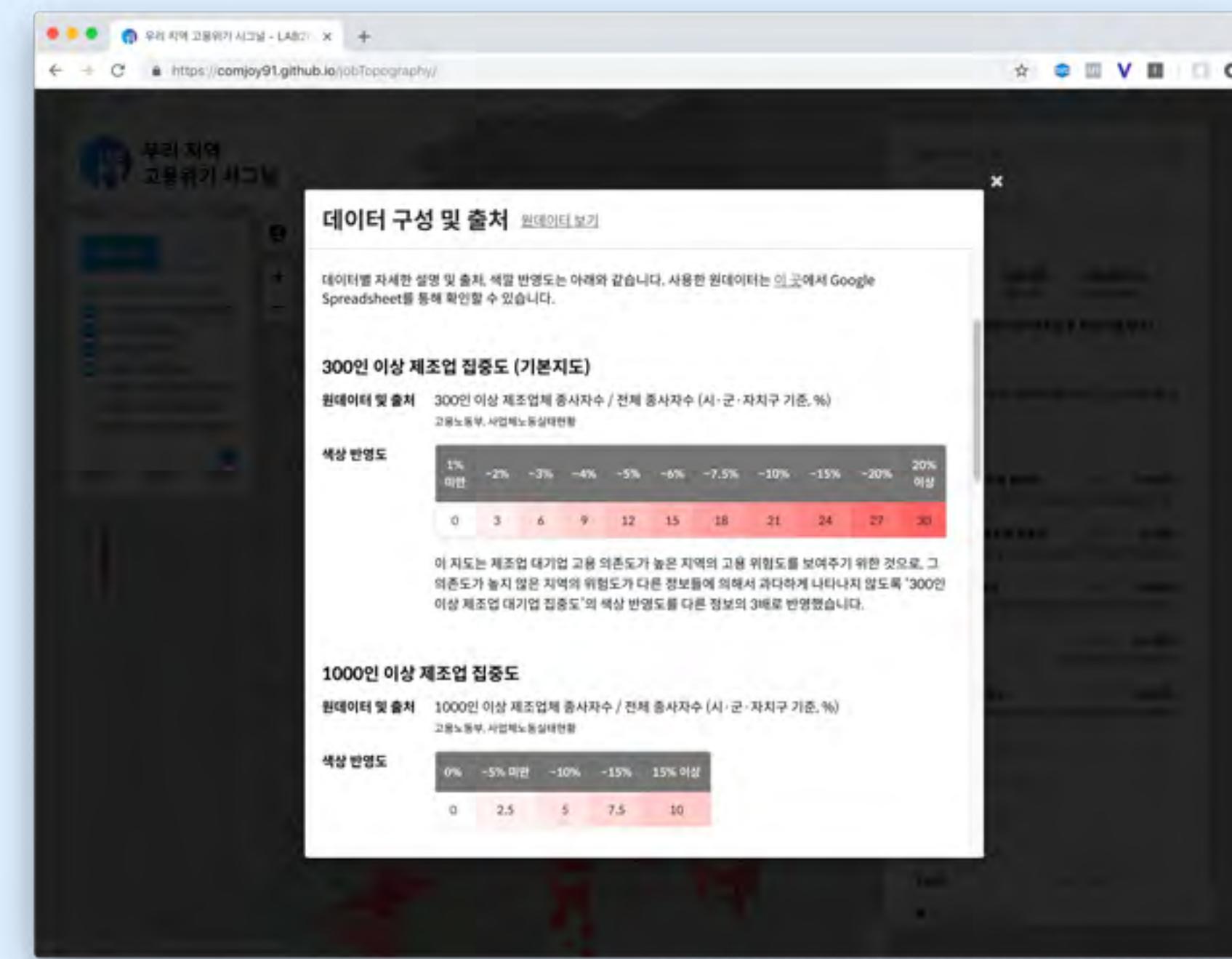
- 디자인의 목표

이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특정 대기업/산업이 발달해 고용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던 지표의 의미를 뒤집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 대기업/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위기상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주제의식을 사용자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작업은 단순한 데이터 기반 인포그래픽을 넘어서, 연구주제를 스토리로 전달하는 사용자 경험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인터랙티브 지도 웹페이지)

반응형 웹페이지
HTML5, CSS, Javascript, JQuery 사용. Leaflet.js 라이브러리 사용.
2018년 11월

<https://lab2050.org/work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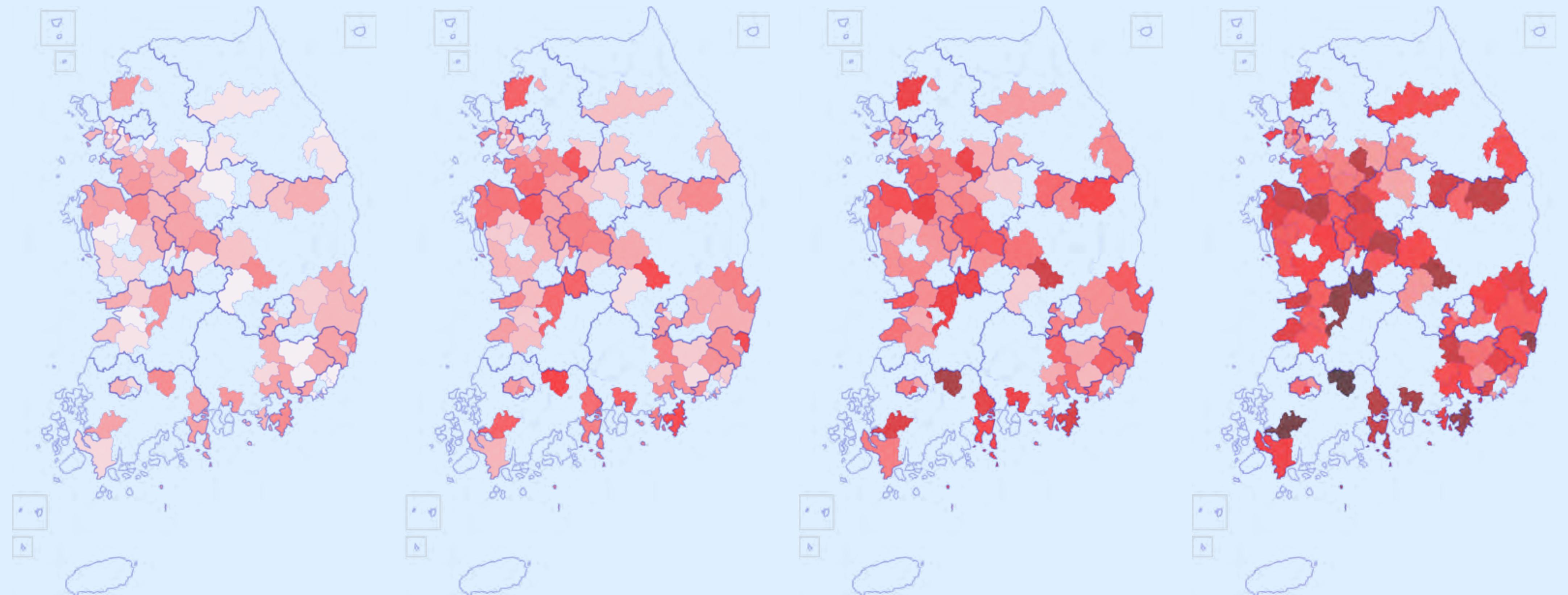
- 지도 페이지에서의 사용자 경험 설정

이를 위해, 이 웹페이지에서는 연구를 통해 추출한 8가지 지표를 색상으로 표현한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높은 위험도는 진한 색상으로 표현되었고, 사용자는 8가지 지도 중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겹쳐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각 레이어의 의미를 직접 파악하고, 이 모든 요소가 고용위기의 징후라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여러 레이어를 직접 겹치면서, 특정 지역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를 확인하고, 다른 지역과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위기의식을 작성시켜, 연구내용과 주제의식이 대중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합니다.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위험도가 점층적으로 겹쳐진 지도)

754 × 1222 px (총 8종), 디지털 전자화면매체
HTML5, CSS, Javascript, JQuery 사용. Leaflet.js 라이브러리 사용.
2018년 11월

- (1): 300인 이상 제조업 집중도
- (2): (1) + 1000인 이상 제조업 집중도, 제1제조업 집중도
- (3): (2) + 제조업 고령화, 일자리 창출도
- (4): (3) + 직장인-주민 괴리도, 과학기술혁신역량 위험도, 관리자/전문가 비중 위험도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위험도 합산 **단일 위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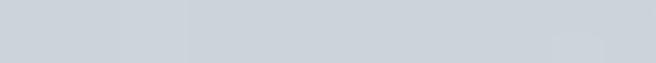
300인 이상 제조업 집중도
 1000인 이상 제조업 집중도
 제1제조업 집중도
 제조업 고령화
 일자리 창출 위험도
 직장인-주민 고리도(2016)
 과학기술혁신역량 위험도
 관리자·전문가 비중 위험도

2014 2015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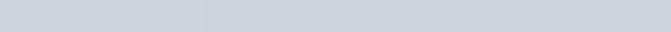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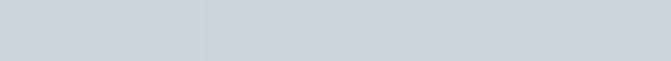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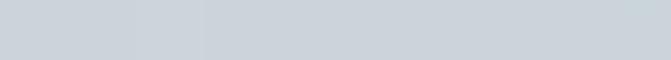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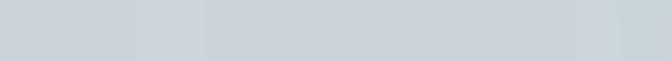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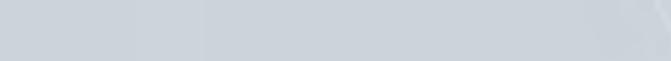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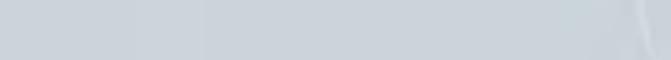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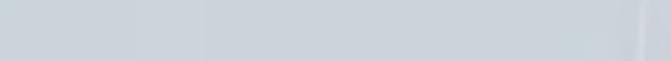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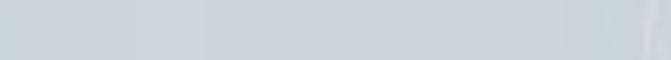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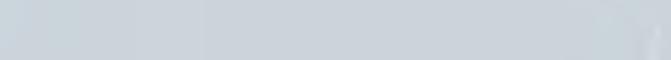


- 맵 네비게이션

지도 위에 ‘겹쳐서’ 표시할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상단 템을 통해, 레이어를 겹쳐서 볼 것인지(위험도 합산)
 한 가지 데이터의 지도만 볼 것인지(단일 위험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의 슬라이드 바를 통해, 2014~16년 중에서
 하나의 데이터를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lab2050.org/workmap>에서 직접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 기사형 스토리텔링 페이지에서의 사용자 경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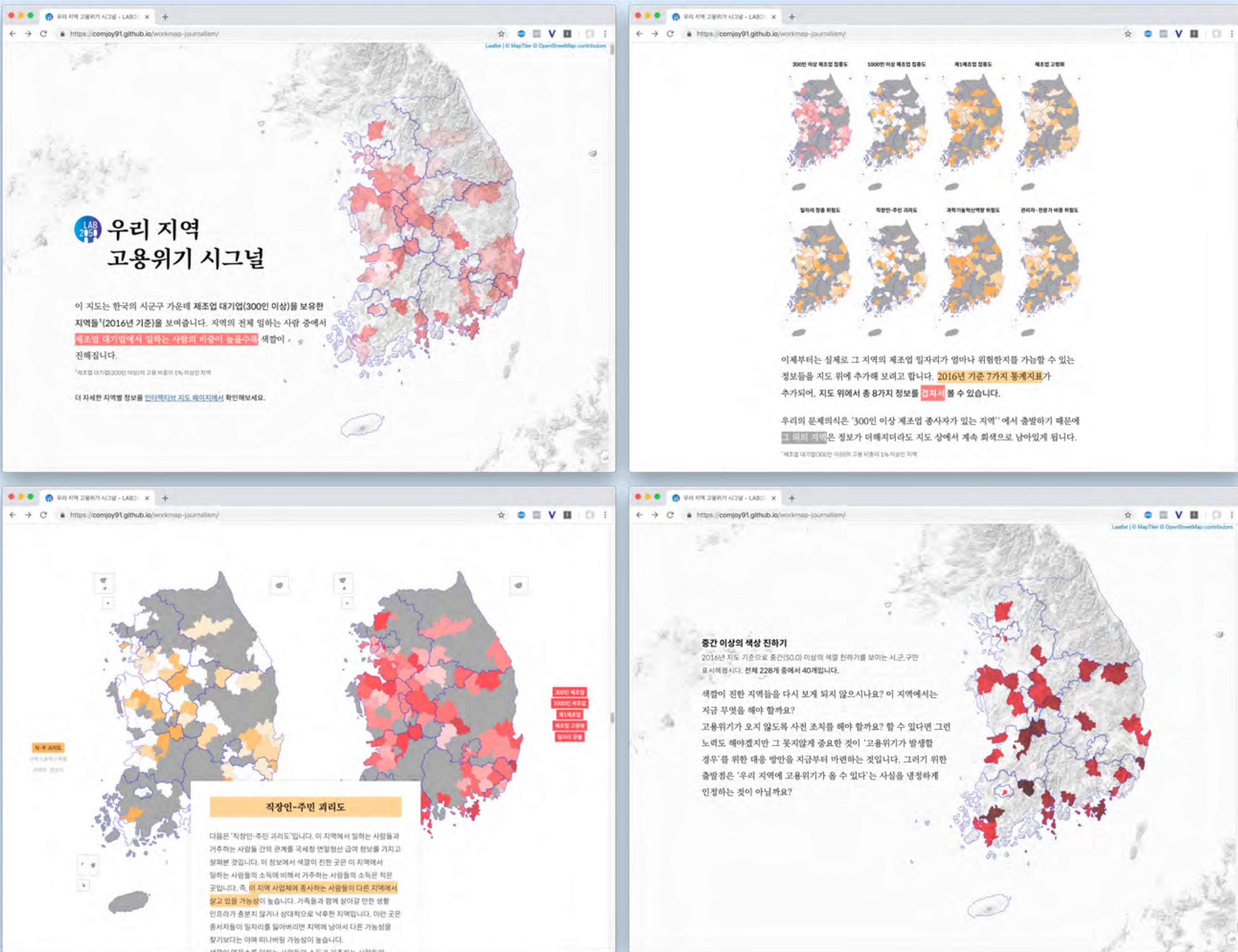
LAB2050에서 먼저 제안한 것은 지도 페이지의 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만으로는 연구의 주제의식, 데이터와 위기 지역에 대한 해설이 매우 빈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LAB205과의 합의를 통해, 연구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기사형” 스토리텔링 페이지를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다량의 글/그래프/지도가 사용되고, 그 내용이 복잡한 만큼, 기사형 페이지에서는 독자가 끝까지 집중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화면기기의 폭에 따라 글-그래프-지도의 가독성과 내용 조화를 동시에 만족하는 반응형 레이아웃과 타이포그래피 사용.
- (2) 글과 지도에서, 같은 주제를 나타내는 대상을 계속 연결하며 읽을 수 있는 트리거 설치.
- (3) 긴 글을 읽어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주제를 잘 전달하도록, 눈에 잘 들어오는 지도 애니메이션 설치.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기사형 스토리텔링 웹페이지)

반응형 웹페이지
HTML5, CSS, Javascript, JQuery 사용. D3.js, Leaflet.js 라이브러리 사용.
2018년 12월
<https://comjoy91.github.io/workmap-journal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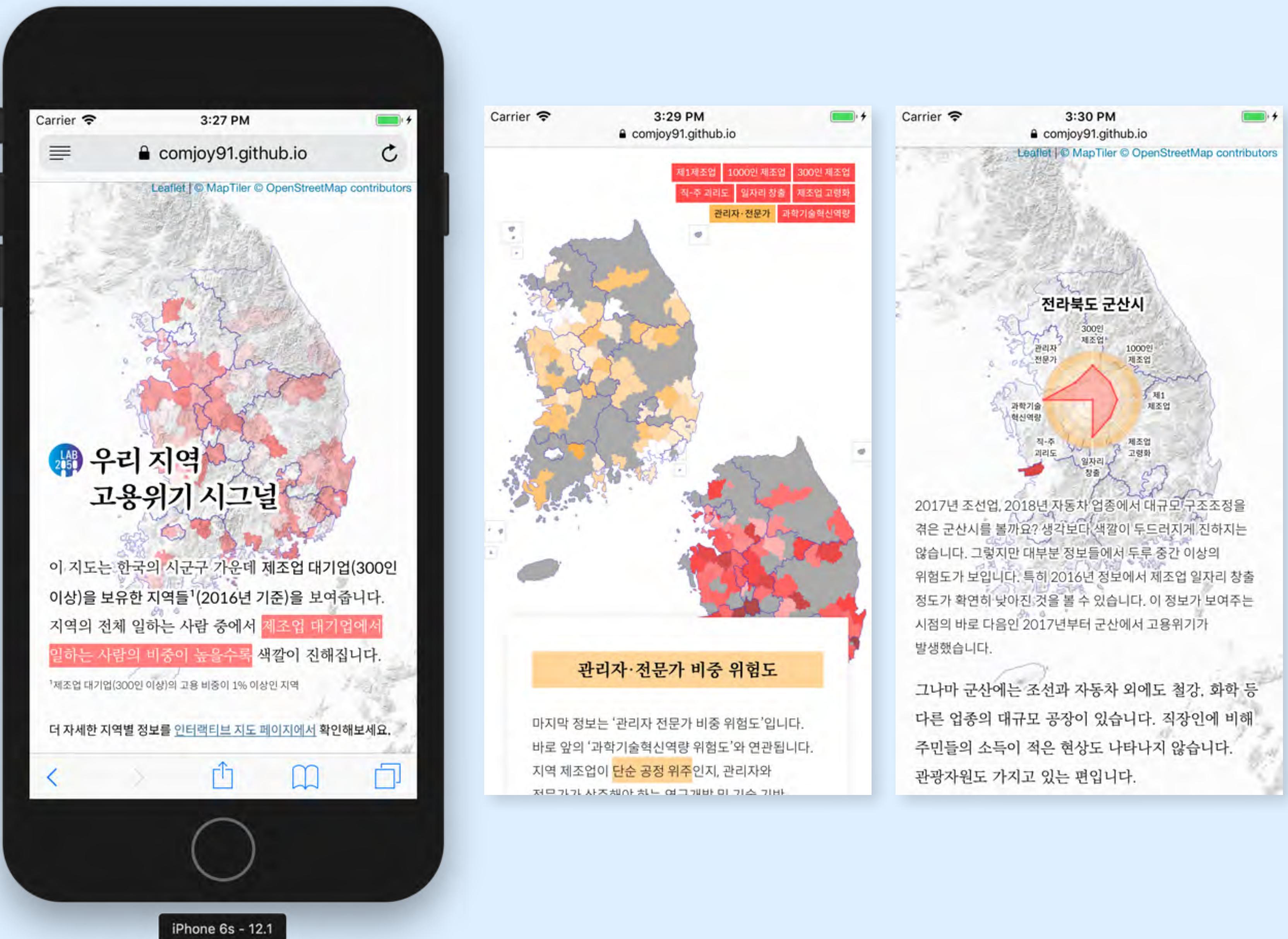


- 웹 레이아웃

(1)과 (2)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를 뒷배경으로 하고 텍스트를 상대적으로 앞으로 내보여주는 레이아웃을 채택했습니다. 지도와 텍스트의 영역을 임의로 구분하지 않아서 독자가 두 내용을 유기적으로 확인하며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롤에 따라 글 내용에 맞춰 지도 내용이 변화하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했습니다.

- 주제의식과 맞닿은 애니메이션

특히, 2개의 지도를 나란히 놓고 ‘지역별로 날아가서 겹쳐지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연구의 핵심인 데이터 8종이 점점 겹쳐져서 지역의 위기상황을 점점 드러내는 애니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에게는 데이터 8종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고, 독자는 점증되는 위험도를 관찰하며 연구가 전달하려는 위기의식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기사형 스토리텔링 웹페이지)

반응형 웹페이지

HTML5, CSS, Javascript, JQuery 사용. D3.js, Leaflet.js 라이브러리 사용.

2018년 12월

<https://comjoy91.github.io/workmap-journalism/>

평등하게 1/n

“어떤 대상을 ‘n’에 포함할 것인가?”

<https://comjoy91.github.io/fairly-divided-byN>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 전시 설치

201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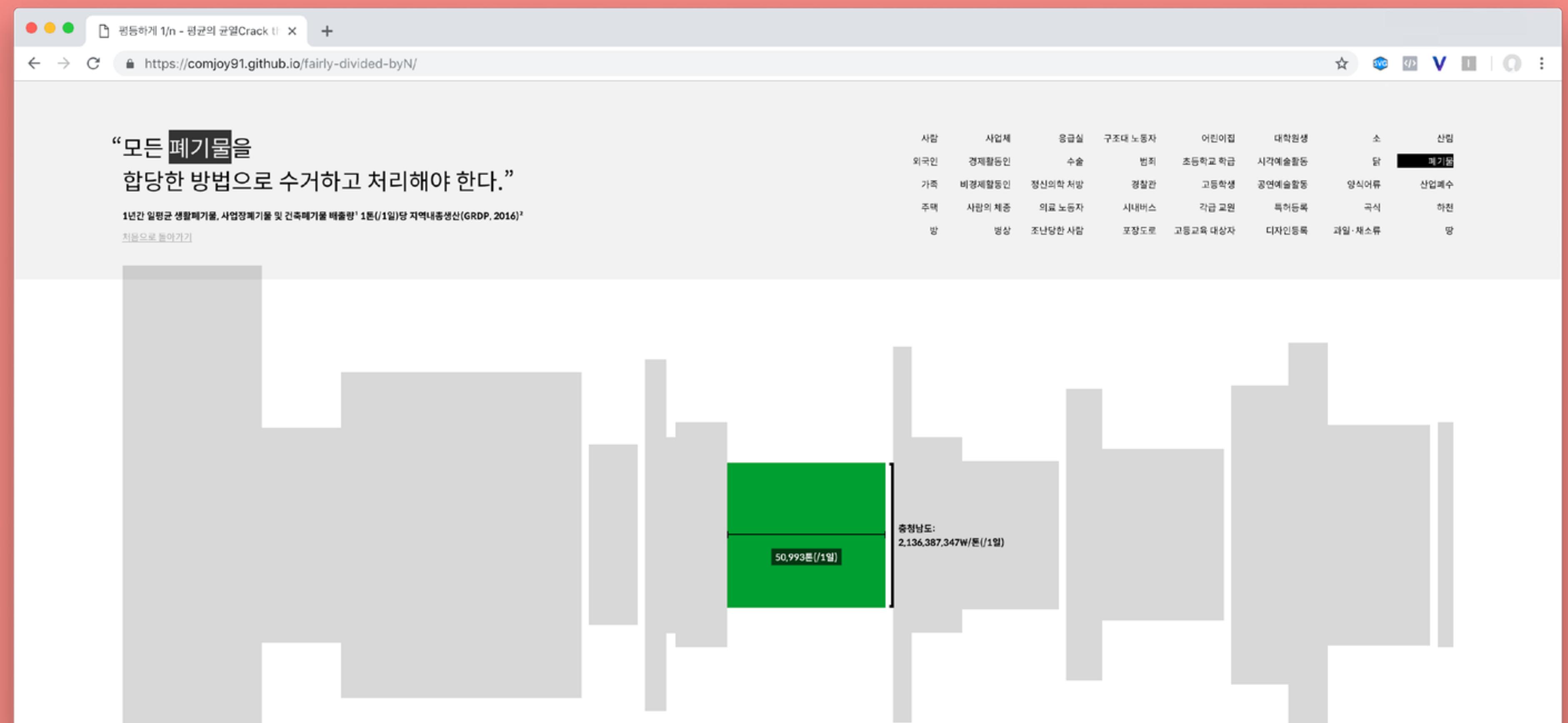
출품 전시

2018 서울시립미술관 시민큐레이터 선정 전시
“평균의 균열” 출품작 (2018. 10. 18 ~ 27)

전시 공식 [웹사이트](#) 및 [인스타그램 계정](#)
서울시립미술관 [공고문](#)

제작 참여

이야호 (전시 기획 및 총괄, 설치물 제작 지원)
조현익 (전시작 기획, 리서치, 웹페이지 및 설치물 제작)



“보통 내신성적은 모든 과목 점수를 더해서 평균을 내지만, 체육을 너무 못했던 나는 몸 쓰는 과목을 빼고 다뤄보자며 ‘체육을 뺀 평균성적’을 굳이 계산해서 친구들과 비교하는 찌질한 짓을 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진학하기를 원하는 상급학교의 전형에 맞춰 ‘국영수’ 평균, ‘국영수사과’ 평균 등을 따로 계산하기도 했다. 어쩌면 우리는 평균값을 계산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도, 어떤 대상을 계산에 포함하느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평균을 측정할 때, n개의 측정대상은 모두 가중치 없이 더해지고, 모두 더해진 뒤에야 n으로 동등하게 나눠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상을 평등하게, 중요하게 대우하며 ‘n’에 포함할 것인가? 사람들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경제력의 기준으로 삼으며, 여기에는 사람 한 명에게 충분한 경제력이 주어져야 한다는, 즉 사람 한 명 한 명을 중요하고 평등하게 여기는 정신이 들어있다. 그렇다면 주택 1채당, 경찰관 1명당, 사육 소 1마리당, 산림 1,000m³(세제곱미터)당 GRDP 같은 개념을 들고 오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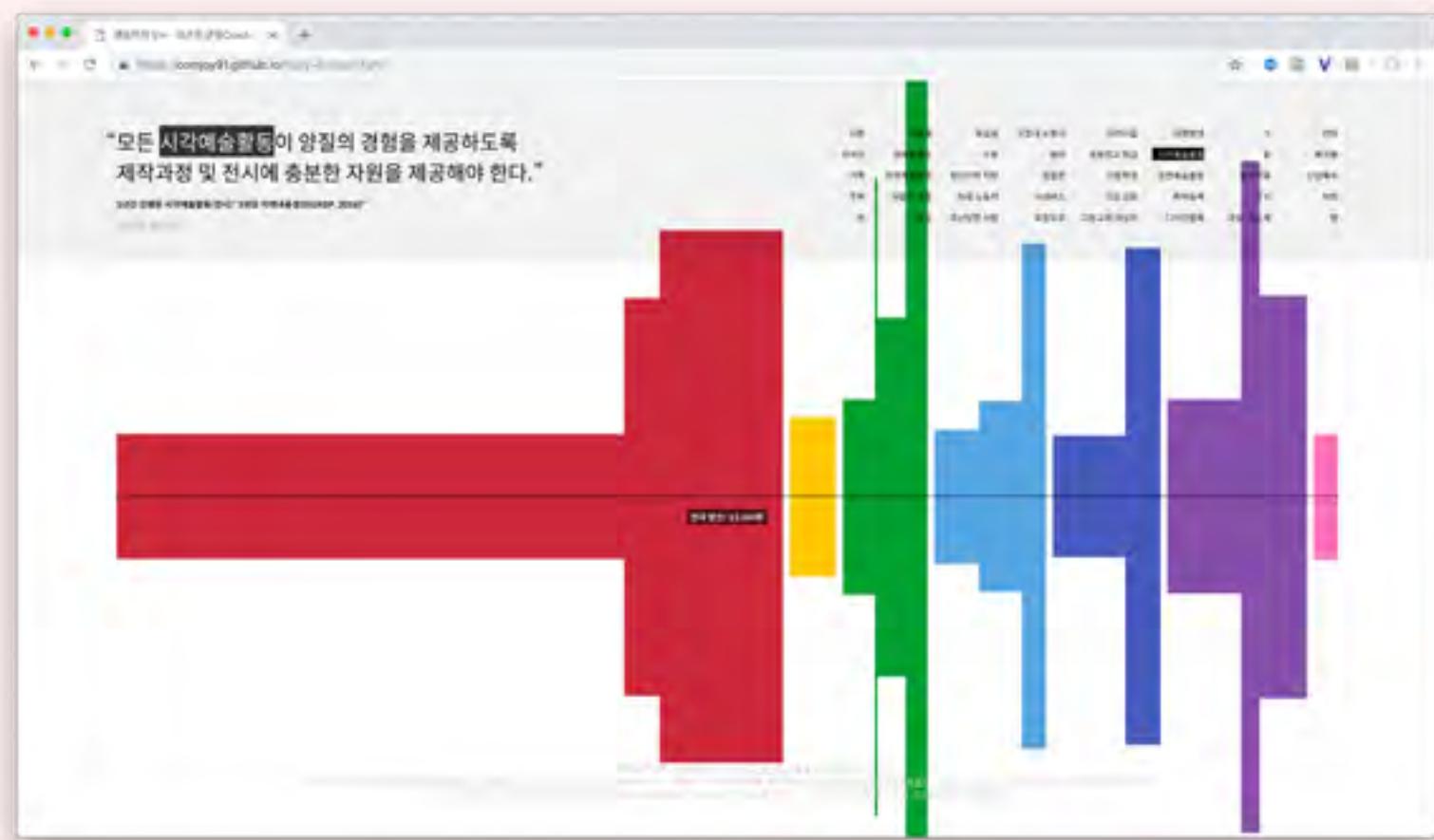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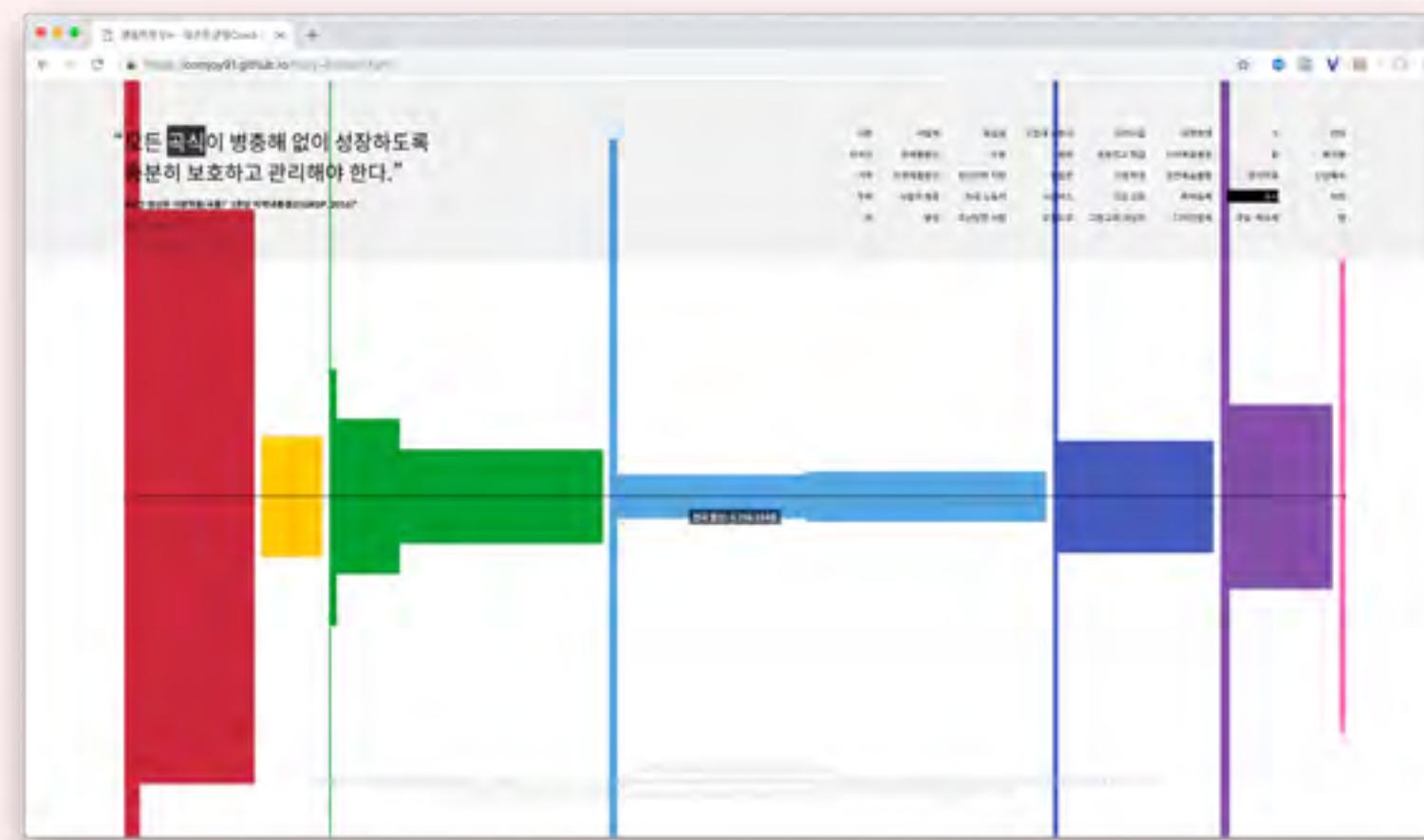
- 디자인의 목표

“평균의 균열”이라는 전시 주제에 맞춰, 산술평균이라는 통계기법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구상했습니다. 17개 광역시/도의 GRDP를 총량으로 하고, 이를 각 지역별 인구, 주택, 사업체, 수술환자, 경찰관, 초등학교 학급, 특허등록, 사육 소(牛), 산림 부피 등 다양한 대상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평균값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1)평균으로 나누는 대상과 그 의미를 보여주고, (2)총량이 변하지 않음에도 나누는 대상에 따라 급격하게 바뀌는 평균값을 시각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지도 웹페이지)

4096 × 2304 px, 반응형 웹페이지
HTML5, CSS, Javascript, JQuery 사용. Leaflet.js 라이브러리 사용.
2018년 11월
<https://comjoy91.github.io/fairly-divided-byN/>



“모든 어린이집은 충분한 보육환경을 준비해야 한다.”

어린이집¹ 1개소당 지역내총생산(GRDP, 2016)²

[처음으로 돌아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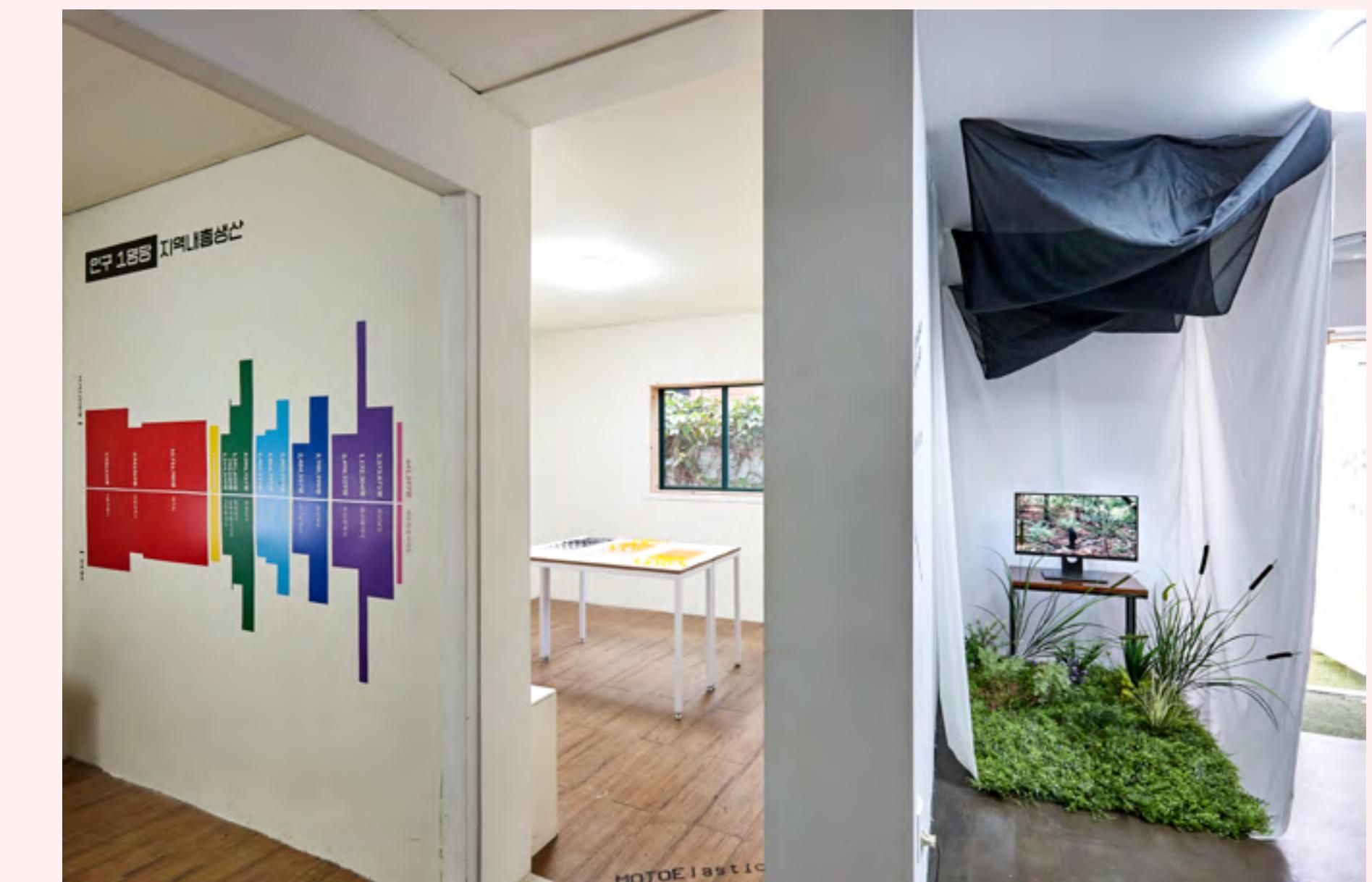
사람	사업체	응급실	구조대 노동자	어린이집	대학원생	소	산림
외국인	경제활동인	수술	범죄	초등학교 학급	시각예술활동	닭	폐기물
가족	비경제활동인	정신의학 처방	경찰관	고등학생	공연예술활동	양식어류	산업폐수
주택	사람의 체중	의료 노동자	시내버스	각급 교원	특허등록	곡식	하천
방	병상	조난당한 사람	포장도로	고등교육 대상자	디자인등록	과일·채소류	땅

- 메뉴에 대한 설명

나누는 대상에 따라, 그 대상이 ‘경제력을 평등하게 분배받는다는 의미’를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해서, 평균의 의미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각 메뉴는 GRDP를 나누는 대상을 나타내며, 이를 클릭하면 각 지역별 사각형의 높이/너비가 변화합니다.





유니세프 후원검증 작업물

inspire/d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브랜드 경험) 그래픽 디자인, (웹 환경) 편집디자인

2016. 10. ~ 2017. 06. (inspire/d 근무 전체기간)

클라이언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http://unicef.or.kr/>

<https://www.facebook.com/WeActionUNICEF>

에이전시 / 제작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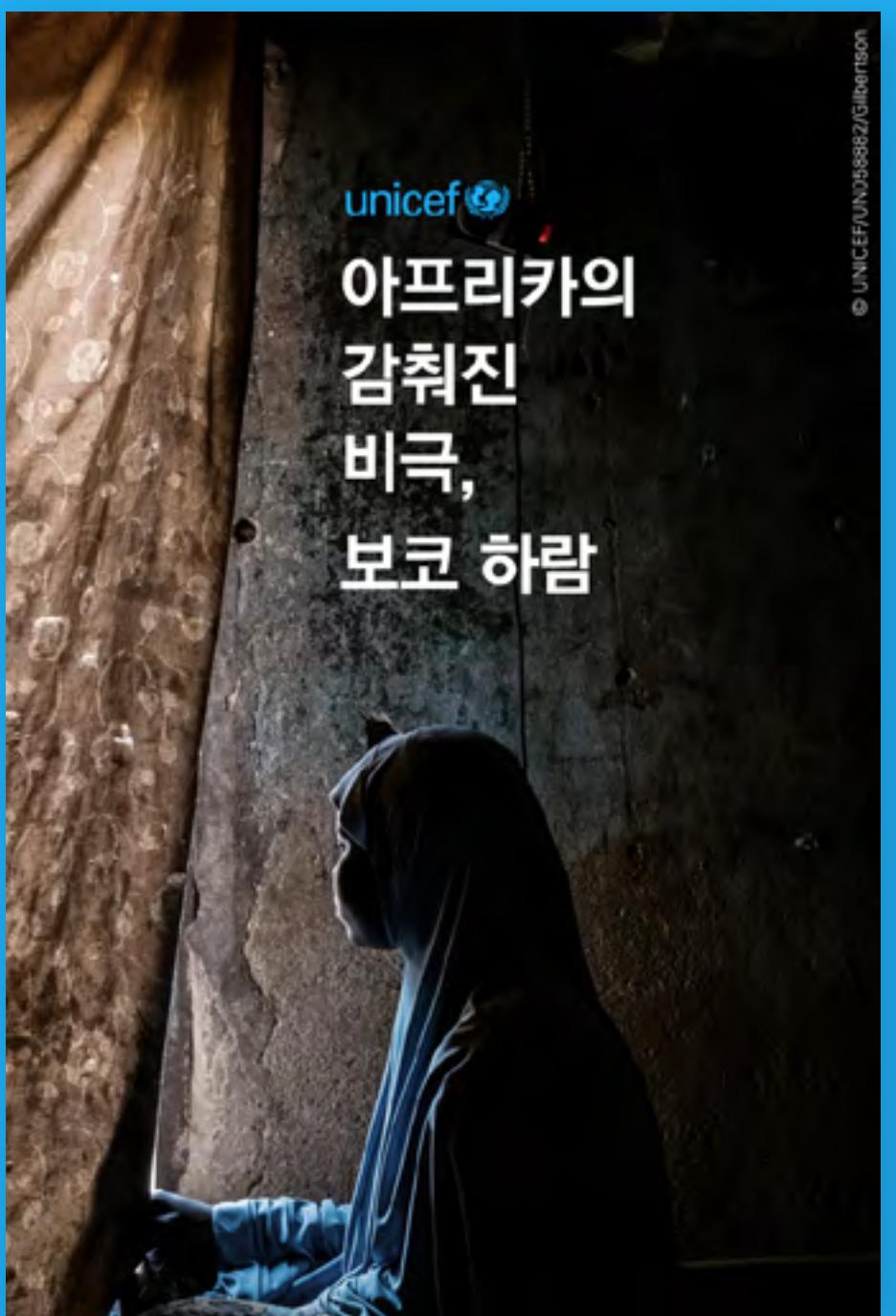
inspire/d

<http://inspired.crevisse.com/>

박찬진, 김혜주 (스토리 및 콘티 기획)

조현익 (콘티 내용 시각화)

김보영, 권민희 (시각화 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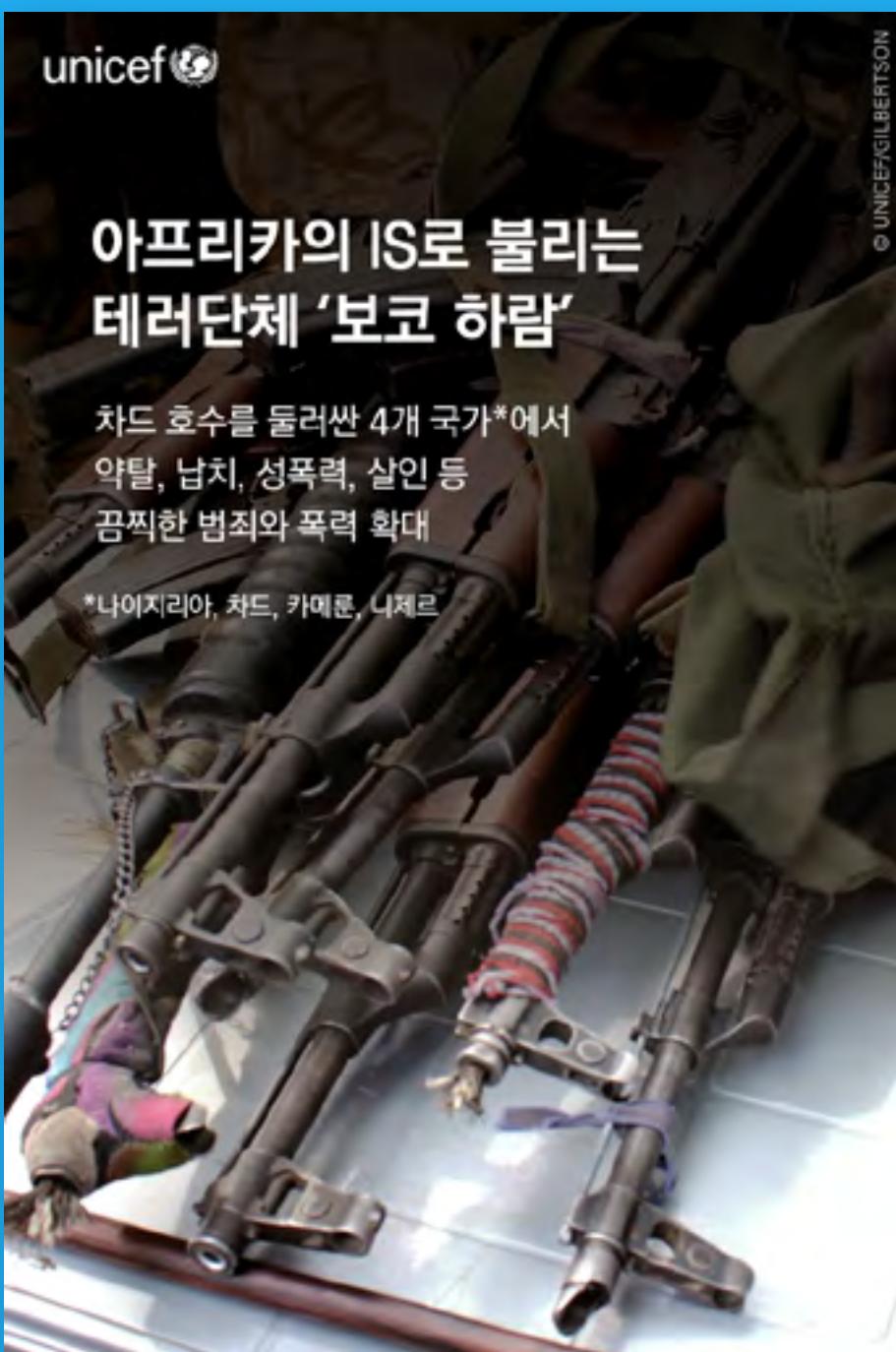
UNICEF WeAction: 보코하람

720 × 1080 px (10장), 디지털 전자화면매체(Facebook)

박찬진 콘티기획, 조현익 시각화

Adobe Photoshop 사용, UNICEF WeShare 사진아카이브 이용.

2017년 4월



아프리카의 IS로 불리는
테러단체 '보코 하람'

차드 호수를 둘러싼 4개 국가*에서
약탈, 납치, 성폭력, 살인 등
끔찍한 범죄와 폭력 확대

*나이지리아, 차드, 카메룬, 니제르



여자 어린이의 악동

납치되어 성폭력을 당하고
어린 나이에 임신해
의료 지원 없이 출산 감당.



유니세프와 함께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다시 희망을 찾아주세요.

인스파이어디inspire/d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멋진 캠페인과 한번 보면 잊지 못할 브랜드,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그로스 마케팅으로 기업의 매출과 사람들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브랜딩/마케팅 회사입니다.

inspire/d와 유니세프UNICEF 한국위원회는 유니세프가 시행하는 국제적인 아동보호 및 구호 활동을 후원자에게 보고하는 후원검증 컨텐츠를 제작했습니다. inspire/d가 제안한 아이덴티티 전략에 따라,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물, 이메일 발송, 캠페인 웹페이지를 통해 유니세프의 활동을 알리고 후원을 호소하는 컨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디자이너 직무를 맡았던 조현익은 기획자의 콘티에 따라 시각화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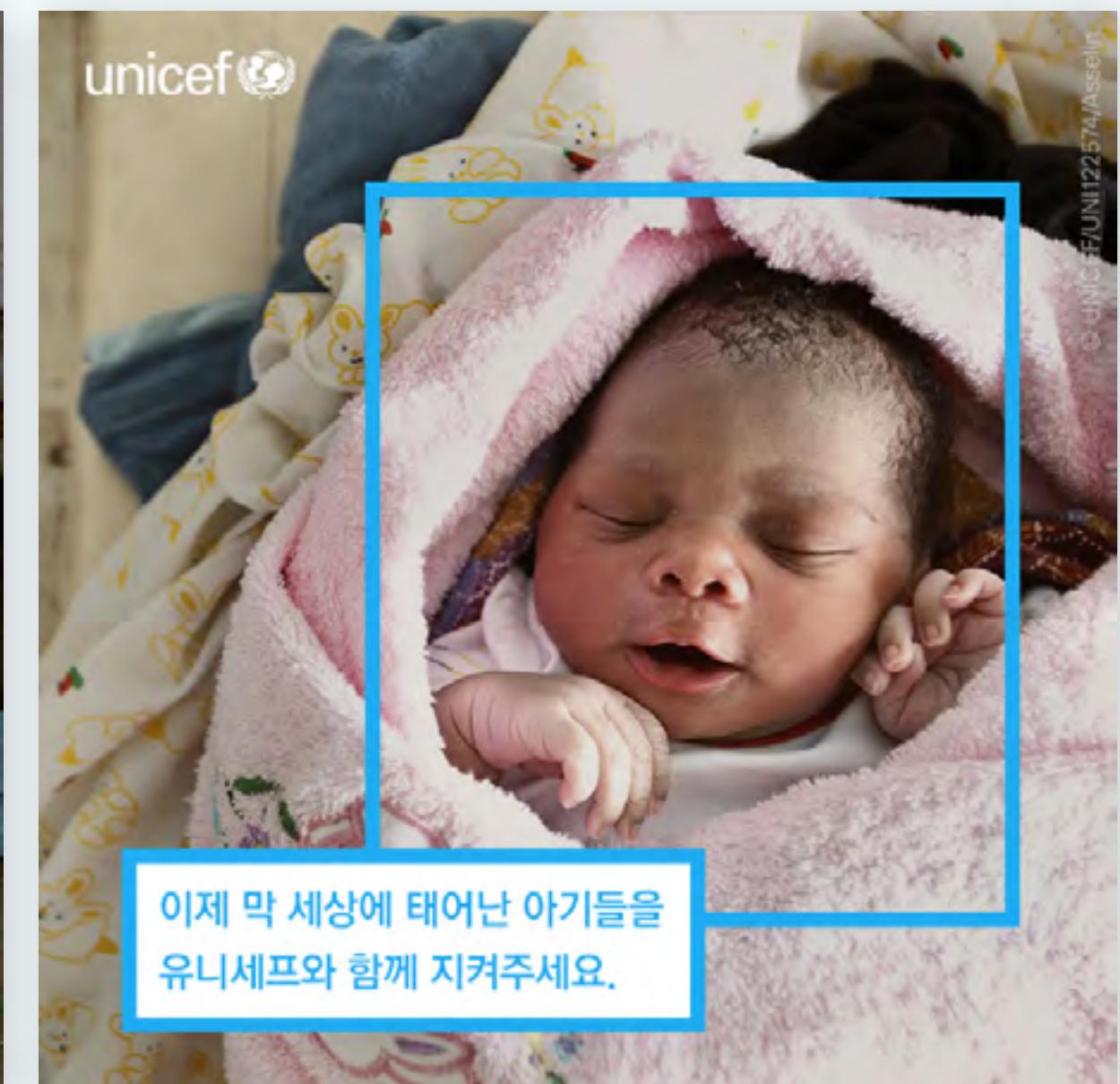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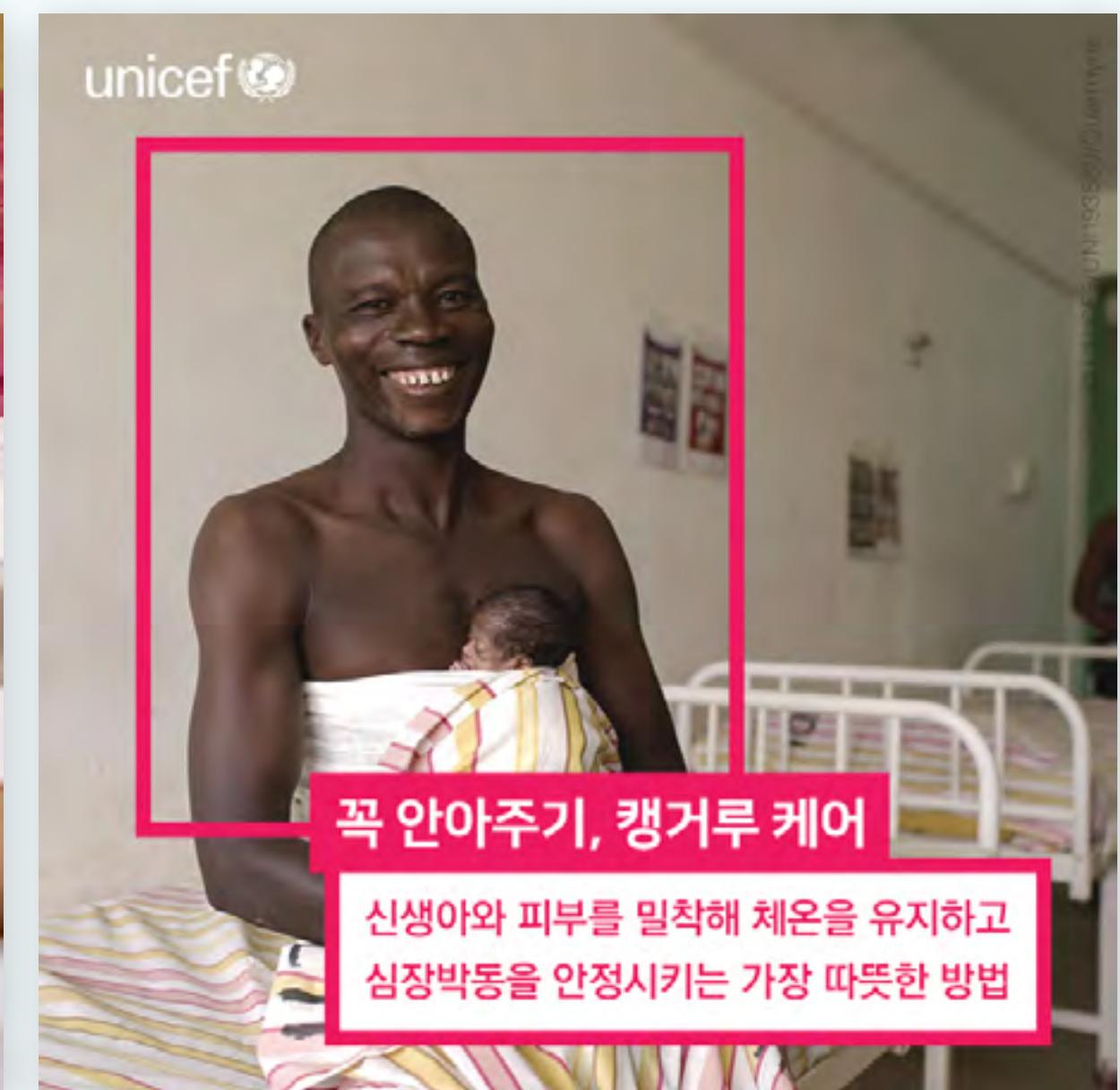


UNICEF WeAction: 희망

720 × 720 px (4장), 디지털 전자화면매체(Facebook)
김혜주 콘티기획, 조현익 디자인
Adobe Photoshop 사용, UNICEF WeShare 사진아카이브 이용.
2017년 2월

유니세프는 이미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독자적인 아이덴티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색상, 타이포그래피
등에서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작업은, 기획에서 강조하려는
컨텐츠 서사를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디자인 요소를 활용해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내용에 맞는
적절한 사진 확보, 특정적인 문구 강조,
사진에서 주목할 부분을 디자인 요소를 통해
강조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UNICEF WeAction: 신생아 생명 지키기 3가지 방법

720 × 720 px (9장), 디지털 전자화면매체(Facebook)

박찬진 콘티기획, 조현의 시각화

Adobe Photoshop 사용, UNICEF WeShare 사진아카이브 이용.

2017년 4월

오늘은 김연아 친선대사처럼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곳](#)을 클릭해 주십시오.

유니세프 필드 디어리는 잘 읽으셨나요?

필드에서 어린이 구호 활동을 하는 직원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이제, 유니세프 국제 친선대사 김연아가 들려주는
유니세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어린이들에게 꿈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 유니세프 친선대사 김연아



UNICEF 회원 안내 이메일:
오늘은 김연아 친선대사처럼

700 × 4155 px, 디지털 전자화면매체(email)
박찬진 콘티기획, 조현의 시각화
Adobe Photoshop 사용, UNICEF WeShare 사진아카이브 이용.
2017년 5월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꿈을 이룰 수 있었던 한 소녀는
더 많은 어린이들의 꿈을 위해
유니세프 최연소 국제친선대사가
되었습니다.



유니세프 친선대사 김연아의 꿈

자세히 보기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꾸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5년 동안 이어진 내전으로
학교에 갈 수 없었지만
유니세프 덕분에 이제 다시 학교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 하산, 10살



엄마에게 예쁜 옷을
만들어 줄래요

돈을 벌기 위해 엄마를 도와
바느질 일을 해요.
학교에 갈 수 없지만 바느질 실력을 길리서
멋진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 사일라, 8살

더 많은 어린이의 꿈

자세히 보기

더 많은 어린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5살 아흐마디는 비닐봉지로
유니폼을 만들어 축구를 연습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리오넬 메시 유니세프 국제친선대사는
유니세프를 통해 유니폼을 선물하고
아흐마디에게 축구선수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다섯 살 아흐마디의 꿈

자세히 보기



유니세프와 함께
더 많은 어린이의 꿈을 후원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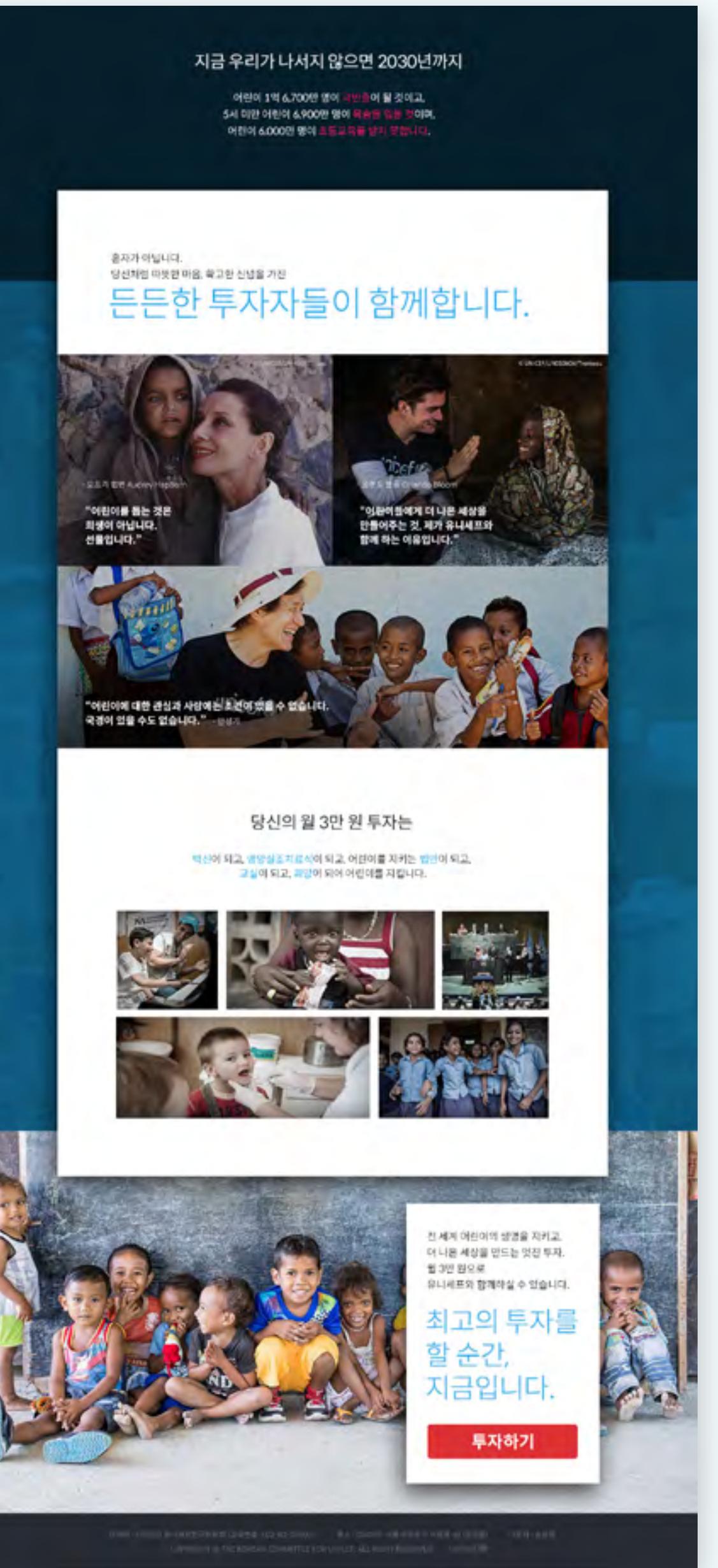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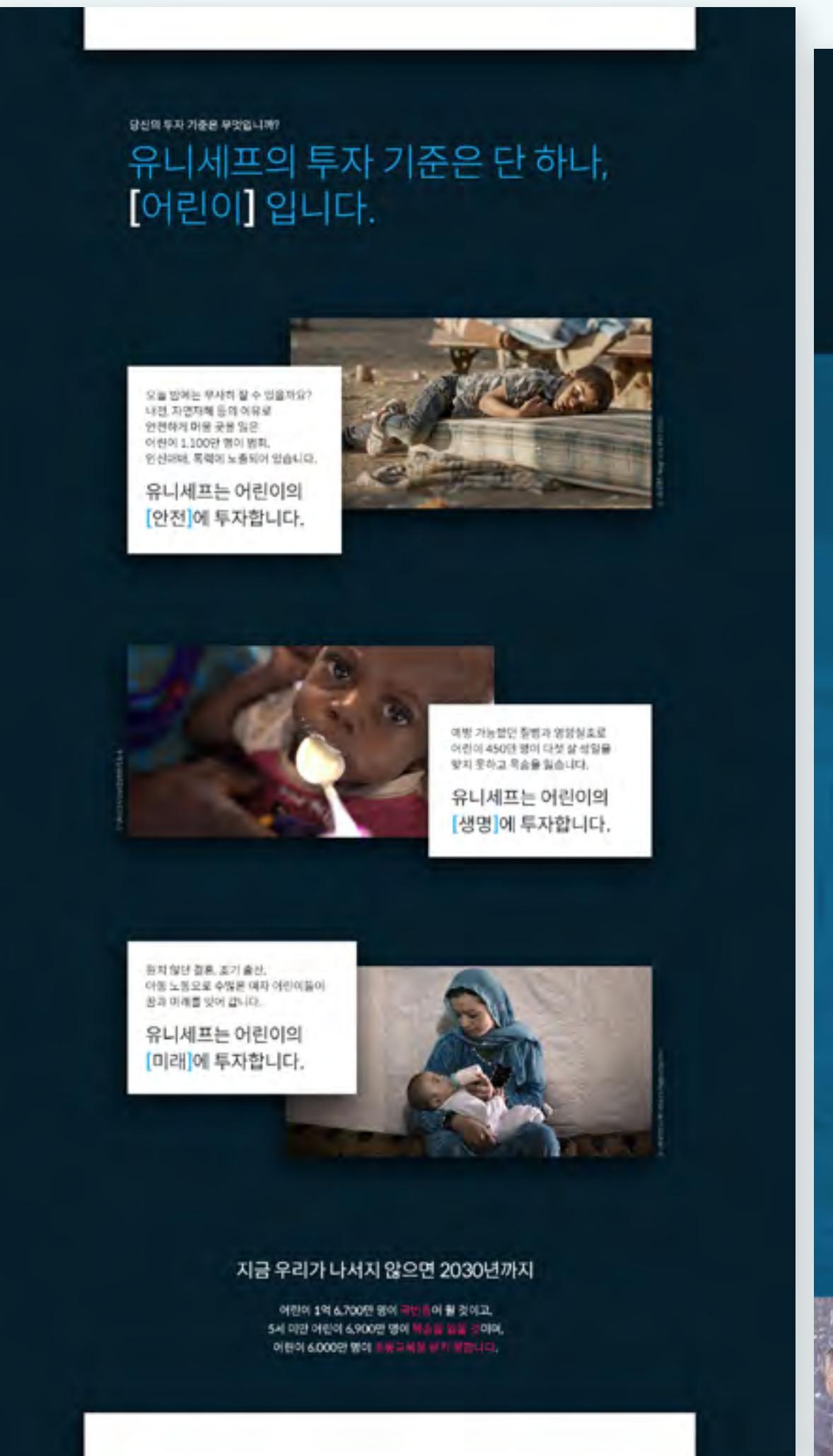




UNICEF 캠페인 페이지: 최고의 투자

1320 × 8802 px, 고정형 웹페이지
박찬진 콘티기획, 조현익 시각화 (아이콘 시각화: 김병준)
Adobe Photoshop, Instapage(웹페이지 제작 툴) 사용,
UNICEF WeShare 사진아카이브 이용.
2017년 3월

<http://campaign.unicef.or.kr/investment>



전 세계 어린이의 생장을 자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멋진 투자.
월 3만 원으로
유니세프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하기](#)

여성혐오 타임라인

20's Timeline: Misogyny Timeline

<https://20timeline.com/oversmart/misogyny-timeline>
<https://www.facebook.com/20timeline/posts/1233607600055002>

웹페이지 디자인, 정보 아키텍쳐

2016. 10. ~ 2017. 01. 웹페이지 디자인 및 개발 / 2016. 07. ~ 2017. 01. 기획 및 취재

소속

20's Timeline
<https://20timeline.com/>
<https://www.facebook.com/20timeline>

제작 참여

조현익 (기사 기획, 취재, 집필, 시각화, 웹 개발)
허자인 (취재, 집필검수)
김어진 (개발검수)



“2016년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였다면, 2016년을 가장 오랫동안 달군 이슈는 단연코 성평등 문제입니다. 성별에 따른 무시와 멸시, 성별에 대한 편견, 다른 성별에 대한 예의없음이나 폭력,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제도적 불이익, ‘다른 성별이 존재함’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등등. 여러가지 주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를 뚱뚱그려 표현할 때, 한국어로는 어감이 잘 와닿지 않는 ‘여성혐오Misogyny’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역사란 나와 내 옆사람이 함께 경험하고 관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통으로 가진 역사를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 경험을 기억하지 못한 채 감정을 소모하며 싸우곤 합니다. ‘메르스 갤러리’의 탄생을 조사하다보면 ‘한국인 여성 메르스 의심환자가 홍콩에서 격리를 거부했다’는 오보 기사를 찾게 됩니다. '#나는페미니스트'라는 표현의 유래를 조사하다보면, 요즘 시대엔 남성이 반대로 차별받고 있다며 ISIL에 입단하겠다는 한 청소년의 절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비판하며 언급되는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31년 전 노동운동가 권인숙이 성고문을 받으며 들었던 “운동권이 성마저도 혁명의 도구로 쓴다”라는 비난이 떠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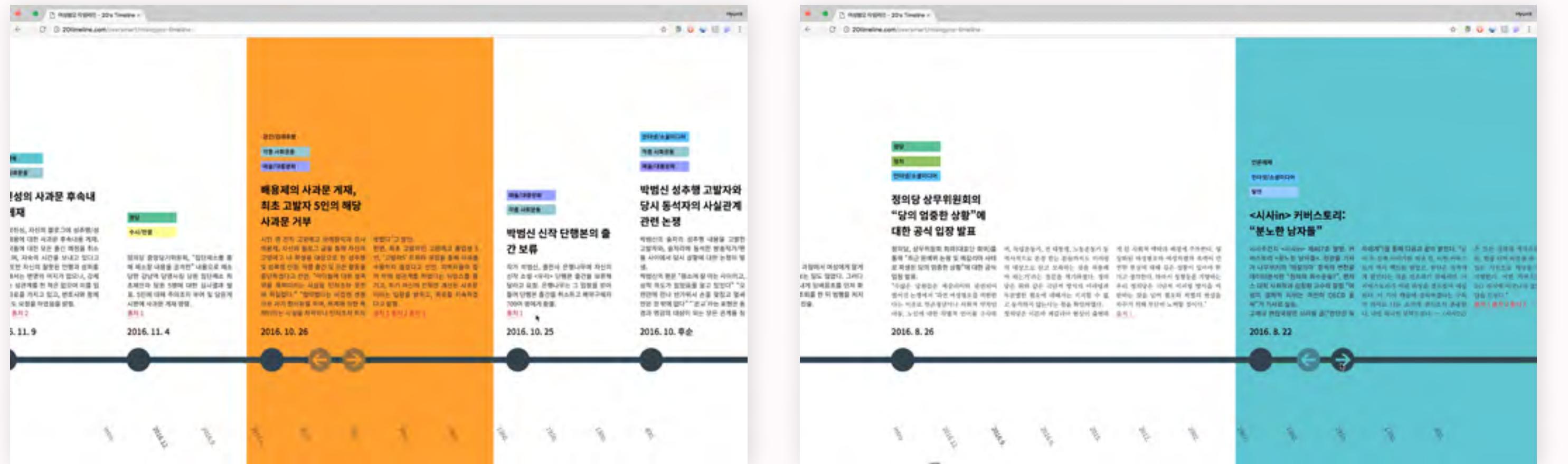
한국 시민들이 2016년에 목격한 찝찝한 일들부터, 백제 개로왕이 백성을 겁탈하려고 했던 일까지. 한국에서 벌어진 뭔가 찝찝한 일들을 주욱 모아봅니다. ‘여성혐오’라는 단어는 중요하지 않으니, 이 페이지의 내용 하나하나를 읽으며 뭔가 찝찝하다면, 그 근원이 무엇인지 한 번 상상해봅시다.”

- 디자인의 목표

여성혐오 타임라인은 여성혐오 이슈와 연관되었던 2015~16년의 사건들의 맥락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건, 또는 비슷한 맥락의 역사 속 사건 총 435개를 나열합니다. 따라서 독자가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통해 두 가지 목표를 해결해야 합니다.

1. 독자가 사건 발생 시점, 사건의 종류, 사건 내용을 함축적으로 파악하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

2. 사건의 지속성, 연속성을 보여줘야 함. 435개의 사건 중에서는 여성혐오 이슈와 직접관련이 없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배경에 해당하는 내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함. 따라서 개별 사건 전후로 연계된 내용이 계속 나타남을 보여줘야 함.



여성혐오 타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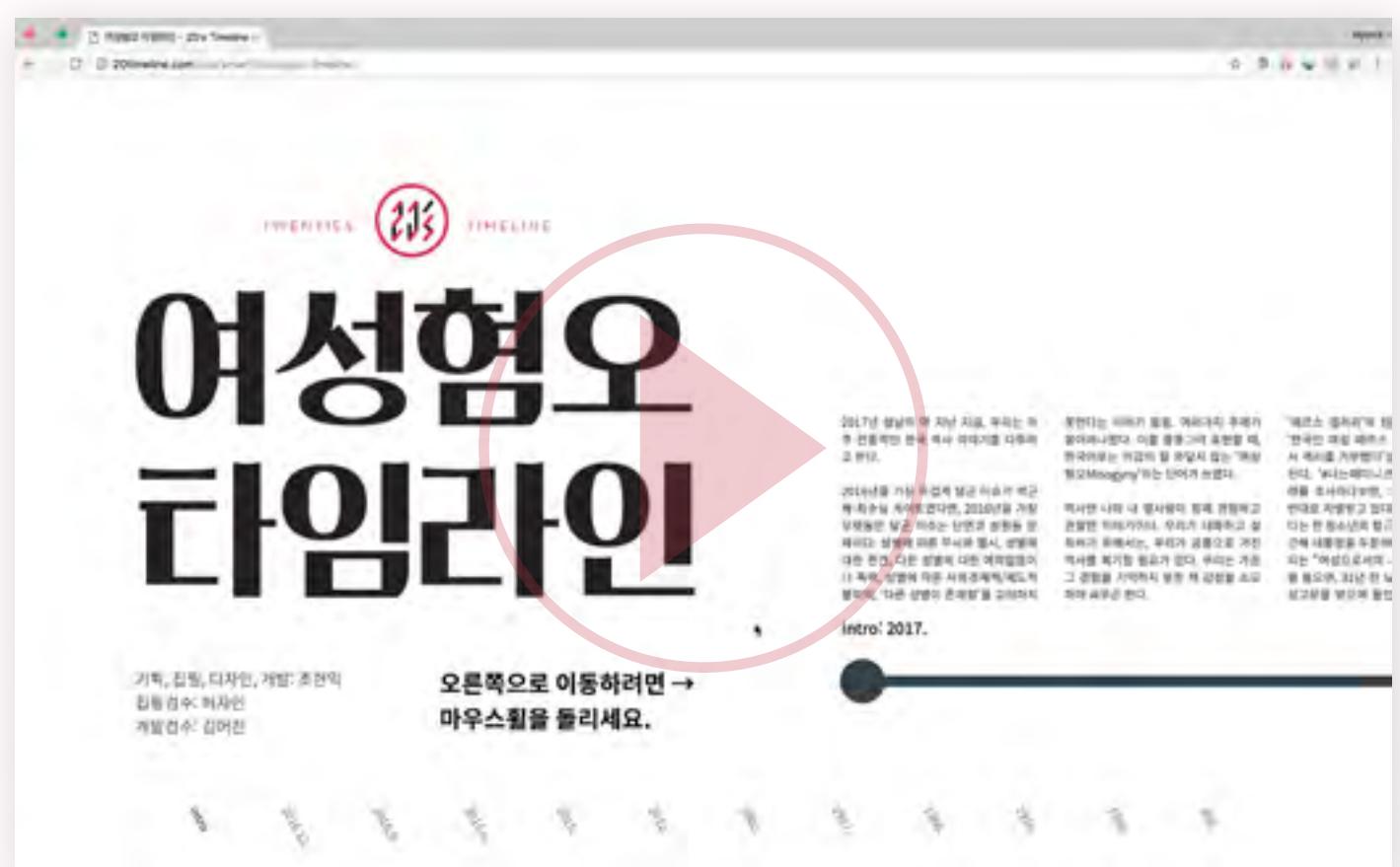
180155 × 976 px, 반응형 웹페이지

HTML5, CSS, Javascript, JQuery 사용

2017년 2월

https://20timeline.com/oversmart/misogyny_timeline

시연 영상: <https://youtu.be/FFFIJqnu0s>



- 구조화

<https://20timeline.com/oversmart/misogyny-timeline>에서 직접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 표제어 분류

사건을 총 16가지 표제어로 분류하여, 한 사건에 최대 3가지 표제를 붙입니다. 사용자는 사건을 종류별로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대중문화

발언

DJ DOC, 신곡 “수취인 분명” 발표

DJ DOC, 신곡 음원 “수취인분명”을 발표하고 무료로 공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임을 발표했으며, 11. 26의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공연할 것임이 알려짐. 가사에서 박근혜를 직접적으로 비판함.

그러나, “Miss(take) 박”, “역대급 뻥땅,

2016. 11. 25



- UI (2)

하단에는 각 년도의 마지막 시점으로 타임워프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자는 435건의 사건 중 특정 시간대의 내용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Intro

2016.12.

2016.9.

2016.6.

2015.

2012.

2002.

1987.

1960.

1910.

400.

- UI (1)

각 사건의 표제어를 클릭하여 같은 표제어의 사건을 강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전체 사건을 죽 읽으면서 표제어를 살펴볼 수도 있고, 화살표를 클릭해 같은 표제어의 이전/다음사건으로 빠르게 타임워프할 수도 있습니다.

발언

언론매체

정치

김기춘의 “여성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결례”

발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 실장,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침몰사고가 진행 중이던 당시 7시간 동안의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시술 의혹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 비서동, 관저, 영빈관에 산재해 있어 사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해도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른다.

부속실이나 알까. 내가 관저에 가도 대통령의 침실인 안방에 들어가 본 적은 없다. 박 대통령이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난 대통령 말을 믿고 확신하고 있지만 사실 그걸 물어볼 수가 없었다. 여미디어를 통해 확산됨. 신체 접촉만지기, ‘예쁜’ 여성 참가자 영하는 등의 행위가 폭로되었을

출처 1 출처 2

2016. 11. 23



범죄

각종 사회운동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의 성추행 발생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여성 집회 참가자 성추행을 당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미디어를 통해 확산됨. 신체 접촉만지기, ‘예쁜’ 여성 참가자 영하는 등의 행위가 폭로되었을

출처 1

2016.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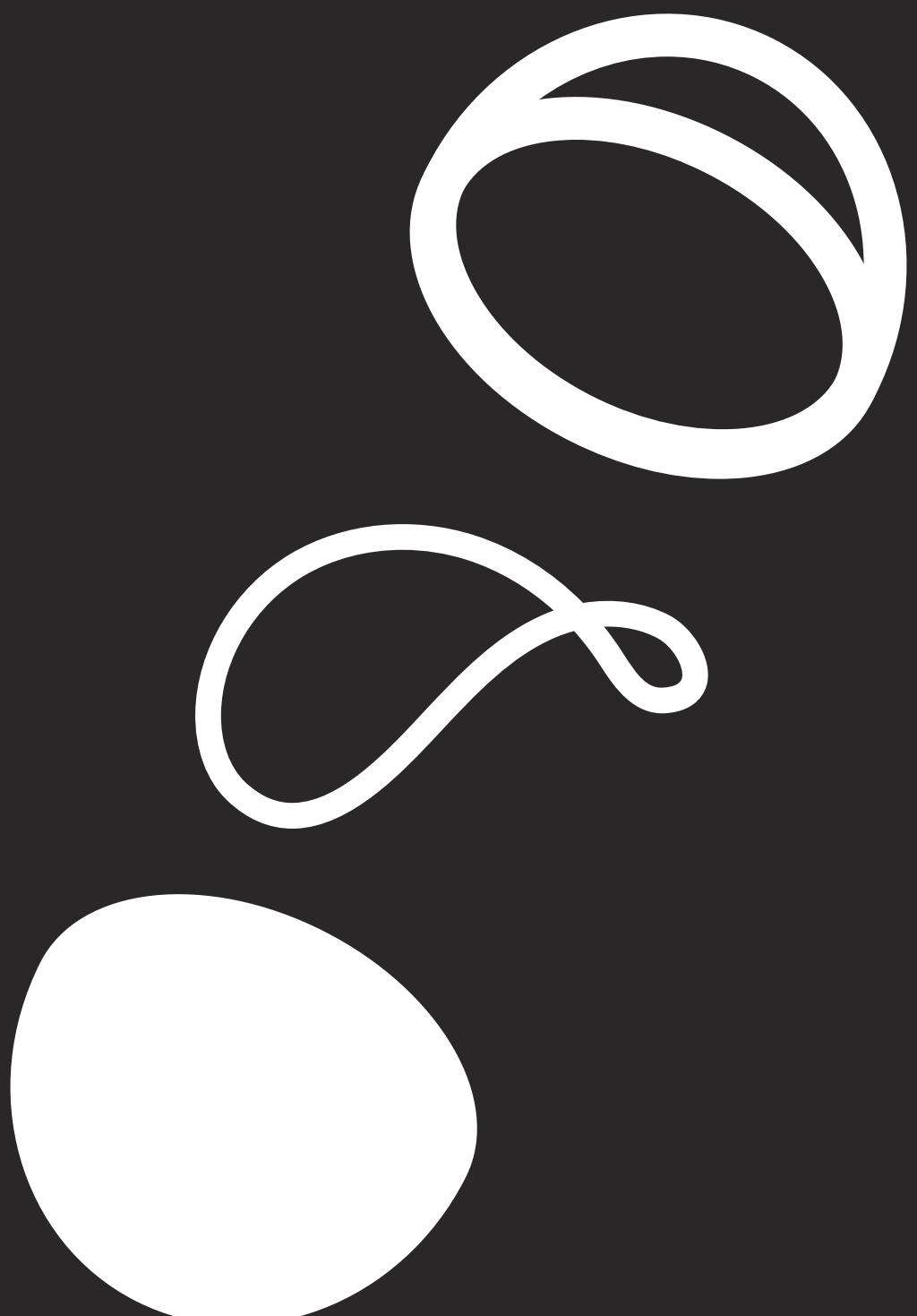


Studio Half-bottle

시각디자인 작업 포트폴리오

email address
hello@half-bottle.studio

webpage
<https://half-bottle.studio>



감사합니다.